도서관

제64권 제1호 (통권 제382호)

2009년 6월(상반기)

〈목 차〉

디지털시대 신문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 / 정현태 *1*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방안 / 이준우 *28*

하이브리드 도서관 활동에 관한 고찰 – 비즈니스 활동지원과 정부기관의 행정활동 지원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오마츠 켄이치 著 ; 정주리 譯 *53*

〈자 료〉

디지털도서관 개관기념 국제 컨퍼런스 주제발표 *59*

제13회 한·중 국가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 *103*

제3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 *116*

편찬위원장 : 강봉석
편 찬 위 원 : 문시영·강순애·김성희·김영석·유사라·윤정옥·이상복·최희윤
여위숙·이귀원

DOSEOGWAN

Vol.64 No.1(382) June 2009 (Bi-annual)

<Contents>

Study on the Collecting and Preserving Newspapers in the Digital Era 1
Joung, Hyun-Tae

The Study on Solution Plan of the Gap Solution between People and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 Use 28
Lee, Jun-Woo

ハイブリッド図書館内外の環境変化に直面して 尾松謙一 著；鄭朱利 譯 53

<Re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Celebrating the Opening of the New Digital Library 59

The 13th Exchange Program of the Librarian between NLK and NLC 103

The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 Young Adults 116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디지털시대 신문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1)]

Study on the Collecting and Preserving Newspapers in the Digital Era

정 현 태(Joung, Hyun-Tae)[2)]

목 차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보존 활동
   2.1 미국의 의회도서관(LC)
   2.2 캐나다의 국립도서관기록관(CLA)
   2.3 영국의 영국국립도서관(BL)
   2.4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2.5 호주의 호주국립도서관(NLA)
3. 신문자료의 보존 및 대체매체 제작 기술동향
   3.1 신문자료의 원형보존
   3.2 신문자료의 M/F제작
   3.3 신문자료의 디지털제작
4.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과 보존
   4.1 신문자료의 수집
   4.2 신문자료의 보존
5.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고는 디지털시대 신문자료의 수집 및 보존정책을 정비하는데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선진국 주요 국가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과 디지털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였다. 신문자료의 원형보존을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대체매체는 M/F제작이지만, 효율적인 검색과 원문서비스를 위해서는 디지털제작이 요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신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책임지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인쇄신문에 대한 보존대책과 더불어 온라인방식으로 유통중인 디지털신문에 대한 수집 및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민간신문사에서 생산되는 PDF지면 데이터와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국가신문데이터리포지터리'의 구축이 요망된다.

---

1) 이 논고는 2008년도 도서관연구소 내부협력연구보고서『신문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 것입니다.

2) 도서관연구소 연구관(huntjj@korea.kr)

〈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d the actual condition of digital service and collecting of newspapers in major national libraries of advanced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for collecting and preservation of newspapers in the digital age. Microfilm production of newspapers is the most stable and economic substituted-medium for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 of newspapers, but digital production of newspapers i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search and full-text servic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s national leading library that is responsible for the collecting and preservation of domestic newspapers, is required the counter-plan for collecting and preservation of digitalized newspapers that is circulated by on-line and for preservation of printed newspapers. If possibl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National Newspapers Database Repository," which enables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preserve PDF-typed and Internet-based newspapers that are produced by private newspaper companies.

키워드 : 신문, 보존, 마이크로필름, 국가도서관
newspaper, preservation, microfilm, national library.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신문은 해당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역사적 코드를 전승하는 사회유기체 DNA로써, 해당사회 기록유산에 대한 수집보존을 임무로 하는 도서관에 있어서 무엇보다 보존가치가 강조되는 역사자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읽고 버리는 뉴스매체라는 소모적인 속성상 신문 지질의 품질이 낮고 보존에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에 어려움을 수반하는 도서관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이자료로서의 원형보존이 어려운 물리적 조건에 기인하여 대체매체 개발이 활발한 자료이며, M/F제작 및 디지털제작의 기술적 변형을 통해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의 다원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술적 응용이 활발한 매체로 평가된다.

최근 발간되는 신문자료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서비스를 겸하거나, 최소한 신문제작을 위한 디지털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의 디지털데이터 수집과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새로운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고는 세계 주요 선진국 국가도서관들의 신문자료 디지털 보존 및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실 운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신문자료 수집, 보존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추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1.2.1 연구내용

본고는 다음과 같은 현황조사와 디지털 보존방안에 대한 검토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현황, 보존실태, M/F제작 및 디지털 보존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과 보존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활동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의회도서관(LC),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CLA), 영국의 영국도서관(BL),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호주의 국립도서관(NLA) 등 5개국 국립도서관의 신문자료실 운영실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셋째, 도서관의 신문자료 보존을 위한 대체매체 제작기술의 내용과 최신 동향을 점검하였다. 신문자료의 원본 보존을 위한 기본기술은 물론 M/F제작과 디지털제작의 구체적인 기술적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넷째, 결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실 운영의 주요 현안이 되는 디지털 보존방안을 제안하였다.

1.2.2 연구방법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문헌자료에 대한 서지조사 연구를 기본으로 하며, 선진 각국 국립도서관 신문자료 수집 및 보존활동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국내 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 및 소장실태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 NET) 검색을 통해 주요 도서관의 소장자료 개요를 파악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실태 및 이용데이터 등의 관련 자료는 신문자료실의 담당자로부터 업무통계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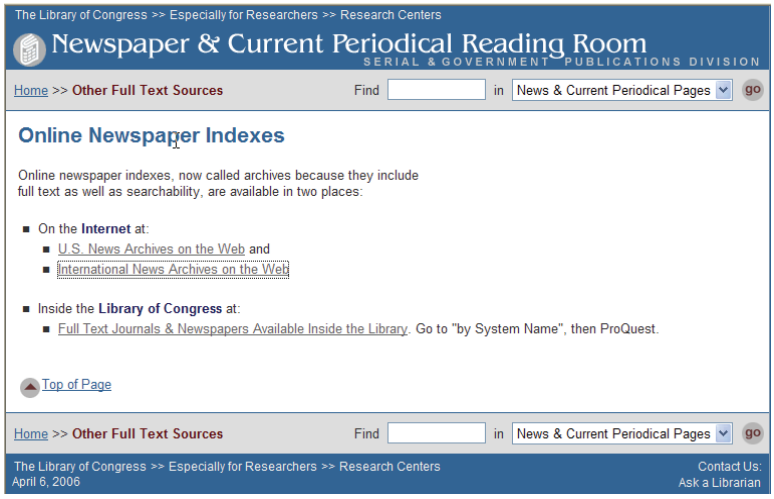
2.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보존 활동

2.1 미국의 의회도서관(LC)

의회도서관에서 구독중인 국내신문은 416종, 외국신문은 789종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자국신문보다 외국신문을 더 많이 구독하고 있으며, 외국신문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아프리카 205종, 아메리카 123종, 아시아 83종, 호주 대양주 19종, 유럽 312종, 중동 47종을 수집하고 있다. 글로벌시장의 중심답게 전 세계 국가의 신문을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신문열람실에서는 국내신문 14종이 자유롭게 열람에 제공되며, 이들 신문은 매15일 단위로 열람대에서 서고로 옮겨진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국내 신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신문사이트를 연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들 신문의 개별 아카이빙 자원에 대한 검색사이트도 소개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의회도서관 국내외 신문 링크서비스



의회도서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문기사 전문서비스(Full-Text Newspapers)에서는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등 개별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전문DB를 직접 연계하기도 하지만, ProQuest, EBSCO, Thomson/Gale, Lexis-Nexis, SwetsWise 등의 상업 DB업체들이 구축한 19세기 및 20세기 역사

적 신문들의 기사전문DB를 연계하여 제공하기도 한다.(http://www. loc.gov/rr/news/ftext.html) 신문기사 전문DB는 대부분 연속간행물 기사전문DB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속간행물 기사전문DB의 한 부류로써 형태사항에 '신문'의 조건을 두고 검색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ㅇ 미국의 역사적 신문 검색사이트(미국연대기 ; Chronicling America)운영

의회도서관은 전미인문학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미신문 디지털제작프로그램(NDNP ; the National Digital Newspaper Program)"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도서관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연대기사이트는 미국 신문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역사적 주요 신문에 대한 디지털제작을 추진하여 전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중장기 신문디지털제작프로젝트의 대민서비스창구로써 운영되며, 현재는 1690년 이후 미국에서 간행된 모든 역사적 신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890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간행된 신문지면의 검색과 열람을 제공하고 있다.(http://www.loc.gov/chroniclingamerica)

미국연대기사이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NDNP Repository는 개방형 아카이브정보시스템(Open Archive Information System) 참조모델로 운영되며,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갖춘 규격모듈을 지원하여, 신문지면의 디지털 데이터 보존과 관리, 보급의 호환성을 유지한다. 기본적 저장구조로서 FEDORA(Flexible Extensible Digital Object and Repository Architecture), SRU/SRW, 지능형 JPEG2000 도서관, 검색 및 색인용 아파치 루씬(Apache Lucene), 웹 보급용 아파치 코쿤(Apache Cocoon), Javascript, DHTML 및 AJAX등 역동적 웹 기반 프로그램 언어 등을 수용하기 위한 개방적 기술 요소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ㅇ NewspaperArchive.com

미국 헤리티지 마이크로필름사(Heritage Microfilm Inc.)에 의해 운영되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이다. 1759년 이래 북미지역에서 발간되었던 2,800여종의 역사적 신문들에 대한 9억 3,500만여 건의 기사정보를 갖추고, 키워드 및 날짜별 검색을 지원한다. 연 75.88달러 및 월14.95달러의 회원제로 운영되며, 신문자료의 인쇄서비스는 건당 30달러 서비스요금과 10달러의 우송비용을 요구한다. (http://www.newspaperarchive.com/Default.aspx)

〈그림 2〉 미국 NewspaperArchive.com

2.2 캐나다의 국립도서관기록관(CLA)

캐나다의 국립도서관기록관은 1988년부터의 3부이상 M/F로 생산되는 모든 국내 신문에 대해 납본법에 따라 2,300종을 수집하였으며, 1988년 이전 시기 신문으로 M/F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것들은 구입의 방식으로 수집해 오고 있다. 전국지, 지방지, 일간지, 학교신문 등을 포괄하는 국내 지역 일간시사지 89종, 소수민족 신문 165종 등 254종을 구독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일차 납본법에 해당하는 M/F신문을 수집하고, 납본법에 해당하지 않는 M/F신문은 구입의 형식으로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CLA)의 「캐나다 가제트(the Canada Gazette)」 디지털 제작 프로젝트

– 캐나다정부의 공식 대변지로 지칭되는 「캐나다 가제트」는, 1841년 이래 160여 년간의 신문기사를 통해 캐나다의 정부운영 및 입법추진과정 등을 소상히 전달하는 캐나다 민주화의 생생한 연대기적 역사기록물로 평가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1998년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 1841년부터 1997년까지의 「캐나다 가제트」에 대한 모든 호수를 디지털 제작함으로써, 캐나다 근대화의 역사교육 자료로써 학교 교육 및 연구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은 2007년부터 캐나다 유산부(Dept. of Canadian Heritage)의 재정 지원을 받아, 캐나다 가제트의

이사회의 협력으로 2008년 말 완성을 목표로 디지털 제작 및 웹 사이트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http://www.collectionscanada.gc.ca/canada-gazette/index-e.html)

2.3 영국의 영국국립도서관(BL)

영국은 [2003년 법정납본도서관법]에 따라 국내 신문을 수집하고 있다. 콜린데일(Colindale) 소재 신문도서관에는 1513년 이래 영국에서 출판된 52,000여종 이상의 신문자료 원본과 M/F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콜린데일 신문도서관은 적정 수용능력을 넘고 있는 신문납본의 점증하는 규모에 대응하여, 시설과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세인트 팬크러스(St. Pancras) 소재 새로운 영국도서관 건물로 이전을 하였다.

2008년 현재 영국도서관은 약 2,600여종의 영국 신문을 납본·수집하고 있으며, 190여종의 외국신문도 수집하고 있다. 영국신문은 영국 연합왕국과 아일랜드공화국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을 대상으로 하며,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무료신문을 제외한 무료거리 신문도 수집 보존한다. 외국신문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과거 영국연방을 구성하였던 영어권 국가 신문 위주로 구입과 기증, 교환의 방식으로 수집되며, 가능한 M/F형태를 우선하여 소장한다.

ㅇ NEWSPLAN 프로젝트

뉴스플랜은 영국 내 지방신문의 M/F제작과 보존을 추진하는 도서관간의 협력프로그램으로, 영국도서관,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웨일스국립도서관, 아일랜드국립도서관과 영국 내 10개 권역별 공공도서관들이 지역단위 협력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국도서관과 10개 권역 대표도서관, 관련기관 등이 뉴스플랜의 패널을 구성하며, 이들 패널은 도서관정보협력위원회(LINC,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o-operation)의 위원단으로써 전국적 수준에서 신문자료 보존협력의 현안과 과제를 검토하고 협의하는 기구로써 활동한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실시 결과, NEWSPLAN 2000 프로젝트는 모두 1,325종 1,290만 쪽의 신문지면을 M/F 30,476릴로 제작하였고, 전국 공공도서관 및 기록관 등에 309대의 마이크로필름리더기와 156대의 마이크로필름리더 프린터를 무료로 보급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ㅇ 영국도서관(BL) 소장 19C 신문자료에 대한 디지털제작 및 웹 서비스

영국도서관은 2007년 10월 22일 '영국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JISC, 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의 재정지원을 받아, 게일(Gale/Cengage Learning)사에서 디지털 제작한 19세기 영국신문에 대한 웹 서비스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JISC의 영국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중장기 디지털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2,200만 파운드(약 440억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협력사업으로, 현재까지 발간되는 주요 일간지를 제외하고, 19세기 영국 내에서 간행된 영자지를 대상으로 약 1백만 쪽의 지면을 디지털화 하였고, 2008년에는 300만 쪽의 신문지면을 디지털로 제작하였다. 이 사이트는 영국도서관 내 열람실과 영국 내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웹을 통하여 무료로 서비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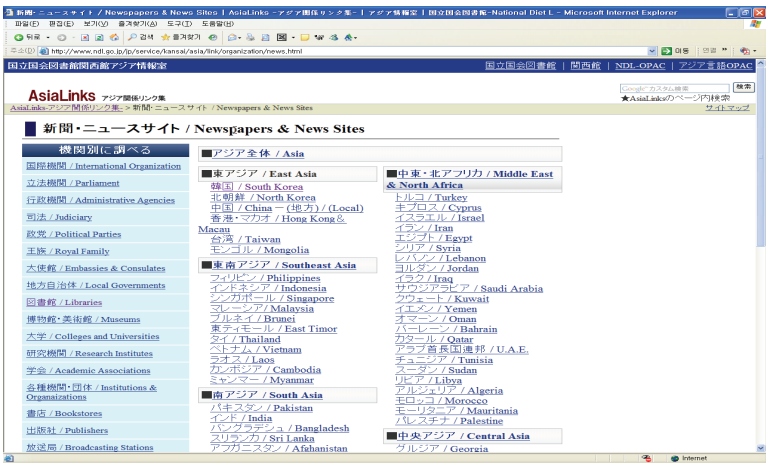
2.4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신문자료를 그 주제와 형태에 따라 동경본관과 관서관에 나누어 보존·이용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문자료는 전국지, 지방지, 기관지, 스포츠지 등의 일본어 신문 약 8,707종과 주요 외국신문 1,756종을 소장하고 있다.(2006년 현재) 그 소장형태는 원본, 축쇄판, 복각판, M/F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된다.

신문자료 중에서도, 관보 및 공보류는 의회관청자료실에서, 귀중서로 지정된 신문은 고전적 자료실에서, 아시아 언어로 된 신문은 관서관 아시아자료실에서, 신문관련 연감 및 참고도서 등은 각 주제자료실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자료실은 인터넷으로 편리한 접근이용이 가능한 각국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아시아링크(Asia Link)서비스를 구축하여, 아시아 약 60개국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대학 연구기관 등의 학술기관 및 단체, 출판사, 뉴스매체, 인터넷 포탈 등의 상세한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아시아링크서비스



아시아정보자료실에서 구독중인 230종 신문 중 한국관련 신문자료는 모두 44종으로 중국신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발간 신문은 35종, 북한발간 신문은 4종, 일본 내 교포신문 4종, 중국 내 교포신문 1종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아시아자료실 구독 한국 신문리스트(2007.10.18현재)

한국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광주일보, 국민일보,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아일보, 동양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문, 문화일보, 박물관신문, 법률신문, 부산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새마을운동, 영남일보, 일간스포츠, 전북일보, 전자신문, 제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해동일보, Korea Economic Dairy(full text), Korea Herald, Korea Herald(full text), Korea Times	35종
북한	로동신문, 민주조선, 통일신보, The Pyongyang Times	4종
일본	통일일보, 민족시보, 조선신보, 활기찬 오사카	4종
중국	연변일보	1종
합계		44종

ㅇ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신문자료에 대한 디지털 제작

국립국회도서관은 2003년부터 구축한 "일본신문통합목록DB"를 통하여, 전국 13,000여 도서관, 대학, 신문사, 기타 기관 등에서 소장 중인 신문자료의 소장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신문통합목록DB는 특히 개별 도서관들에게 해당 신문의 M/F제작이나 보존용 복제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중복사업을 방지하며, 일본 내 도서관 및 관련기관 간의 신문자료 공동이용을 촉진하는 협력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신문사에서는 신문축쇄본을 CD-ROM으로 출간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PDF 지면파일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신문지면을 M/F제작하는 대신 디지털로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소장신문의 기사검색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992년까지 일본 주요 신문의 기사를 분류하여 철해 놓은 신문절발자료(新聞切拔資料)(1948년-1992년)를 통해 약 200만 건의 기사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인터넷 기사속보가 보편화되면서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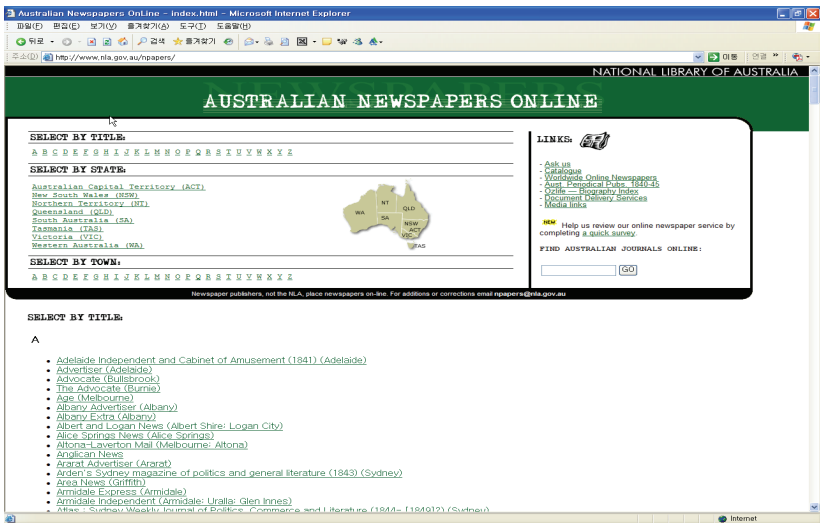
일본 역시 신문기사 검색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장신문에 대한 별도의 기사색인 작성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민간 신문들의 인터넷 기사색인 사이트를 연계함으로써, 개별 신문마다의 기사검색을 위한 사이트링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2.5 호주의 호주국립도서관(NLA)

호주국립도서관의 신문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문자료는 약 8,000여종이며, 이 중 400종의 호주신문과 250종의 외국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호주 국내에서 수집되는 신문자료는 수도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과 각 지방의 주요 지방신문, 군지역의 지역신문, 소수민족과 정치조직 등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특정분야의 전문지 등을 대상으로 400여종을 수집하고 있다.

외국신문은 주로 영어권 국가의 신문을 중심으로, 일부 아시아 국가 신문을 포함하여 약 250여종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의 초기 신문자료 M/F를 집중 수집하여 전문적인 정치사회적 사료로써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4〉 호주국립도서관 신문자료 온라인 링크서비스



호주국립도서관은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전국의 신문을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링크서비스는 지역별 구분과 신문명 색인 등으로 제공된다.

도서관 열람실에는 국내외 신문 50여종과 M/F본 신문 20여종의 최신호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한 이용도 제공된다. 열람실에서 개방하는 이외의 신문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도서관목록의 소장사항을 확인하여 신문 및 마이크로필름자료실에 신청하면 대부분 30분 이내에 제공된다. 그러나 별도의 보존서고(Library's warehouse)에서 관리되는 1997년 이전의 외국신문을 이용하려면 신청 후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호주국립도서관 소장 신문자료는 M/F에 한하여 도서관간 상호대차를 통해 요청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쇄신문의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쇄신문의 기사복사는 복사직송서비스를 통해 상호대차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ㅇ 호주국립도서관의 신문보존프로그램(ANPlan : The Australian Newspaper Plan)

1992년 정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호주 신문에 대한 보존협력프로그램(NPLAN)으로 시작된 ANPlan의 사업목적은 호주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에 대한 장기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존협력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및 지방도

서관(Territory Library)을 협력파트너로 하여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에 의해 수행되는 신문보존계획은, 각 참여도서관으로 하여금 지역 내 발간 신문원본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M/F로 제작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신문에 대한 M/F제작은 원본을 대신하여 이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수 백년을 넘어 신문내용을 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권장된다.

각 지역의 파트너도서관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자료의 수집과 보존 및 이용을 책임진다. 각 도서관은 1부는 제본하여 원본을 보존하고, 1부는 대체매체(M/F)제작에 활용하며, 호주 도서관목록에 소장신문자료의 내역을 입력하여, 전국적인 검색과 이용협력에 제공한다.

ㅇ 호주국립도서관의 신문자료 디지털제작 프로그램

호주국립도서관은 호주 주립도서관 및 지방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저작권에서 벗어난 1800년대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해당 지역에서 발행된 신문을 대상으로 디지털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국립도서관은 2008년 시작한 호주신문 베타서비스(the Australian News-papers Beta Service)를 통하여 1803년 시드니에서 처음 발간된 첫 번째 신문을 포함하여 70,000쪽이 넘는 신문지면을 디지털로 제작하였고, 120만 쪽이 넘는 M/F를 스캔하여 디지털로 제작하였다.

국립도서관은 2007년 12월 빈센트 패어팩스 가족재단(the Vincent Fairfax Family Foundation)으로부터 1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1831년부터 1954년까지 발행된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지의 디지털 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ANPlan에 참여하고 있는 각 파트너도서관마다 해당 지역 내 발간 신문자료 중 저작권 제한을 벗어나는 1803년부터 1954년까지 주요 일간지에 대한 온라인서비스를 위하여, 2011년까지 4,400,000쪽을 디지털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이들 디지털 신문기사의 온라인 검색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검색시스템이 2008년 말 제공될 예정이다.

3. 신문자료의 보존 및 대체매체 제작 기술동향

3.1 신문자료의 원형보존

신문자료 보존기술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신문의 물리적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문의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다. 전자의 보존기술로써는 신문용지에 대한 탈산처리나, 제본, 보존상자 보관, 온습도 및 조도 조절 등의 관리기술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후자의 보존기술로서는 신문이 담고 있는 지적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대체매체를 제작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M/F제작과 디지털 제작 등의 원형보존기술이 활용된다.

먼저 신문자료의 원본보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기술적 대응방안은 신문용지의 산성화대책과 보관 및 관리기술의 문제로 지적된다. 신문용지는 종이의 품질이 낮고 산성화의 진행이 빠르며 쉽게 훼손되는 단점이 있어, 이의 수집과 보존 및 이용에 임무를 두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필요로 하는 자료이다. 신문용지는 보통 일회 열람 후 폐기되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기 때문에 주로 중하품의 용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문자료의 원본을 보존하는 기술에는 가장 기본적인 보관기법으로써 신문원본을 일정기간 묶어서 보관 및 관리하는 제본방식을 들 수 있다. 대개 연속간행물의 두께가 1cm 이하인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제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문의 경우 1개월 혹은 보름단위 제본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편리하다.

신문제본의 방법으로는 실제본과 접착제본이 있다. 신문을 묶은 등을 절단하여 접착제를 바르는 접착제본에 비하여, 등을 절단하지 않고 실로 박아 묶는 실제본이 신문의 원형보존에 유리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실제본은 제본신문을 해체하여 M/F나 디지털제작을 수행하고, 다시 제본할 때 편리하며, 가볍고 잘 펼쳐져서 열람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문자료의 원본보존기술에는 신문용지의 산성화를 중화함으로써, 그 보존내구성을 높이는 탈산 처리법이 널리 활용된다. 대량탈산처리법은 밀폐된 공간에 산성화된 신문자료를 쌓아놓고, 진공상태를 만든 후, 중화제 가스나 액체를 침투시켜, 신문지질을 중화하는 방식의 탈산 처리기술이다.

현재까지 도서관에서 활용된 대량탈산처리 기법에는 디에틸 아연(Diethyl Zinc)가

스를 중화제로 사용하는 DEZ처리법, 메토시 마그네슘 메틸 탄산염을 활성제로 사용하는 Wei T'o처리법, 도서보존협회(BPA : Book Preservation Associates)에서 개발한 기법으로 암모니아와 에틸렌가스를 침투시키는 BPA처리법, 산화마그네슘을 중화제로 사용하는 Bookkeeper 처리법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자료 보존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신문자료의 장기간 보관에 유리한 물리적 환경 조건을 구비하여, 신문자료의 물성을 최장기간 유지하는 관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0조에서는 종이기록물의 보관을 위한 적정온도를 18°~20°C로, 적정습도를 40~55%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보존관리를 위한 최적의 물리적 환경으로써, 보존서고의 조명은 100~300룩스, 미세먼지농도(PM-10)는 50㎍/㎥, 이산화황(SO2)은 0.05ppm이하, 산화질소(NOx)는 0.05ppm이하, 오존(O3)은 0.05ppm이하, 일산화탄소(CO)는 10ppm이하, 포름알데히드(HCHO)는 120㎍/㎥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3.2 신문자료의 M/F제작

신문자료의 디지털 제작을 위한 M/F 필름제작과 관련하여 선진국 도서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작성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 호주국립도서관. 1998. [호주 및 뉴질랜드의 마이크로필름보존지침(Guidelines for Preservation Microfilming in Australia & New Zealand]. <Http://www.nla.gov.au/pub/presmic.html>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1996. [신문자료마이크로필름제작지침(Guidelines for newspaper microfilming)] <Http://www.ifla.org/VII/s39/broch/pr49-2.pdf>
* 연구도서관그룹(RLG). [디지털제작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필름제작에 관한 RLG 지침(RLG Guidelines for Microfilming to Support Digitization)] <http://www.oclc.org/programs/ourwork/past/presmicrofilm/microsuppl.pdf>

M/F는 1928년 개발된 이래 기록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제적 매체로써의 장점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록매체 중 경제성과 공간성, 보존성에서 M/F보다 효율적인 대체매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컴퓨터와 인

터넷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기록물의 원형을 보존하는 가장 안정적인 매체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초기 신문자료와 달리 최근에는 칼라로 표현되는 신문지면이 급증하면서, 칼라 M/F제작이 요구되고, 흑백 M/F와 달리 칼라 M/F는 영하의 보존온도를 필요로 하며, 이용을 위한 기술적 절차 또한 까다로워 불편을 더하고 있다.

3.3 신문자료의 디지털제작

신문자료에 대한 디지털제작 프로젝트는 대개 19세기 이전 특정 신문에 대한 디지털 제작사업이 대부분으로, 신문원본에 대한 디지털 제작보다는 M/F로 제작된 신문자료를 디지털로 매체 전환하는 디지털 제작 프로젝트가 대다수이며, 실제 M/F를 스캔하는 것이 신문원본을 스캔하는 것보다 월등히 비용이 절감되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3.3.1 디지털이미지제작

신문자료의 디지털이미지 제작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신문원본을 직접 화면에 담을 수 있는 A0(841x1189mm) 혹은 A1(594x841mm) 크기의 스캐너를 필요로 하며, 신문원본파일은 최소 300ppi(pixel per inch) 이상의 해상도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신문원본으로부터 생성된 이미지파일 일수록 고해상도의 원본이미지를 재생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문의 이미지 제작을 흑백으로 제작해야 하는가, 칼라로 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일치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흑백형식보다는 칼라형식이 원본자료의 가독성에서 우수하며, OCR작업에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Edwin Klijn, 2008)

최근 스캐닝에 응용되는 이미지 향상기술로는 이미지자동회전기능(deskewing), 불필요한점삭제기능(sespeckling), 회전(rotaion), 여백부분삭제기능(cropping ; 역주 Trimming), 잡티제거(noise removal),이미지와 배경분리조화기능(balancing white backgrounds and image splitting) 등이 이용되며, 일부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신문의 이미지파일 생성은 OCR검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면서, 일부 OCR 처리과정을 거치는 이미지 파일을 단순 이미지파일과 구분하여 제작하는 혼성(hybrid) PDFs포멧이 대안으로 응용되기도 한다. 이는 단일 PDF파일에서 각기 다른

품질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으로써, 단순 텍스트용 이미지와 삽화용 이미지를 동일 파일로 구성하게 된다.

신문의 디지털이미지로는 일부 JPEG나 JPEG2000 파일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TIFF포맷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다만 TIFF파일의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JPEG2000파일에 비교하여 2배, JPEG파일에 10배나 큰 저장 공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으로 제시된 JPEG2000 기술이 압축율과 확대축소율에서도 신문자료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 포맷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JPEG방식은 복조적(bitonal) 방식이나 흑백 이미지의 경우에 높은 압축률에 따라 그림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신문자료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 제작과정에서 압축효율과 용이성을 이유로 PNG포맷과 PDF포멧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결국 신문자료에 대한 디지털이미지 방식의 선정은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적 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 위에서 기술적 포용성을 최우선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3.3.2 광학문자인식(OCR)기술

신문지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지면의 디지털이미지는 기계가독문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지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중에는 어휘사전과 용어리스트, 사전 등을 통합하여 문자인식기능을 향상시킨 후처리기술을 제공하는 것들이 유용하다.

신문지면에 대한 문자인식기능은 신문원본의 다음과 같은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1) 찢어진 신문지면
2) 지면의 얼룩이나 착색
3) 인쇄불량으로 흐린 지면
4) 마주하는 지면의 글자가 서로 찍히는 경우
5) 동일지면에 너무 다양한 글자체나 식자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6) 제본이 너무 바짝 죄어서, 양 지면 사이에 생기는 그늘이 진한 경우

일반적으로 문자인식기능(OCR)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신문지면의 조건에 따라 정확도가 좌우되며, 옛날 신문보다는 최근 신문의 정확도가 높고, 신문보다는 문서나 도서의 문자인식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문자인식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추출문자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여 수정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며, 특히 신문지면의 헤드라인이나 기사의 초반부 내용에서 발생하는 인식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검색을 지원하는 수작업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3.3 신문지면의 구분 및 분할(Zoning and Segmentation)

신문지면의 정확한 내용 추출을 위하여, 문자인식기능을 실시하기 이전에 신문지면의 기사단위 문자블록을 구획하여 지면 구성을 분석하게 되면, 지면에 대한 문자인식의 품질은 현저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면구획과 문자인식, 기사단위 분할로 진행되는 구분 및 분할과정에서 신문지면은 문자블록단위로 분류되고, 기사제목이 추출되어, 신문기사의 정확한 내용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서로 다른 지면에 계속되는 신문기사의 경우 일부 수작업 점검이 필요하듯이, 지면의 구성분석과 기사단위 문자블록의 분할과정은 어느 정도 수작업이 동반되는 반자동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면구성의 예측이 가능한 일관된 편집은 지면분석 및 구획 프로그램의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며, 신문지면의 구분 및 분할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은 특정 신문지면 편집의 일관성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 신문지면의 디지털제작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기사단위 검색과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입력과정의 기사단위 분할과 제목 및 도입절의 수정 등을 통한 부분적인 수작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신문지면의 분석 및 구획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처리방식은 “알토방식(ALTO-format, Analyzed Layout and Text Object)”으로 알려진다. 신문지면의 구획과 문자열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ALTO방식은 표준화된 XML형식으로 지면을 구획하고 내용을 저장하며, 미국 의회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 등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신문디지털제작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3.3.4 메타데이터 추출

일부 발전된 지면구획기술은 기사제목과 게재페이지, 출간일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추출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구획의 결과는 대개 해당신문 지면의 규칙성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대부분의 지면구획프로그램이 신문명, 호수, 페이지, 기사제목 등의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신문지면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반자동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추출 결과가 일부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확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파일에 대한 수작업적 교정이 요망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3.5 검색성능(searchability)

디지털 제작된 신문지면의 검색을 위한 검색엔진은 통상 문헌관리시스템에 탑재되는 검색엔진이 대부분이며, 일부 시스템운영업체의 서버에서 운영되는 검색엔진을 원격 접속으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지면검색의 만족스런 결과를 위해, 데이터 검색 기법이 한층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AND, OR 등의 일반적 조건 검색에 더하여, 1) 이전 검색을 고려한 이용자 질의생성 기능, 2) 유사패턴인식에 의한 개념조합, 3) 기존데이터에 의한 유추와 논리적 문맥관계 검색 등에 의한 데이터조사, 4) 오탈자수정 및 단어 교정, 5) 소리 값 연산에 의한 음성검색, 6) 문법 및 유의어 분석에 의한 언어모듈구성, 7) 자동요약 기능 등의 다양한 검색기법들이 응용되어 검색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3.3.6 현시(Presentation)

화면상 신문지면을 제공하는 현시기법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지면의 축소·확대조절기능(zooming functionality)과 적중용어강조기능(hit-term highlighting), 개별블록을 선택할 수 있는 구획강조기능(segment highlighting), 페이지 연속 열람탐색 등의 다양한 기능의 향상이 응용되고 있으며, 일부 현시시스템의 경우 이용자에 의한 이미지회전기능, 이전검색 이미지를 저장하는 구매바구니(shopping basket)기능, 기사제목과 첫줄을 보여주는 맛보기 기능, 지면의 기사제목을 보여주는 목차기능 등이 응용되기도 한다.(Edwin Klijn, 2008)

최근의 신문지면 열람지원시스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때때로 Flashpaper나 Adobe Acrobat Reader 등의 유명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부도서관에서는 Java나 Javascript/XHTML으로 프로그램된 자체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곳도 있으며, 이러한 클라이언트서버기반의 웹 응용프로그램의 경우는 신문디지털파일의 크기가 클 경우 서버에 적지 않은 부하가 걸려 현시속도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AJAX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요청페이지의 해당파일을 전부 요구하지 않고도, 신속한 탐색과 축소·확대조정 등을 수행함으로써, 속

도와 상호작용에서 향상된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문 탐색시스템의 경우는 막대한 신문파일의 크기나 서버 의존적 시스템운영의 특성상, 강력한 서버환경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지적된다.

4.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과 보존

4.1 신문자료의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의 원칙은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개정 2007.5.30, 규정 제358호)에 의한다. 신문자료를 연속간행물의 범주에서 관리하며, 신문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 등과 관련한 별도의 처리 및 취급지침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2조 2항에 따라 신문은 연속간행물 중에서도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의 범주에 해당된다. 신문자료는 2부를 납본 접수하여 그 중 1부는 제본처리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제본조치 후 등록하고, 나머지 1부는 자료실 실시간자료로 비치하여 이용시키며,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간으로 2년간 활용된 신문자료는 폐기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개정 2007.5.30, 규정 제359호)에 의하면, 신문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장서인은 신문제호 상단 중앙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본된 신문자료의 경우는 표제 다음 둘째 장 뒷면 중앙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문자료의 정리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개정2007.5.30, 규정 제360호)에서는 신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도서관 자료에 대한 분류기호와 목록의 기술규칙에 있어서, 동양서의 경우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과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서양서의 경우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1판과 영미목록규칙(AACR) 제2판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F로 수집 혹은 제작되는 신문자료의 분류 및 편목과 관련해서는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과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 적용된다.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KOLIS)에서 2008년 6월30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을 통해 수집 중인 국내신문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865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전문신문협회에서 수집하여 납본하는 신문이 585종으로 가장 31.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신문보급소에서 납본하는 신문이 73종(3.9%), 한국잡지협회를 통해 납본하는 신문이 345종(18.5%)에 이르며, 신문발행자가 직접 납본하는 종수가 862종(46.2%)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납본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2007년도에 66,998,630원이 지불되었으며, 2008년도 상반기 집행금액도 27,338,890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 납본 수집경로(2008.6.30현재)

전체 납본신문 종수	직접 납본 종수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대행 종수	지방신문보급소 납본대행 종수	한국잡지협회 납본대행 종수
1,865종 (100%)	862종 (46.2%)	585종 (31.4%)	73종 (3.9%)	345종 (18.5%)

납본되는 신문자료의 간기별 종수를 확인해 보면, 통상 신문에 대한 선입견으로 높이 기대되는 일간신문의 비중은 7.9%에 불과하고, 격일간부터 주간의 비중이 34.9%, 격주간부터 월간의 비중이 43.1%나 되어, 이들 주간지와 월간지 비중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신문자료의 간기별 종수(2008.6.30현재)

전체 납본신문 종수	일간	격일간~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년간	격년~	부정기, 불명, 기타
1,865종	148종 (7.9%)	651종 (34.9%)	803종 (43.1%)	128종 (6.9%)	43종 (2.3%)	3종 (0.2%)	89종 (4.8%)

2008년 6월30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신문자료는, 납본에 의해 수집되는 국내신문 1,865종과 해외 구독중인 주요 외국신문 29종을 합하여 모두 1,894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4〉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신문 종수(2008.6.30현재)

신문 구독종수	납본수집 국내신문(M/F)	해외구독 신문(M/F)	전자구독
1,895종	1,865(13)종	29(3)종	1종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중인 신문자료는 모두 5,589종으로, 제본신문이 5,290종, M/F이 116종, 축쇄 및 영인이 183종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집신문의 대부분이 제본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M/F신문 비중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 형태별 소장현황(2008.6.30현재)

구분		신문소장종수	제본신문	M/F	축쇄 및 영인
자료수	종	5,589종	5,290종	116종	183종
	책/롤	76,989책/롤	69,985책	6,237롤	767책

4.2 신문자료의 보존

4.2.1 신문자료의 제본보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신문자료는 모두 2부씩 수집된다. 이중 1부는 열람실에서 열람용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1부는 제본되어 보존용으로 활용된다. 열람실용 신문은 일정 기간 이용자들에게 열람되고 폐기 처분되지만, 보존용 신문은 실제본으로 제작되어 보관서고에서 관리된다.

또한 최근 제본신문의 증가추세에 대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2006년 4,603책, 2007년 3,236책, 2008년 3,483책(계획)의 규모로 제본신문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제본방식이 접착제본 방식에서 실제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실제 제본책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년에 3,500책이 증가된다고 할 때, 보관용 소요 서가는 약 40여개가 추가로 필요하며, 폐가제 신문서가 1개당 평균 2㎡가 점유공간으로 계산하면, 모두 80㎡의 배치공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 3,500~4,000여개의 제본신문 증가를 위해 연80~100㎡의 공간이 준비되어야 한다.

4.2.2 신문자료의 M/F 보존

2008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문자료 M/F는 모두 6,237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M.F롤의 형태로 소장되는 신문자료는 [강원일보(1947.10 ~ 1949.06 ; 1964.01 ~ 1983.12)]를 비롯한 국내일간지 113종과 [the New York Times(2000.01 ~ 2007.05.15)]등 외국신문 3종을 합하여 모두 116종으로 파악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5,589종의 신문자료의 거의 대부분인 7만여 책이 제본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제본신문의 보존문제는 1차적으로 물리적 원형을 보존하는 것에 한정되지만, 결국 신문지질의 한계연한에 대한 기본적 해결전략은 제본신문의 대체매체 제작으로 귀결된다. 제본형태 7만여 책의 신문자료 중에서, 민간에서 소급하여 M/F제작되었거나 M/F제작이 예상되는 주요 일간지 일부를 제외하면, 제본형태 신문자료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전망에 의하여 M/F제작이 적극 요망된다.

4.2.3 신문자료의 디지털제작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까지 수행한 신문자료관련 디지털제작사업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WONMUN/Index.jsp)을 통해 원문보기를 제공하고 있는 1945년 이전 신문자료 31종에 대한 디지털원문서비스가 있다. 모두 361종 1,064,482건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 신문기사 원문데이터베이스는, 신문명, 기사명, 날짜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기사명은 텍스트파일로 원문정보는 이미지로 구축되어 있다.

〈표 6〉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원문구축 신문

신 문 명	종수
중외일보, 光明日報, 全國勞動者新聞, 大東新聞, 大衆日報, 大韓每日申報, 帝國新聞, 文化日報, 朝鮮中央日報, 東光新聞, 東方新聞, 每日申報, 民主日報, 民主衆報, 江原日報, 海洋硏究所報, 現代日報, 皇城新聞, 藝術通信, 貿易新聞, 고려시보, 공립신보, 농민주보, 만선일보, 만세보, 민보, 상업일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우리신문, 중외신보	31종

신문자료의 소급 디지털 제작은 신문원본을 디지털로 제작하는 것보다, M/F로 제작된 신문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M/F제작과 디지털제작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대체매체의 제작방식은 신문원본의 제본과 함께 M/F제작 및 디지털제작을 일괄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장래 신문자료에 대한 보존방안은 민간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납본 수집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디지털도서관의 신문원문 Repository기능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간행 각종의 신문원문에 대한 통합 저장과 검색 및 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데이터보존센터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일부 신문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자적 기사원문DB에 대한 기사검색 및 PDF원문보기 서비스와 한국언론재단의 KINDS와 같은 민간사업의 범위에서 구축되는 신문기사통합검색DB 등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수집과 보존을 통할하는 민관협력구조의 국가신문데이터통합 Repository의 운영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 수집보존이용은 현저하게 인쇄신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해방시기 이전 발간신문 31종의 원문서비스를 위한 디지털제작 이후 국가적 수준의 디지털제작 계획이나 디지털 원문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사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신문자료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소장여부 확인에 그치고 있고, 디지털제작 신문 31종에 대한 기사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신문에 대한 기사소급검색을 위해서는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KINDS 신문기사검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의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검색 및 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납본관련 법령으로 수집 가능한 국내 신문원문 PDF제작 파일을 일괄 수집할 수 있다면, 국민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내신문 기사검색서비스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는 국가신문정보포털을 통한 검색 및 원문서비스를 위한 통합플랫폼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시스템 구성상 해당 신문기사파일을 모두 수집하여 실시간 단일 검색기능을 구현하기 보다는, 이들 개별 신문기사검색시스템의 색인정보를 연속 검색하는 수준에서 검색로봇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원문열람과 제공서비스는 개별사이트로 연계하는 원문서비스플랫폼 방식의 운영이 검토될 수 있다.

국가신문정보포털에는 국내 신문은 물론 해외 주요 신문에 대한 인터넷 링크와 해당신문의 소급기사색인을 위한 관련검색사이트의 정보 제공이 요망된다. 신문링크서비스는 단순한 지역별 색인분류에 의한 링크정보만이 아니라, 간단한 전문해제를 동반하는 주제별 색인링크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신문자료이용을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에 이어, 선진국 신문기사 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Lexis Nexis, Factiva, NewsLink 등 해외 유명DB의 연계도 필요하다. 특히 OpenAccess환경으로 제공되는 국제적 신문DB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유용한 신문사이트를 개발하여 지역 및 주제별로 분류하여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신문자료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역사적 전개를 기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로써 이러한 시대문화의 핵심자원을 전승하기 위한 도서관의 임무와 노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디지털시대 신문자료는 소급 인쇄본에 대한 원형보존과 M/F 및 디지털제작을 추진하고, 새롭게 생산되는 디지털본을 수집보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다매체 보존전략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실의 수집과 보존업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도서관법] 제20조의2(온라인자료의 수집)의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방식으로 생산되는 PDF신문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가능하다면, 민간 신문사에서 자체 제작 서비스하고 있는 PDF신문지면 데이터와, 인터넷 속보형태로 유통되는 신문기사단위 데이터를 수집(harvesting)하고 보존하는 ‘국가신문데이터리포지터리(Repository)’를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구축함으로써, 신문원본 보존과 별도로 디지털 방식의 신문데이터보존센터를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문자료실은 제본신문의 M/F제작을 통한 물리적 보존에 노력하고, 디지털도서관은 인터넷 이후 생산되는 미래형 신문데이터의 수집을 분담하여, 온오프라인 신문매체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국가도서관 임무의 정비가 요망된다.

둘째, 신문자료의 보존연한을 고려하여 소장신문의 M/F제작이나 디지털 제작 등

대체매체로 전환하여 보존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한 중장기적 다매체화 전략과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이 수립되어야 한다.

신문자료는 입수 후 즉시 혹은 5년, 10년 등의 시점을 정하여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선정 신문자료에 대한 M/F제작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제본신문은 산성화 보존대책으로 입수 이후 특정 시점에 원형보존을 위한 탈산처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문자료의 M/F제작 시에는, 필요한 경우 M/F제작과 디지털 제작을 동시에 생성하는 하이브리드 제작방식을 통하여, 제본신문의 안정적인 보존과 M/F본의 장기원형보존, 디지털서비스자원의 확보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3차원적 보존전략의 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 디지털 보존은 민간의 상업채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서비스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신문이나 전문지 등 보존의 가치가 확인되는 주요 신문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공익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창간 이후 신문을 소급하여 PDF지면을 서비스하고 있는 일부 상업지의 경우는 해당 PDF파일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최근 영국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 등에서는 Google이나 MS 등과 협력하여, 소장 신문자료의 디지털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Naver 등에서 주요 일간신문사와 협력하여 창간호 이래의 신문원문에 대한 디지털 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자료 디지털 보존은 공공적 보존가치가 높은 소장신문을 선별하여 M/F와 디지털의 하이브리드 보존을 추진하고, 상업성을 바탕으로 신문아카이빙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인터넷포털업체와 민관협력으로 디지털 보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신문은 사회적 및 역사적 지식자원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사회 매체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신문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이용에 대한 기본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민간기록의 전승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기술적 변화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신문자료의 수집 보존에 대한 기본적 소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수집에 비교하여, 민간부분의 사회적 기록물에 대한 포괄적 수집과 전승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무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간에서 유통되는 신문관련 디지털자원에 대한 제도적인 수집과 보존의 책임을 통해,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역할에 근접해 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국가기록원. 2006.「마이크로필름지침」. 대전 : 국가기록원.

國立國會圖書館. 1991. [新聞の 保存と 利用 : 第2回 資料保存シンポジウム講演集].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임영호. 2005. [신문원론]. 서울 : 한나래.

(주)피엔아이. 2007. "귀중본 마이크로필름 상태점검 및 보존체계 개선"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하비(지음) ; 권기원, 방준필, 이종권(번역). 1999. 「자료보존론(Preservation in Libraries)」. 서울 : 사민서각.

한국기록관리협회. 2007. "자료보존처리센터연구" 용역보고서 ; 자료보존처리센터 필요성 및 표준모델 제시.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언론재단. 2007.「한국신문방송연감 2007」. 서울 : 한국언론재단.

British Library News, Press Release, "Colindale Newspapers Migration Strategy". [cited 2008.6.25] <http://www.bl.uk/news/2007/pressrelease20070301.html>

Gwinn, Nancy & Johanna Wellheiser. 2005. Preparing for the Worst, Planning for the Best : Protecting our Cultural Heritage from Disaster. IFLA,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Keiyu Horikoshi. 2006. Microfilming and Cataloging the Newspapers in the National Diet Library(NDL),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72nd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20-24 August 2006, Seoul, Korea. [cited 2008.0723] <http://www.ifla.org/IV/ifla72/papers/079-Horikoshi-en.pdf>

Klijn, Edwin. 2008. The Current State-of-art in Newspaper Digitization. D-Lib Magazine. Volume 14, Number 1/2 (January/February).

McIlwaine, John(comp. by). 2005. First, do no harm : A Register of Standards, Codes of Practice, Guidelines Recommendations and Similar Works relating to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in Libraries and Archives. IFLA,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http://www.ifla.org/VII/s19/pubs/first-do-no-harm.pdf>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Research & Development Dept. 2008. Alternative File Formats for Storing Master Images of Digitization Projects. [cited 2008.8.14]
<http://www.kb.nl/hrd/digitalisering/content-en.html>

Robert Gillesse, Judith Rog, Astrid Verheusen. 2008. Alternative File Formats for Storing Master Images of Digitisation Projects.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Research & Development Department.

UNESCO. 2002. Guidelines for Digitization Projects for collections and holdings in the public domain, particularly those held by libraries and archives. IFLA,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http://www.ifla.org/VII/s19/pubs/digit-guide.pdf>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방안[1)]

The Study on Solution Plan of the Gap Solution between People and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 Use

이 준 우(Lee, Jun-Woo)[2)]

목 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2. 이론적 배경
   2.1 청각장애인 일반 현황
   2.2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현황
   2.3 국내 관련 법·정책 현황
   2.4 국외 관련 법·정책 현황
3. 조사결과 및 분석
   3.1 청각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기관 현황
   3.2 청각장애인 지식정보 이용 욕구조사 결과
   3.3 지식정보 관련 청각장애인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
4.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활용능력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 그 중에서도 청각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청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욕구에 대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지식정보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이 논문은 2008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지원한『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임.

2)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knudeaf@kangnam.ac.kr)

연구결과, 청각장애인들은 지식정보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접근상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문제, 대체자료의 부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담당자를 비롯한 비장애인의 이해 부족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더해서 청각장애인 전용 공간의 확보,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공공도서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화통역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지식정보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실천 과제를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Abstract 〉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ability of using information is becoming an important factor to everyone to live on but people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seem to be alienated relatively. This study is reviewing the present using condi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and their needs on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 use, all throughout interview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e difficult of access in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s use, communication problem, destitution of alternative data and understanding on people with disabilities of non-disability people. Combined with this, they need a private space for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a multiplicity of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More to the immediate point, substantial measure, for example, sign language interpretor should be taken to solve the communication problem in public librari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make proposal of tasks on public libraries.

키워드 : 청각장애인, 공공도서관, 수화통역사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public library, sign language interpreter

1. 서 론

1.1 문제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릴 만큼 고도의 정보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영상을 자유롭게 접하며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장애인은 '의사소통장애인'으로서 창조적 지식정보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각장애인[3], 즉 농인을 꼽을 수 있다. 청각장애는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의 이해와 개념파악이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정보화라는 측면에서 청각장애는 상대적으로 여느 장애보다도 '중증장애'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접근 뿐만 아니라 학습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언어 이해의 한계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과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수립 등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4조 2천 억 원을 투입,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80%에 이르도록 추진한다고 계획하였으나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사회적 장치인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률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 의하면 여전히 전체 장애인의 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4]

더욱이 현재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기기는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 위주로 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나 영상 등의 시각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휠체어 리프트, 시각장애인실 운영, 장애인석 배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나 녹음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다양한 문화 강좌나 작가와의 만남 등 아무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3)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농아인' 또는 '농인'으로도 사용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농아인' 혹은 '농인'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미국을 비롯한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Deaf People' 즉, '농인'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정 용어가 청각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음을 밝힌다.

4)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종합발전계획(안)』.

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부가서비스 위주로 지원서비스가 개발되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인식개선 및 정보화 교육 사업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청각장애인 정보화와 관련한 현 정책을 검토하고,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충 방안에 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의 각 부문 중에서 사회 내 지식과 정보의 공공적인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시설과 자료,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누구나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영한 개선사항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고 정리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3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 및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청각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지원 법률과 정책에 관련된 문헌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협회, 단체, 복지관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런 이후에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욕구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술하기 위해 질적사례조사 설계를 통해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식정보 관련 청각장애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을 위해 시계(視界)의 설정을 2013년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 자료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2007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2006년 이후 선행 연구된 청각장애인 관련 기초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1.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본 연구에서 진행된 '청각장애인 대상 질적사례조사'와 '지식정보 관련 청각장애인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이용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이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식정보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공도서관 개선방안과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각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기관의 각종 서비스, 직원 현황, 지식정보 관련 예산 등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으므로 심도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2. 이론적 배경

2.1 청각장애인 일반 현황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각·언어장애 등록 장애인 수가 218,206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5] 이는 1997년의 43,875명과 비교할 때,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청각장애인 등록 수가 높게 나타나 있다. 청각장애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장애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화에 따른 중도장애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으로 40대 이후의 연령대부터 장애등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 범주 안에서도 장애유형별,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인공와우 이식수술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후에는 매

5) 보건복지가족부. 2007.『전국 등록장애인 현황』.

핑(mapping)[6]과 청능훈련, 언어훈련 등의 재활과정을 통해 구화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구화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 구화와 수화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향후 4~5년 이내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는 청각장애인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미루어 볼 때, 다양한 정보습득경로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전체 장애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7] 학교에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8] 이는 도서벽지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부모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 및 홍보의 부족, 농학교에 학령기를 훨씬 넘겨 입학하는 사례의 증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불취학 청각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및 정보를 습득하는 데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독서, 정보교류 등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이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애아동 및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만 실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의 의사소통문제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정보화 관련 기관 이용 경험을 비교해보면, 시각장애인의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비율이 약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정보화 관련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경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이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은 그들이 왜 도서관에 가야하는지 조차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편하고 적합한 소리를 찾아주는 과정으로,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의미함.

7) 변용찬 외. 2006.『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중퇴하거나 다니지 않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청각장애인 비율이 73.3%,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가 12.0%의 순으로 나타남.

2.2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현황

2007년에 수행된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 수준은 평균 34.3점으로 일반국민의 약 66% 수준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9] 일반국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농어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54.6%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장노년층(62.6%), 저소득층(75.5%), 장애인(76.0%) 등의 순으로 종합 정보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이용률은 약 1%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 도서관 내에 장애인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장비 부족,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의식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2008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제1회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운영사례에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우수기관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나 장애인이용률은 0.45%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10]

2.3 국내 관련 법·정책 현황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법으로는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독서문화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① 도서관법

2006년 제정된 도서관법 제43조에서는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제4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11]를

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2007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10)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제1회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운영사례집』.

11)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현재 10명의 직원(4급 소장 1인, 5급 3인, 6급 4인, 7급 1인, 9급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4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특히 2007년의 경우 대체자료 제작비로 3억 6백만 원 가량이 투입되었으며 시각장애인용 20종 165세트, 청각장애인용 20종 50세트를 제작하였음. 2009년 예산은 6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2억 원(30.8%)이 대체자료 제작비로 사용될 예정임.

2007년 5월 22일에 설립하였으며 법에 명시된 지원센터의 업무로는 첫째,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둘째,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셋째,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넷째,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다섯째,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여섯째,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되어 있다.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지식정보에의 접근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대체자료의 연구 및 개발과 지침 마련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②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성인·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둘째,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 보급과 독서진흥, 셋째,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로 되어 있다.

③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의2 제2항에서 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제2항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를 포함한 독서 자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제2조 제3항에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독서장애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 독서장애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독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서는 제20조에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제21조에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과 방송사업자 등의 자막, 수화,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 프로그램, 전화를 비롯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⑥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를 주요 골자 중 하나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등의 TV 시청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점자도서·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를 현행 117종에서 2012년 1,059종으로 확대 보급하고,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 및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4 국외 관련 법·정책 현황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현황을 미국, 일본, 중국, 유럽(EU)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미국은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화와 관련하여 매우 전향적이고 선진적인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 장애인법(ADA, 1990)과 1996년 개정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등은 청각장애인의 정보화 보장에 강력한 토대가 되는 법률들로 주요 핵심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공공도서관과 대학 등을 비롯한 주요 공공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갈로뎃대학교(Gallaudet University)와 로체스터공과대학교(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국립 공업기술대학(National Technical Institute for the Deaf-NTID)의 경우, 교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수화이다. 특히 갈로뎃대학교는 '수화', '농인사회와 농인문화', '청각학' 등 청각장애인과 관련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에는 화재와 기타 위급상황고지를 위한 청각장애인용 '시각적 알람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직원은 미국 수화(American Sign Language-ASL)를 교육받도록 권장되고 있다. 미국의 농학교와 연계된 공공도서관에는 도서관에서 청각장애아동에게 동화책을 수화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청각장애 관련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

② 일본

일본의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장벽을 주요 사회적 장벽으로 여러 법률 등을 통해 규정하고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화 보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주요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문자방송을 도서관 내에서 실시함으로써 도서 및 다양한 도서관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있으며,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실내신호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다. 특히 쓰꾸바단기기술대학은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완벽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보조기기 등을 완비해 놓고 있는데 이 대학의 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사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종 청각장애인용 통신장치 및 보조장치 등을 구비해 놓음으로써 청각장애인을 위한 고등 정보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중국

중국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보장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나 북경연합대학교 특수교육학원, 텐진공과대학교 농학원, 장춘대학교 특수교육학원 등과 같은 청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식정보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북경연합대학교 특수교육학원에서는 수화를 1차 언어로 사용해서 제작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영상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특별히 미국 NTID의 'PEN-프로젝트'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양한 청각장애인용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각장애인용 콘텐츠들이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자료들이 콘텐츠로 연구 개발되어 축적이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④ 유럽(EU)

유럽에서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화와 관련된 접근들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공도서관에서의 통신중계서비스(TRS) 실시 유무로 2008년 현재 유럽의 공공도서관에서 통신중계서비스(TRS)를 연계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으로 총 8개 나라에 이르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모든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수화와 구화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로 말하면 '국어와 영어 교과시간'이 되는 '덴마크어와 영어 교과시간'에서 사용되는 모든 책들은 문자나 음성언어로만 '교수-학습'이 되지 않고 반드시 수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화로 진행되는 독서지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각장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책과 친숙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적 소수집단 구성원들을 위한 안내데스크에서의 터치스크린 배치, 시각적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주요 공공도서관에 '실시간 자막처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청각장애인이 찾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전자 게시판에 구체적인 안내가 고지된다.

영국의 대표적 공공도서관 중의 하나인 휫쉬프 도서관(Wheatsheaf Library)의 로치데일 도서관 서비스(Rochdale Library Service)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청각장애 관련 책, 잡지, 정보를 자막이나 수화가 있는 비디오나 디브이디롬(DVD)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휫쉬프 도서관(Wheatsheaf Library)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생후 만 4세까지의 청각장애아동과 부모 및 양육자들을 위한 수화교육과, 수화와 함께하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3. 연구결과 분석

3.1 청각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기관 현황

청각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으로는 직원 수(총인원 및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인원), 예산(총 예산, 인건비, 대체자료 구입 및 제작비, 기자재 구입비), 지난 5년간 대체자료(수화영상자료, 읽기 쉬운 책(easy-to-read books) 등) 제작 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① 청각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가족부[12]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종합복지관 111곳, 종별복지관 31곳이 있다. 그러나 이 중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은 청음회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복지관으로 총 5기관이 전부이다. 기관의 수는 많지 않으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

② 지식정보서비스 제작 및 보급기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농영화, 수화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작하고 이를 보급하는 기관들로는 한국농아인협회, 농인독립영상제작단(deaf media), 장애인선교방송(HMBC), 남서울은혜교회 등이 있다.

③ 청각장애인 정보화 사업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된 청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경기도농아인협회 등에서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이 컴퓨터 활용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용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 보건복지가족부. 2007.『2007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④ 교육기관

유치·초등·중등·고등부 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전국 주요 대학별로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비교적 활발히 운영하는 대학 7곳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각 대학별로 운영되는 장애학생 지원 기구에서는 학습지원에 더하여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지원, 진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농아인협회,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세 기관뿐이며, 그 이외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 온라인을 통한 취업지원, 수화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읽기 쉬운 책(easy-to-read books)을 제작하는 곳은 국내에 전무한 상태이며, 지식정보서비스 직원 수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곳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청음회관 등 극소수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태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청각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현황을 밝혀서 현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식정보 관련 서비스의 특성을 확인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이를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향후 청각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야 할 특성을 찾아 앞으로 이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마련하는데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3.2 청각장애인 지식정보 이용 욕구조사 결과

3.2.1 조사 설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질적사례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도서관 정보이용 욕구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사례조사는 연구자들이 가설의 검증보다는 통찰, 발견, 해석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맥락 안에서의 해석”이라고 불리며, 하나의 현상에 집중함으로써 그 현상을 특징짓게 하는 주요 인자들의 상호작용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례조사는 수화와 구화를 모두 활용한 심층면접의 방법을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이용 욕구를 다면적·개방적으로 수집

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질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면접지침 접근법을 이용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3.2.2 조사방법 및 과정

①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질적사례조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7세 이상의 청각장애인들 중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본추출 방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모집하였다.

② 조사 도구

본 질적사례조사에서 채택된 면접지침은 공공도서관 이용 및 지식정보 이용 욕구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면접지침은 두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부분은 성별, 연령, 학력, 장애등급, 직업유무 등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이며, 두 번째 부분은 도서관 이용 및 지식정보 이용 욕구에 관한 질문으로써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질문, 도서관 정보이용 방법에 관한 질문,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에 관한 질문, 공공도서관 이용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적사례조사의 경우 대상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응답의 개방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욕구가 표현될 것을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를 주 대화기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기 당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③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7일간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선정 준거에 맞는 57명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2명의 조사자들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장소는 면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근 교회, 음식점, 복지관, 학교, 대상자의 집 등에서 이루어졌다. 사전에 핸드폰 문자나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해 조사자의 신분과 조사 목적을 밝히고, 면접 참여를 부탁하였으며, 면접 내용을 일체 비밀로 할 뿐 아니라 조사 목적 이외에는 내용을 절대 밝히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렸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보여

주고 일일이 허락을 받아 면접 내용을 최종 정리하였다.

3.2.3 청각장애인 질적사례조사 결과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된 연구대상자는 청각장애인 총 57명으로 남자가 32명, 여자는 25명이었으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15명, 무직 2명, 대학생 22명,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3명, 초등학생이 4명이었다.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수화가 17명, 수화와 구화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25명, 구화는 15명이었는데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은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은 전원이 구화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도서관 정보 이용 경험 유무

청각장애인 57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지식정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하거나, 구화 혹은 구화와 수화를 모두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화만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말 즉 한글에 익숙하지 않는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도서관이 접근 자체가 어려운, 낯선 곳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나 최근 1년 내에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전체 57명 중 19명(사례 1, 2, 3, 4, 5, 6, 7, 9, 13, 14, 17, 18, 20, 22, 23, 24, 25, 29, 30)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거나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과 같이 학생일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었으나 사례 33과 35, 48, 49를 제외하고는 공공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년층과 노년층의 정보이용 경험은 크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스스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가령 초등학생 사례 55, 57은 어머니와 함께 왔었으며 사례 54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가 도서관에 자주 가기 때문에 함께 간다고 하였고, 중학생 사례 52는 대학생인 건청인 언니가 자주 도서관을 데리고 갔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사례 50은 아버지가 도서관으로 인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는

주로 친구들과 시험공부나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48과 49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도서관을 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독서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사례 48, 49 모두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 선생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청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도서관 정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 및 훈련이 있을 때,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③ 도서관 이용 시 불편했던 점

조사대상 청각장애인 57명 중 한 번도 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9명에 대해서 '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었거나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도서관 이용 시 '불편유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매우 불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 이용 시 불편했던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다시 물어본 결과, 도서관의 정보 이용 안내 부족과 자료를 찾는 과정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화통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문자 내지 자막 지원도 수화통역 못지않게 많이 응답되었다.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 대부분은 도서관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도서관 이용방법이나 정보검색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청각장애인 전용 정보검색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조사된 청각장애인 대부분에게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도서관 이용이 매우 불편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④ 도서관에서 얻고 싶은 정보

청각장애인이 도서관을 통해 얻고 싶은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층은 주로 영상으로 된 시각적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정보이용 욕구가 전혀 나타

나지 않았는데 이는 도서관 이용 자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대부분의 장년층과 노년층 대상자들은 책이나 신문을 읽을 수 없거나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각장애인의 문맹률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장년층과 노년층 대상자들 중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대부분은 기존의 도서관 체계로서는 전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식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정보이용의 최대 사각지대에 있는 청각장애인 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개입이 있지 않는 한, 도서관 정보이용은 '그림의 떡'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선호하는 정보의 종류

조사에 응답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소에 선호하는 정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 시기에는 대체로 만화책이나 게임 관련 정보를,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기에는 주로 만화책이나 인터넷 정보를, 대학생의 경우 시각적 자극이 있는 동영상 자료나 인터넷 정보를,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전원이 TV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과 4, 6, 8, 10, 11, 12, 13의 경우에는 책도 읽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책을 어느 정도 읽는가라고 다시 물어본 결과, 1년에 1~2권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사례 1, 6, 13이었으며 사례 4는 2달에 1권, 사례 8과 10, 12는 1달에 1~2권이라고 응답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사례 2, 4, 10, 12, 13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본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례 3의 경우는 아예 특정 채널을 고정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청한다고 하였다. 사례 6, 13의 경우에는 TV 뉴스에서 수화통역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어서 시청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사례 4, 13의 경우에는 케이블 복지TV에서 24시간 수화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자주 복지TV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3.2.4 주요 결과에 대한 분석

이상과 같은 주요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연령대에서 저연령대로 갈수록 보호자와 함께 혹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학교와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결국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연계하여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아이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 내 사서 배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기의 경우 IT, 법률, 입시, 취업, 어학, 여행, 경제 등에 관한 정보를 주로 필요로 한다. 즉, 도서관 이용률은 낮지만 잠재적 이용욕구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주요 과제는 공공도서관 내 수화통역사 배치, 찾기 쉬운 도서 배치와 정보검색시스템, 자막과 모니터를 활용한 도서관 이용 안내, 청각장애인 전용 공간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장년·노년층에 대한 도서관 이용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년·노년층의 경우 전원이 TV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복지TV 채널이나 4대 방송사를 통해서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 분야 등의 영상을 수화로 번안하거나, 인근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이동도서관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결국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측면에서 청각장애인 응답자 전원이 도서관 이용 시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의 쉬운 접근성, 정보 이용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지식정보 관련 청각장애인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3.3.1 조사 설계

지식정보 관련 청각장애인 전문가 면담조사는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해야 할 일들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및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들로부터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3.3.2 조사방법 및 과정

①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의 전문가 면담조사 대상자는 사회복지 및 수화통역 분야에서 근무하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전문 사회복지 기관(청음회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 서울농아인협회)과 경기도농아인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 이상의 실무자 명단에서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10명

을 선정한 후, 조사에 응하기로 허락한 7명을 최종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② 조사 방법

본 전문가 면담조사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전문가 본인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제안하게 하였다.

③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8년 12월 6일과 12월 15일로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장소는 12월 6일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12월 15일은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3.3.3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① 인적 사항

조사대상 전문가의 인적 사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직책과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 면담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

대상자	이름	성별	장애유형	직책	실무 경력
1	K○○	남	청각장애 2급	과장	8년
2	C○○	남	청각장애 2급	과장	8년
3	K○○	여	건청인	국장	15년
4	K○○	남	청각장애 3급	과장	5년
5	C○○	남	청각장애 2급	팀장	3년
6	L○○	여	건청인	팀장	3년
7	K○○	여	건청인	팀장	2년

② 주요 결과 분석

전문가 면담조사의 주요 결과를 주제별로 분석한 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문가 면담조사에 대한 주제별 분석 요약

구분	주제묶음		분석 요약
관련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청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청각장애인조차도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은 수화, 구화, 수화+구화 등 사용하는 언어유형에 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큼. • 민간에서 극히 드물게 대체자료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연구의 필요성		• 청각장애인의 정보화와 관련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보소외계층으로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함. •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영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개선방향	공공 도서관 측면	접근성	• 지역사회 차원의 안내와 홍보 • 청각장애인 대상 공공도서관 이용 안내 시스템 개발 • 훈련된 장애인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 제공
		의사소통	•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화상전화기 설치 • 청각장애인 전문 사서 배치 •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지원
		대체자료	• 풍성하고 다양한 전용 독서 자료 개발 및 보급
		전용공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교육문화	•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구분	주제묶음	분석 요약
개선방향	제도적 측면	• 다양한 관련기관 간의 청각장애 통합서비스네트워크 구축 및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유지·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한 웹 접근성 제고 • 시각·청각 일체형 자막 수신기 보급 • 서비스 제공자의 재교육 실시 • 청각장애인도서관 설치를 위한 사회적인 노력

4.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음 <표 3>과 같이 단기·중기·장기 추진기간에 따라 미시·중시·거시적 차원의 각 단계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3〉 추진기간에 따른 추진단계별 주요 정책 계획

추진기간	추진단계	추진단위	주요 방안
단기 (2009~2010)	미시	단위 도서관	• 안내에서부터 정보 활용까지 초기밀착 안내 서비스 •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독서 흥미유발 프로그램 개발 • 학령기 청각장애아동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수화교육 및 수화 독서지도 프로그램 준비 및 시행 • 화상 전화기 설치
		지원센터	• 청각장애인 전용 신문 및 뉴스 자료의 개발과 확보 • 청각장애인 전용 독서 자료 개발 준비 및 시행 • 자료 및 정보 접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시	단위 도서관	• 청각장애인 대상 공공도서관 안내 시스템 개발 • 통신중계서비스와의 연계 체계 구축
		지원센터	•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망 구축 • 농학교와 연계된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청각장애인 전용 공간 확보
	거시	법·제도적	• 국가적 차원의 규정 마련 준비
		공동차원	• 청각장애인 전문 사서 및 수화통역사 배치

추진기간	추진단계	추진단위	주요 방안
중기 (2011~2012)	미시	단위 도서관	• 청각장애인 전용 독서 자료 확보
		지원센터	• 다양한 음성·영상자료의 확보 및 변환을 위한 지원 확대
		공동차원	• 청각장애인 전용 장서의 개발 •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한 웹 페이지의 개발
	중시	공동차원	• 청각장애인 지원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확보 • 청각장애인 친화적 도서관 환경 정비 사업 시행
	거시	법·제도적	• 청각장애인 지원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 지원 • 국가적 차원의 규정 마련
장기 (2013년 이후)	미시	단위 도서관	•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 수행
		지원센터	• 청각장애인 문화와 청각장애인 사회를 고려한 문화 인프라 콘텐츠 개발 • 청각장애인 전담 서비스 제공자의 재교육 강화
	중시	단위 도서관	•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 디지털 자료실 개설
	거시	법·제도적	• 국가적 차원의 규정 재보수(再補修)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각장애인들은 한국사회에서 정보의 접근 및 정보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학습능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며 도서관을 이용하더라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거나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같이 학생일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직장에 근무하는 청년층과 장년층 및 노년층에 비해 훨씬 빈번하였으나 이들이 관

심을 갖고 있는 지식정보의 분야와 주제는 건청인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지고 제공되고 있는 지식정보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걸음마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지식정보격차에 대한 문헌연구와 해외현황 조사 그리고 실제적인 지식정보 욕구를 청각장애인 질적사례조사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식정보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공도서관 개선방안을 국내 최초로 수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7.『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_____. 2008.『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종합발전계획(안)』.

_____. 2008.『제1회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운영사례집』.

_____. 2008.『대체자료개발 지원방안 연구 중간보고』.

경기도농아인협회. 2006.『경기도 청각·언어장애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특수교육연차보고서 - 2008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김태일·도수관. 200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 분석”.『사회복지정책』제21집 : 341-364.

남영준. 2007.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 49-68.

변용찬 외. 2006.『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외. 2008.『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7.『전국 등록장애인 현황』.

유승우. 2007. “해외 주요 국가의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정책과 시사점”.『지역정보화·KALI』제46권 : 74-79.

윤희윤. 2007.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정책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4호 : 215-240.

이영숙. 2007. “장애인정보격차에 관한 소고”.『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 69-91.

이자성. 2005. “일본의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정보 베리어-프리정책과 전기통신접근성 가이드라인”.『지역정보화·KALI』제35권 : 74-80.

이준우. 2004.『농인과 수화』. 서울 : 인간과복지.

정연경·김성진. 2008.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 및 요구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2권 제3호 : 301-323.

조용완.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4호 : 167-18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2007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_____. 2008.『2007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경기도농아인협회 <http://www.kgdeaf.com>

경기도통신중계서비스센터 <http://trs.or.kr>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http://www.eduable.net>

남서울은혜교회 <http://cdeaf.com>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http://www.deafmedia.net>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http://www.withwith.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http://www.e-welfare.go.kr>

삼성소리샘복지관 <http://www.sorisaem.net>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http://www.s-deafcenter.org>

인터넷 한국농아방송(i-DBN) <http://www.idbn.tv>

장애인선교방송(HMBC) <http://hmbc.kr>

제주도농아복지관 <http://www.deafwel.or.kr>
청음회관 <http://www.chungeum.or.kr>
한국농아인협회 <http://www.deafkorea.com>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http://www.kadi.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relaycall.or.kr>
Bury Central Library <http://www.bury.gov.uk>
Gateshead Borough Council <www.gateshead.gov.uk>
Gallaudet Univercity <http://www.gallaudet.edu>
IFR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http://www.ifla.org/IV/ifla66/papers/010-143e.htm>
National Technical Institute for the Deaf <http://www.ntid.rit.edu>
Rochester Institute of Techonology <http://www.rit.edu>
Wheatsheaf Library <http://www.rochdale.gov.uk>

하이브리드 도서관 활동에 관한 고찰 - 비즈니스 활동지원과 정부기관의 행정활동 지원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ハイブリッド図書館内外の環境変化に直面して[1)]

오마츠 켄이치(尾松謙一) 著[2)] · 정주리(鄭朱利) 譯[3)]

목 차

1. 들어가며
2. 나라현립(奈良県立) 정보도서관이 직면한 내외의 환경변화
   2.1 자관 내부의 변화
   2.2 외부 환경의 변화
3. 비즈니스, 행정활동 지원
   3.1 서비스 지원체제
   3.2 비즈니스 지원
   3.3 행정활동 지원
4.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초 록〉

나라현립(奈良県立) 도서정보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 서비스와 정부기관의 행정활동 지원서비스의 사례로써, SWOT(강점, 약점, 기회, 위기) 분석 방법을 통해 off-line은 물론 on-line 상의 자원과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고찰 하였다.

키워드 : 하이브리드, Hybrid

---

1) 이 자료는 2008 일본전국도서관대회 효고(兵庫)대회 분과회 사례발표 자료임
2) 나라현립도서정보관 주사(奈良県立図書情報館 主査)
3)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 사서(jrjung@jpf.or.kr)

1. 들어가며

나라(奈良)현립 도서정보관은 2005년 11월에 개관하여 2008년 11월을 기해 개관 3주년을 맞이했다. 필자는 도서관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행정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우선 SWOT분석[4](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방법을 이용하여 당관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분과회 사무국으로부터 의뢰 받았던 <하이브리드 도서관>[5]이라는 관점에서 '강점'이나 '기회'를 활용한 서비스 중,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행정활동지원 분야의 사례를 보고하려 한다.

2. 나라현립(奈良県立) 정보도서관이 직면한 내외의 환경 변화

2.1 자관 내부의 변화

당관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은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무척이나 훌륭한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면에서 전자자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는 자료와 설비 뿐 만이 아닌 사서자격을 갖고 있는 정규직원(이하, 사서직원)이 모든 층의 카운터에서 자료의 검색안내와 레퍼런스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약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직원 수의 부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많은 사서 직원들의 정년퇴직 시기를 맞고 있어 도서관 업무의 노하우와 기술이 제대로 계승이 안 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결원 보충이 과제로 남아있다.

---

4) SWOT분석 :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의 앞머리 글자를 딴 경제용어로 기업 환경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네 가지 요인별로 분석하여 판매촉진 전략을 세우는데 사용됨.

5) 하이브리드 도서관(Hybrid Library) : 전통적인 종이매체와 디지털 정보자원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전통적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을 통합해 가는 과정의 도서관으로 정보환경이 발전해 가면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도서관 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2.2 외부 환경의 변화

이번에는 당관이 처해있는 외적 환경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SWOT 분석 중 '기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올해 4월(2008년 4월) 일본교육위원회 소속에서 지사부국(知事部局)의 지역진흥부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평생학습을 나라현 전체에서 재편성함에 따라 당관이 나라현의 문화는 물론 다양한 정보의 발신 제공의 중핵시설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행하는『앞으로의 도서관상(これからの図書館象)』[6]에도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정비나 과제 해결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어, 앞에서 얘기한 강점을 활용해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SWOT분석의 '위협'의 요소를 살펴보겠다. 우선 나라현의 재정난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은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의 충실보다는 경비감소를 목적으로 한 위탁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이 전국의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약점'이나 '위협'의 요소를 안고 가면서 어떻게 '강점'과 '기회'를 살려 이용자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할 것인지를 조직체제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사례(비즈니스 행정활동 지원)의 순으로 소개하겠다.

3. 비즈니스, 행정활동 지원

3.1 서비스 지원체제

당관은 정보사회의 방향 지시자로써 이용자의 정보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기능을 폭넓게 이용자 대상 레퍼런스 서비스로써 제공하고, 이를 위해

6)『앞으로의 도서관상(これからの図書館象)』: 일본 문무과학성 평생학습정책국의 위탁으로 도서관 미래구상 연구회가 기획, 편집하는 사례집으로, 일본 공공도서관이 미래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모델이 될만한 도서관을 선정하여 소개함.

<자료정보 서비스그룹>이라는 레퍼런스 중심의 서비스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그룹은 현재 세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1)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지원, 2) 비즈니스 행정활동 지원, 3) 지역연구 지원이 그것이다. 그 밖에 총무와 정보자원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 그룹>,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조직된 기획, 교류 및 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홍보전략 그룹>이 있다.

이러한 조직체제 하에서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는 관점에서 앞서 기술한 '강점'과 '기회'를 살린 서비스의 실제 사례를 비즈니스 지원, 행정활동 지원의 순서대로 소개하려 한다.

3.2 비즈니스 지원

당관에서는 관내의 자료, 사람, 공간 모두가 비즈니스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내에 특별히 비즈니스 코너를 만들어 두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3개의 활동을 큰 축으로 하여 비즈니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 홈페이지 내에 비즈니스 행정지원 코너인 <B-side>를 2006년 1월부터 신설했으며, 이용자들이 비즈니스 업무에 보다 쉽게 당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료 정보 리스트와 관내의 자료와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상의 정보제공 활동인 셈이다.

두 번째는 '강점'의 첫 번째 요소인 '도서관의 새로운 시설'을 활용하여 각계 기관과 공동주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나라현의 지적소유권센터와 연계한 특허정보 강연회를 당관의 세미나 룸에서 개최했다는 것이다.(2007년에 3회) 이 세미나 실에는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 좌석이 31석이 있어 실제 특허청의 특허전자 도서관에 접속해 강습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강 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당관 견학을 실시하여, 시설과 기능 등의 설명을 통해 미래의 이용고객이 되도록 프로모션 활동을 했다.

또한 '강점'의 세 번째 요소인 '사서직원'이 사업 관련 자료의 전시 행사를 개최하고, 수강자에게 해당 자료의 리스트를 배부했다. 이 리스트는 앞서 얘기한 홈페이지 <B-side>에 올려 리스트와 목록 DB(OPAC)를 링크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자 자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나라현의 간호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합동인증 간호관리자 세컨드레벨 교육>의 일환으로 <도서정보관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나라현 내의 간호사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것으로 당관의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자료검색방법, 관내에서 이용 가능한 DB를 설명했고, 특히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최대의 과학기술 문헌 DB인 'JST 문헌검색서비스 <Jdream2>'의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실제로 검색실습도 해보도록 했다.

이 사례는 '기회'의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사회적 요청이나 의뢰'에 대해 '강점'의 두 번째 요소인 '전자 자료의 적극적 도입'과 세 번째 요소인 '사서직원'을 활용해 이루어낸 일이다.

3.3 행정활동 지원

행정활동지원 업무에서도 하이브리드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다.

우선 행정활동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나라현의 직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현청 내에 있는 의회도서관에 발송하는 서비스를 2007년 1월부터 개시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발송서비스의 홍보를 목적으로 현청 내의 웹 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행정경영과 직원을 대상으로 메일 매거진에 코너를 만들어,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관의 프로모션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회'의 첫번째 요소인 '지사부국에의 소관 변동' 과 '강점'의 세 번째 요소인 '사서직원'을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라현청의 담당 부서와 공동 주최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나라현의 맛있는 먹거리와 특산품 사진전>을 농림부의 담당 부서와 공동주최로, 당관의 입구 홀에서 개최했다.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활동 외에도 사업과 관련 있는 자료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기회'의 첫 번째 요소인 '지사부국의 소관 변동'과 '강점'의 세 번째 요소인 '사서직원'을 활용한 사례로써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가고자 한다.

세 번째는 나라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활동의 지원이다. 예를 들면 올해 4월에 나라현 자치능력 개발센터가 주최한 <신입직원 연수> 일정 중 하루는 당관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오전의 첫 섹션(60분)에 당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오후의 실습시간에는 당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해 정보 수집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그룹연수로서 행해졌다. 이 서비스는 '강점'의 모든 요소, 그리고 '기회'의 모든 요소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행정활동 지원의 대부분은 도서와 잡지, 전자자료 및 관계기관의 자원 등 정보자원과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즉 앞서 얘기한 대로 당관의 '강점'의 요소와 '기회'의 요소를 살려 종합화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종합화에 의해 사서직원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자료와 정보의 제공, 그리고 프로모션 활동을 효과적, 전략적으로 전개해 도서관 내외의 환경변화에 유효 적절히 대응하는 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 사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 백과사전 <http://www.wikipedia.org>
구글 일본 <http://www.google.co.jp>
일본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이 자료는 2009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디지털 도서관 개관기념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내용을 일부 수록한 것이다.

기조연설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도서관 - 비전과 전략

Digital Librari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Vision and Strategy

클라우디아 룩스(Claudia Lux)*

본 글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도서관의 비전과 수립전략을 논하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 도서관은 과학과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장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불어 디지털 장서의 접근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보접근이라는 인간의 기본권리 보장과 정보활용능력(digital literacy) 함양을 위해 모든 디지털도서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국립도서관을 위한 디지털 납본과 민주적, 지속가능 정보화 사회를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1. 서 론

지난 수세기 동안 도서관은 변화의 흐름에서 비껴나 있었는데 이는 안정적 보존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도서관의 특성 때문이었다. 한때 도서관은 정치 권력

* 국제도서관연맹 회장

자들의 관심대상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또 다른 시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져 방치된 채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도서관의 발전은 과학자들의 발명, 학자들의 연구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고대유럽 및 북아프리카에서 도서관은 천문학, 식물학, 동물학, 언어학 및 수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6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기까지 귀족계급 및 수도원 소유의 도서관은 신학, 철학, 문학, 예술 및 과학 연구를 위한 통로가 되었다. 16세기에 이르면서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어 인문학, 예술 및 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공헌하게 되었고, 도서관과 장서에 대한 접근성 또한 점점 확대되어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그 문이 개방되었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그의 저서인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Kuhn, 1962)에서 과학사의 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쿤은 프톨레마이어스(Ptolomaeus, 90-168 AD)와 그의 행성 이동론 -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1473-1543), 이 이론은 후에 코페르니쿠스(Copernicus)의 우주론으로 뒷받침된다 - 으로 설명을 시작하여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io Galilei, 1564-1642)의 운동이론과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케플러(Kepler, 1571-1630)의 행성운동 법칙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은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었고 후에 뉴튼(Newton, 1643-1727)에 의해 만유인력과 세 가지 운동법칙으로 발전되어 궁극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성하게 된다고 쿤은 주장한다. 본 글의 저자는 도서관이 없었다면 그 시기에 이 같은 발전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20세기 말에 들어선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17세기 이래로 매 십 년 혹은 이십 년 마다 출판정보의 양은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17세기에 백만이었던 과학자들의 수 또한 1950년도에는 천만으로 증가했다. 위키피디아의 집계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과학자의 수는 일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세기 말 시점에서는 과학자뿐 아니라 학생, 출판물 및 도서관의 수 또한 그 어느 시기보다 높다.

우리는 이제 막 21세기로 접어들었고 21세기는 정보기술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 정보기술은 사회의 모든 부문, 특히 출판부문에 널리 보급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사서들은 정보기술발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IT역량을 키워왔으며 통합 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출판물 및 정보의 양적 관리를 강화해 왔다.

우리는 정보화 혹은 지식사회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전자 출판물이 어떻게 향후 출판계의 주류로 자리잡을 지에 대해서도 이미 감지하고 있다. 전자 출판물은 그 어떤 인쇄출판물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생산과 취급이 용이하다. 21세기에 디지털 도서관은 점진적으로 도서관 장서의 큰 부분으로 성장할 것이며 장서의 관리와 구성은 오늘날과 달라질 것이다.

정보에의 접근은 점점 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어도 일부 자료들은 이용자가 도서관까지 직접 오지 않아도 열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정보 부자와 정보 빈곤자 사이의 디지털 격차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며 개별 국가, 각개 사회 내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이다.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 도서관들은 반드시 디지털 발전을 수용하고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여 정보에 대한 민주적 권리를 개개인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조직 및 일터에서 개인, 사회, 교육 및 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위해 호환기술을 사용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빠르게 디지털 자료를 전송, 수신하고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정보집약도를 띄는 사회를 지칭한다.” IBM 지역사회 개발 재단이 1997년 발간한 ‘네트워크 성과－사회 통합을 위한 특별기구 보고’(The Net Result - Report of the National Working Party for Social Inclusion)에서는 정보화 사회를 이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정보화 사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모두 동일하게 정보기술의 이례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2005년과 2007년 정보화 사회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를 개최 하였고 글로벌 정보화 사회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비전 성립을 목표로 정했다. 정보화 사회는 기술에 의해 주도될 뿐 아니라 콘텐츠와 정보관련 훈련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했다. 사서들은 콘텐츠를 수집하고 정보활용능력 훈련을 제공한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정보화 사회 세계 정상회의 행동지침서를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동 지침서는 사회통합, 문화 다양성, 지역 콘텐츠, 학습 및 의료정보 취득을 위한 정보통신 응용활동에 있어 도서관의 중요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Danielle Mincio etal. www.ifla.org) 본 글과 국제도서관연맹(IFLA)이 구축한 정보화 사회 도서관 우수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기술의 사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성공적으로 도운 도서관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3. 디지털 도서관 전략

지난 십 년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 동안, 기술혁명으로 인해 도서관, 특히 국립도서관들은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디지털 도서관은 21세기에 도서관의 주된 형태가 될 것이며 모든 장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디지털의 형태로만 생산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은 모든 디지털 포맷으로 출판된 정보와 지식을 그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보존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 구축 전략으로서의 도서관 장서의 수집과 접근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디지털 장서의 구축은 우선 다양한 포맷, 메타데이터 및 보존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도서관은 필요 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분류, 보존한다. 디지털 자료의 이용은 종종 이용자들의 정보활용능력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선택, 분석하여 취득 정보 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관리 또한 디지털 도서관내 자료사용에 있어 추가적인 중요지식을 제공한다.

국립도서관에서 어떻게 디지털 장서를 구축할 것인가는 중요한 전략적 이슈이다.

각기 다른 단계의 전략이 있으나 모든 단계는 통합적 국립 디지털 장서의 구축과정의 일환이다.

1. 소장 장서 중, 저작권이 해제된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시행한다. 전세계 국립, 대학, 지자체 도서관들은 역사적 작품들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당 자료들은 도서관 장서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디

지털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근한 모든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내용이 사용되고 발견될 수 있으므로 도서나 자료의 원본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들이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디지털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디지털 데이터가 목록화 되지 않아 손으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문제를 자초하기도 한다.

2. 인터넷상에서 취득한 해당 국가의 출판물을 포함한 디지털 형태로 출판된 자료의 납본은, 도서관이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국가의 지식을 수집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다.
3. 출판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 자료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지난 100년간 축적한 국립도서관 내 인쇄 장서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디지털화 된 저작권 물은 도서관내 사용 혹은 출판자의 동의가 있을 시 접근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는데 이는 작가홍보 및 해당국가가 보유한 장서의 깊이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4. 디지털 보존법을 개발한다. 이는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고강도 준비단계로써 다양한 실험과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대규모 혹은 표준 솔루션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를 강화하여 대규모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

장서의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포맷의 디지털 자료를 다루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CD, CD-ROM, DVD에서 전자저널, 전자도서에 이르는 모든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저장해야 한다. 디지털 문서, 영화, 음악, 연설 및 웹사이트는 다양한 포맷을 띄고 있지만 모두 해당 국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립 디지털 장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과학자들은 재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서관 소장 원자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원자료의 기술적 프로필에 대응되는 연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자료의 접근성과 사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디지털 포맷은 향후 더욱 확장되어 감각으로 인지 가능한 디지털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애드 빈치 인스티튜트(Ad Vinci Institute)의 토마스 프레이 관장(Thomas Frey, Director)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검색기술은 맛, 냄새, 질감, 반사율, 불투명도, 질량, 밀도, 음색, 속도 및 부피와 같은 특성을 찾아내는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어느 예술가는 베를린시 중심가의 냄새를 수집하기 위해 화학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

적으로 압축되어 복잡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었으며, 100년 혹은 200년 후 그 데이터는 냄새의 형태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목록화 작업을 대규모 검색엔진과 비교하며 구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양질의 메타데이터를 디지털 콘텐츠에 부과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방법의 목록화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 같다. 전문(Full-text), 이미지, 사실과 원자료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접근은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오늘날 협동목록작성(Cooperative Cataloguing)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열람목록(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OPAC)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뿐 아니라 목록화의 질을 높이고 전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록화는 출판물 내용의 해당 쪽수, 초록, 출판자 정보, 리뷰 혹은 디지털화 사진 및 문서의 추가설명을 포함시켜 그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상적인 온라인 열람목록(OPAC)시스템은 전문, 음향, 영상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할 때 실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열람목록 시스템에 저작관 관리에 관한 분명한 명시가 먼저 기재 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인터넷이나 월드캣(World Cat)과 같은 광범위 네트워크상에서 목록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은 향후 소장자료가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 가능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직적, 기술적 측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가능성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관리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다양한 포맷의 디지털 데이터 보존은 더욱 복잡한 문제이며 여전히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다. 독일 국립도서관이 수행한 일부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단계의 조치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다른 기술적 대안이 개발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 디지털 포맷은 형식 그 자체로 향후에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국립도서관은 한 국가의 기억보존소로써 콘텐츠와 더불어 포맷의 보존가능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디오나 CD-ROM같은 포맷은 약 100년 후에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포맷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맷의 원본형태 또한 현시대의 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를 띤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원문과 사진 보존 활동의 우선순위는 콘텐츠에 있다. 구 디지털 환경에서 구동되었던 게임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입각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 동 자료를 접근 가능하게,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기술이 더욱 발전되면서 구식 소프트웨어상에서 구동되는 모든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복사하고 서버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것

이 현실화 된다면 일정한 통제 및 감독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사서들이 전통적으로 소장장서를 대상으로 해왔던 통제 감독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이 요구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용량이나 영구적 접근가능 수단 등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정보 생산과 필요 저장 용량을 살펴보면 사서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 깨닫게 된다. 모든 자료가 도서관에 의해 수집될 필요는 없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그러했듯이 여전히 철저한 선정 정책이 필요하다. 2008년 기준 웹 상에는 이미 9백만 개의 웹사이트, 20억 개의 문헌들이 저장되어 있다. 정보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2012년경 웹 상에는 수십억 개의 문헌들이 존재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웹 상의 문헌 수는 수십억 개 이지만 도서관들의 데이터 베이스나 문헌들이 숨겨져 있는 웹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존재할 것인데 이들의 저장문제 또한 큰 과제이다. 국립도서관들은 이 과제가, 이미 근접해 있는 문제이며,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립도서관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향후 인류지식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보존해야 한다.

4. 디지털 정보 및 지식 접근의 새로운 전략

디지털 자료의 수집, 저장, 보존과 더불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 또한 또 다른 난제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들은 디지털 콘텐츠 접근을 제공해야 하는데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최근 개관한 디지털도서관은 우리에게 훌륭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각국의 법 규제에 부합하여 국립도서관들은 정보 및 지식의 접근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자, 과학자, 학생들이 광범위한 양의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돕고 선택한 자료의 추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장서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도서관은 해당 국가의 사이버 인프라 코디네이터 역할도 수행한다. 몇몇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통해 디지털도서관이 어떻게 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참여를 촉진시키고 이용자들에게 국가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 발전과 연계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정보활용능력 훈련의 필요성이다. 현재 모든 사람이 정보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정보활용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디지털 장서에서 필요정보를

찾는 체계적 지식 검색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적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협업적 연구환경 및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구 결과의 저장 및 보존, 추후 관련 연구 개발 시 이전 결과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통합하여 지식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합 공공도서관이 국립디지털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연구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법적 틀 안에서 해당국가의 거주민에게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구로써 공공도서관의 통합이 논의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사서들은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시 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국립도서관들은 이용자들에게 개방적이기 보다는 다소 폐쇄적이었다. 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 세계 많은 도서관들의 협업 하에 성공적으로 디지털 참고 작업을 수행하여 높은 수준의 참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위치와 사용 시간대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2.0 기반에서 역사적 사진 수집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면, 한 국립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역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을 올리고 국립도서관이 디지털 장서에 소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디지털 장서에 통합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웹2.0의 사용으로 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의 필요에 더욱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활용수준이 각기 다른 다양한 이용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도서관 직원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업무이다. 점진적으로 교육 도서관을 건립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다양한 기능 사용에 대해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learning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가상 학습 공간을 개발하여 개인 이용자 혹은 이용자 그룹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구체적 주제로 좁혀 들어갈 수 있고 사서들은 관련성 높은 지원을 제공 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취득을 도울 수 있다. 동시에 이용자들은 빠른 속도의 장비가 갖추어진, 이용자의 창의성과 지식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분위기의 물리적 공간도 필요로 한다.

5. 결 론

오늘날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사서들은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들을 사서로서 해왔던 기존의 역할들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디지털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사서들은 정보기술을 익히고 이용자들에게 정보활용능력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먼저 관련 교육을 받고 또 디지털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화관리는 리더십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정부 지원과 법적 단체들의 지원은 디지털도서관의 발전과 역량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도서관이 개관했다고 하여 지원을 멈추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국가 중요사안으로 채택, 국가 사이버 인프라구축과 정보화 사회 발전의 틀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발전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은 금융, 경제 위기 시에 더욱 중요한 사안이며, 도서관을 혁신의 출발점, 재훈련을 위한 장소, 나아가 창출된 혁신의 보존처로 삼아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문화적 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들의 디지털 행동이 성숙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사용 언어 역량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디지털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이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도서관의 실제 및 가상 열람공간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전 세계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도서관 메니페스토를 채택했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디지털도서관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어느 기관도 디지털도서관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콘텐츠와 문화적 교육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설립은 미래의 디지털도서관들에 훌륭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속 국립도서관의 장래

Future of National Librar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알렉산더 비슬리(Alexander Vislyy)* 작성,
안드레이 빈버그(Delivered by Andrey Vinberg)** 발표

친애하는 여러분,

먼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 중 한 곳에서 열리는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측에게 감사 드립니다.

러시아의 디지털 환경을 살펴보고 가장 먼저 드는 솔직한 느낌은 이곳 저곳을 다시 꿰매고, 제대로 디자인하고, 헝겊조각을 대서 고쳐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고 비판만 해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비판을 하거나 향후 개선을 할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론적인 완벽주의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의 전환은 약 10년 전부터 러시아 도서관에서 가상현실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갖는 주요 문제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도서관 예산 구조를 변경하고,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일종의 시험대가 되어버린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러시아국립도서관은 최초로 대규모의 자원에 대한 디지털화를 시작한 기관 중 하나이나 최근에 들어서야 이러한 디지털화의 과정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혹은 20년 후 러시아에 있는 국립도서관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국립도서관이 기존에 했던 활동과 컴퓨터 기술

---

* 러시아국립도서관 부관장
** 러시아국립도서관 정보기술과장

의 융화라는 관점에서 국립도서관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립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인쇄물 컬렉션 서고와 서비스에만 치중한다. 정보기술은 전자 도서목록과 내부 도서관 기술의 컴퓨터화에 주로 활용된다.
2. 외부정보자원의 구독과 이러한 자원을 토대로 한 열람자 서비스는 기존 도서관 활동의 형태와 비슷하다.
3. 국립도서관 자체가 인쇄물에 비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 서고의 중심이 되고 국립도서관의 열람자뿐 아니라 다른 도서관의 열람자를 위해서도 접근을 허용한다.

사실 지금도 상기 시나리오의 일부는 각 국립도서관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지 비율의 문제일 뿐입니다. 일례로 외부정보자원 구독 비용과 인쇄물 구독 비용 간의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국립도서관(Russian State Library)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러시아국립도서관(Russian National Library)은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기념하는 대통령도서관에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하려 한다면 일련의 관리 대책, 재정의 우선순위 변화, 업무흐름의 개편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한 도서관이 향후 10년 후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1. 대다수 열람자의 자리에는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2. 도서관 직원은 다양한 정보자원 제공자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열람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다.
3. 도서관은 “전자구독”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한다.
4. 다양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도서관 전자도서목록으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전자도서목록을 사용한다면 제공자가 각 판(Edition)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판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5. 구독자원의 아카이빙 과정은 도서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잘 정비되어 있다.

이 모두에는 인적자원과 금전 자원의 재배치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손쉬운 예로 전자도서목록에 구독 판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수서부서와 도서목록 작성부서의 업무 흐름 변경, 인쇄물 구매와 전자판형 구독을 위한 예산 책정, 자원 접근권에 관한 전자 도서목록의 소프트웨어 지원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구독 전자자원에 대한 수요가 인쇄물에 대한 수요만큼 상당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당면한 가장 큰 걸림돌은 구독 전자자원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으나 인쇄물은 대체로 러시아라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채택할 경우 효율은 떨어지는 반면 소요되는 비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주요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화, 디지털 사본 구매, 이러한 활동을 위한 법적 권리 제공 등 소장 컬렉션의 상당부분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
2. 디지털 사본의 “영구적” 보관
3. 두 번째 시나리오의 1, 2, 4번 등 법조항 준수와 열람자의 접근

세 번째 시나리오의 장점은 “도서관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수서, 보관, 접근제공 등) 기존 기능을 유지한다”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러시아의 국립도서관에게는 세 번째 시나리오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시나리오를 따르게 되면 국립도서관은 “여가를 위한 독서”나 필요 자료가 인쇄형태로만 존재하여 수요가 많을 때만 사용되는 거대한 열람실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대 지식의 대다수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디지털 자원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출판사는 오

랫동안 디지털 Dummy Copy를 만들어 왔습니다. 출판사가 준비한 디지털 셋을 통합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허용을 활용하려면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영국 등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곧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관의 주요 임무는 2번째 시나리오에서처럼 이러한 자원을 구독하고, 열람자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주 소수만이 이러한 통합작업을 하며 주로 간행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분야에서 통합작업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스프링거, 엘베지어, EBSCO 연구 및 교육적 산물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또는 가입자)이 대체로 영어권 국가출신이며 단지 2%만이 러시아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어의 집합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국립도서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할까요?

놀랍게도 러시아 연방하원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도서관에 관한 연방법 18조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 장서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의 국립도서관은 낡고, 닳아 해지거나, 손상되고, 파손된 문서, 단일본, 희귀본, 열람자에게 전달할 경우 분실, 손상, 손상될 수 있는 문서...연구 및 교육적으로 중요한 문서 등의 디지털 사본을 만든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러시아의 현실에서 생각해봅시다. 해마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은 5만 부에 달하는 전공논문, 입문서, 참고서적, 기타 문서를 들여옵니다. 페이지 수로 환산하면 모두 2천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비파괴 기술을 적용하여 1페이지를 고품질로 디지털화(약 10년 정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함) 하는 데는 20루블, 미화로는 60센트가 듭니다. 반면 대통령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17년 이전에 출간된 장서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1페이지에 60루블, 미화로는 1달러 40센트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 디지털화 과정에 4억 루블, 미화로는 1천 5십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저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비용은 약 25퍼센트, 즉 1억 루블, 또는 미화 3백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전체 비용은 연간 5억 루블 또는 1천 5백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놀랄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러시아 법률을 실행할 적기일까요?
이를 위한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자와의 협력, 국립도서관 각각이 수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3곳의 국립도서관 모두를 대신하여 저작권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 스스로를 위해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조직(저작권 관리 단체)을 두고 라이센스를 국립도서관에 주도록 하는 방안, 국립도서관을 위해 저작권 계약 체결 과정을 단순화하는 하위법을 두는 방안 등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2. 국립도서관 간의 디지털화 작업 조율 : 디지털화 형식 승인, 중복가능성 예방, 접근정책수립
3. 전자사본의 디지털화와 도서목록 작성을 위한 새로운 수서 프로세싱 기술 재편성
4. “디지털 사본을 제작할 수 없도록 하여 도서관 구내에서만 무료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사본을 도서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러시아 연방 민법 4장을 준수하도록 접근관리 시스템 개발

끝으로 “도서관”에 관한 연방법 18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이 몇몇 작가나, 출판사·도서관에게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정보사회 수립을 위해서는 매우 진보적인 적절한 조치입니다. 적어도 국립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3번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로코 국립도서관과 디지털화에 대한 과제

The National Library of the Kingdom of Morocco and the Challenges of Digitization

압델라티 라흘루(Abdelati Lahlou)*

오늘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 퀘벡에서 한국과 모로코 양국 국립도서관 간에 체결된 제휴협정을 실천하기 위해 모로코 국립도서관을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모로코 국립도서관의 장서와 기록적 중요성을 지닌 공공 및 개인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로코 국립도서관은 1919년 일반도서관기록보존소로 개관하였습니다. 보호령 체제 하에서 당시의 신문 컬렉션뿐 아니라 인쇄물, 평론, 필사본, 사진, 포스터 등 중요 소장품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장서를 꾸준히 구축해왔습니다.

현재 장서를 개발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모로코의 전략적 위치, 세계를 향한 개방, 역사적 배경과 수세기 동안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이슬람 서방국가와 지중해 국가로서 물려받은 기록 유산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규모의 현대적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모로코 왕령(Dahir)에 의해 건립된 이후 모로코 국립도서관은 문화부장관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공공기관이 되면서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로코 국왕인 모하메드 6세는 2002년 모로코 수도인 라바트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5.5헤타르의 대지에 건립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최근에서야 거행되었으며(정확한 날짜로 10월 15일), 1년간의 준비와 3개월 간의 서류 작업이 수반되었습니다.

---

* 모로코 국립도서관 부관장

새로운 건물은 연구와 지식의 유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기술 통합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록유산을 구축하고 이를 보다 많은 열람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BNRM은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다 발전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문서에 대한 목록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33,000건의 필사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사본 중에는 모로코국립도서관만이 소장하고 있는 인류 유산으로, 수십 부에 달하는 역사적 일지, 700장 이상의 석판화,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 고지도, 모로코와 인근 지역에서 인쇄된 서적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공공의 것으로, 저작권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100편이나 되는 오래된 모로코 신문도 발견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모로코국립도서관은 디지털 연구소에 완전한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현재 연구소 직원은 1명의 엔지니어와 3명의 전문가이며, 주요 업무는 희귀성과 파손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안, 보존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문헌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필사본 디지털화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친 연수과정을 받았습니다. 방대한 처리과정을 요하는 신문, 잡지와 같은 그 밖의 컬렉션들은 전문업체가 디지털화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화가 지식의 보존과 유통에 있어 장점을 갖는다면, 모로코국립도서관은 지식의 유통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희귀 문서 관련 지식의 유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관내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마이크로필름과 인터넷 서버를 통해 이들 문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도서관 내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국립도서관은 약 7,000본의 마이크로필름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필사본 중 약 60%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파손되기 쉽고 희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술적 연구와 같은 이유를 제외하고는 많은 이용자들이 마이크로필름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내외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적이나 기타 문헌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로코국립도서관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훼손에 대비하여 오래되고 희귀한 문서를 유지 보존함으로 문서유산을 되살리고 강화하는 것이며,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문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로코국립도서관이 물려받은 방대한 장서에 대해 모로코국립도서관은 적절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복원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 연구실을 갖춤으로써 이들 장서의 보존을 위해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이러한 문헌들을 보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전세계 많은 연구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성패는 온라인 배포와 문헌의 디지털화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BNRM의 디지털화 프로그램에게 있어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모로코국립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로코 자료 연구, 특히 아랍 안달루시아 자료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통합도서관관리시스템은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처리와 접근을 위해 최근에 설치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련 기술은 글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아랍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려면 아랍어 문자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랍어뿐 아니라 기타 비라틴어계 문자가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시스템에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화 프로젝트에서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종이, 가죽, 잉크 등과 같은 필사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간과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며, 물리화학적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시스템 또한 필요합니다.

1. 기술적 측면

1.1 내용 설명

처리하는 문헌들의 특성

- 문자
- 도해

지원의 특성

- A4 양식의 문서
- 기타 양식

철자법의 성질

- 단순
- 복잡

콘텐츠 주제 : 표목의 내용

- 게시판 – 그림 – 사진 – 계획 – 지도 – 목차 – 일람표 – 계보 – 배경음악 – 신호
- 구 아랍어 문자 – 유대어 활자체 – 2개 언어로 된 텍스트
- 아랍어 텍스트 – 서지목록 – 2개 언어의 서지목록 – 용어집 – 색인

2. 서비스 설명

전자문헌관리(gestion électronique of documents : GED)는 데이터(텍스트와 이미지)의 입수, 스캐닝, 마그네틱이나 광학저장장치 지원에 의한 저장, 종이문서에 복원 및 복제를 위한 일련의 기법으로 정의된다.

전자문헌관리 유형의 스테이션

본 스테이션은 다음의 4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입수모듈
- 저장모듈
- 검색모듈
- 보급모듈
- 압축과 압축풀기 기능과 함께 문헌의 수집모듈은 스캐닝한 문서가 차지하는 용량을 줄인다.
- 저장모듈은 보통 마그네틱이나 광학상에 스캔 된 문헌들을 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학매체는 쥬크박스에 넣을 수 있으며, 방대한 온라인 용량과 수천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저장용량을 가능하게 한다.
- 검색모듈은 시스템의 핵심인 검색엔진에 관한 것으로 GED의 목표가 된다.

- 보급모듈은 CD-ROM, DVD, 일반적인 인쇄기기에 의한 인쇄 등 모두 가능하다.

전자문헌관리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공해야 한다

- 생성
- 조회
- 수정 또는 업데이트
- 일부 삭제
- 편집 및 인쇄
- 생성 기능 : 생성이라 함은 기본 내 새로운 항목의 도입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성이라 함은 기사를 스캔하고 데이터를 저장 또는 확인하기 위해 스캐너를 통해 기사 관련 데이터를 적절한 양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업무가 있다

▶ 데이터 입력 및/ 또는 메타데이터

다음의 필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권수, 호수, 출간연도
- 저자 : 학술지 저자 모두의 알파벳 순 리스트
- 제목 : 논문 제목

▶ 논문의 디지털화

본 기능은 이미지 캡쳐, 해상력, 크기압축, 디지털화의 유형 및 정보원 등을 다룬다.

궁극적으로 전문검색을 위해 매우 유용한 텍스트 모드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이다.

▶ 등록 및 확인

양식을 기입하고 문서의 디지털화를 마친 후에는 기록보존 매체에 정보를 이전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은 등록 양식에 있는 모든 필드를 공백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생성해야 한다.

- 참고 :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정보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다

▶ “카드색인” 조회

- ▶ “열람” 참고
- ▶ “카드색인” 조회 : 기사에 있는 모든 관련 데이터는 색인 형식을 이용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러한 다양한 카드를 통해 베이스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 ▶ “열람” 참고 : 가장 빠른 조사 모드이다. 매우 신속하게 카드에 정보를 포스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카드는 화면상 단 한 줄짜리 데이터이다.

시스템은 검색엔진을 통해 산술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기준을 정한 요청이나 질문을 통해 기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정 또는 업데이트 : 필요한 경우 기존 정보를 수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넣거나 전문을 새로이 추가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식의 수정이 가능하게 된다
  - 데이터 수정
  - 디지털화된 이미지 수정

- 일부 삭제 : 착오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정보를 제거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디지털화된 이미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편집 : 편집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 문서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인쇄를 의미한다. 또한, 마그네틱이나 광학 매체에 이러한 정보를 넣어 이를 보존하거나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기능은 참고, 수정, 삭제와 같은 모듈에 들어 있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편집 옵션을 가져야 한다
- 일별 보고 : 일자를 포함한 논문
- 주간보고
- 월간보고
- 발간주기

검색기준(주제, 제목, 키워드 등)을 조합

3. 모로코국립도서관의 도전 과제

모로코의 문화민주화와 국제선양을 위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는 모로코국립도서관이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모로코국립도서관은 모로코 과학기술연구소(모로코대학의 논문 스캔 업무), 카사블랑카 소재의 이슬람연구 및 인류를 위한 압둘라지즈 알 사오드 왕 재단, 문화부 소속 도서관(페즈의 카라위인, 테토우안일반도서관, 마라케시의 벤유세프도서관), 스페인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 국내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BNRM의 도움을 받아 114부의 모로코와 인근 지역 고지도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과 목록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국립디지털도서관www.rfbnn.org의 불어로 된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지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와 민주화의 원칙에 따라 지식과 인류발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모로코 문명의 구성원(모로코, 안달루시아, 아마지그, 아랍, 유대 등)이 꽃피운 모로코의 문명과 기록 유산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도서관 : 보고의 빗장을 벗기다

Digital Libraries : Unlocking the Treasures

디애나 마컴(Deanna B. Marcum)*

2000년 8월 한국에서 온 디지털도서관 개발 사절단이 미국 샌디에고 수퍼컴퓨터 센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미국의 사절단을 만나 한-미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공동 워크숍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워크숍의 목적이 정보의 공유와 배포를 위한 글로벌한 접근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 건립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교환하였고, 세계디지털도서관 구축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1]

회의는 시종일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구, 교육, 문화간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정보기술의 잠재력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전세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들을 인터넷과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인류에게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많은 경비를 들여 해외 도서관으로 찾아가지 않고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세계와 경이로운 문화를 전자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러한 비전이 달성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 기반시설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용이한 확인과 검색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이러한 사항들은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도서관 개발을 위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동

* 미국 의회도서관 부관장

안 여러분은 고품질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 자원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에서 전자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연결하고, 디지털 자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국가자원의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 "중요 자원의 필사본 데이터베이스", "한국의 도서관 정보시스템"과, 그 외 전자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원과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2]

오아시스 프로그램[3]을 통해 웹 콘텐츠를 보존하기도 했으며, 시각 장애인 학우를 위해 "온라인 종합 도서목록 및 필사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습니다.[4]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고 있으며,[5] 자원과 노하우를 세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 그 이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바로 문화 보물창고의 빗장을 벗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디지털 업무의 이 같은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망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전세계 디지털 사서는 세계디지털도서관의 공식 출범을 경축하였습니다. 세계디지털도서관은 기존에는 소장기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희귀자료, 원본 자료, 단 하나뿐인 자료 등 주요 자료에 대해 전자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이들 자료에는 디지털화된 필사본, 지도, 악보, 음반, 영화, 인쇄물, 사진, 건축도면, 희귀본 등이 있습니다. 세계디지털도서관은 전세계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출신 국가와 문화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7개 언어로 운영되며, 콘텐츠는 더 많은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계디지털도서관은 문화간 이해와 인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세계디지털도서관의 창설자는 인터넷 상에서 비영어권, 비서양권의 콘텐츠가 확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6]

세계디지털도서관은 유네스코 및 미국 의회도서관과 32개의 제휴기관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제임스 빌링튼 의회도서관장은 2005년 유네스코를 위한 미 국가위원회에서 세계디지털도서관을 제안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7] 구글은 전체적 계획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고,[8] 유네스코는 2006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디지털도서관을 위한 기획회의를 후원하였습니다.[9] 초기 제휴기관으로는 이집트 국립도서관이 있으며, 이집트 국립도서관은 온라인으로 희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화 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의회도서관과 공

동으로 세계디지털도서관의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등에 관해 협력하였습니다.[10] 2007년 브라질과 러시아의 국립도서관은 도서관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11]

그리고 2008년, 미 국립공문서관은 세계디지털도서관의 주요자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12]

이제 세계디지털도서관은 34개 도서관과 기타 기관들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도서관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기구와 말리, 우간다 등 아프리카의 기구,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의 기구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13] 박물관, 기록보존소, 역사학계, 종교기관, 사립 대학, 도서관 등 보다 많은 기관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웹 주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project.wdl.org/project/english/participate.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도서관"으로 불리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니 카나비(Penny Carnaby)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DNL) 프로젝트로, 중앙집권화된 세계디지털도서관과 달리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 이니셔티브는 분산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분산된 도서관을 통해, 국립도서관은 수집을 위해 모든 종류의 디지털도서관 자료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니셔티브의 창설자는 이 장기 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종합적이고 공개적이며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인터넷 상에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전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 전세계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4]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록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국경을 넘어 문화적 유산과 정보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PRDLA(Pacific Rim Digital Library Alliance), 즉 태평양연안 디지털도서관연맹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참석하였습니다. PRDLA의 회원기구에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 한국의 기관들도 포함됩니다. PRDLA에서는 태평양연안 도서관, 영어로는 Pearl로 발음되는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Pearl은 PRDLA 회원기구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공동수집하

고,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구글 등 대형 데이터 통합관리자에게 최대한 노출시키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홍콩대학교 도서관에서 Pearl 서버 저장소를 호스트하고 있습니다. Pearl은 PRDLA 회원기구의 소장자료를 전세계에 보다 잘 알리는 역할을 할 것 입이다.[15]

또한 유럽도서관(The European Library) 서비스는 빠르게 증가하는 디지털 장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서관은 유럽 48개 국립도서관에 산재해 있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2개 언어들로 제공되는 서적, 지도, 포스터, 비디오, 음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16]

왕립네덜란드도서관에 위치한 유럽도서관은 가상전시인 "유럽 각국 국립도서관의 경이로운 보물전"도 전시하고 있습니다.[17] 유럽도서관은 유럽도서관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유럽인의 교육과 문화의 풍요로움·다양성에 대한 전세계의 이해를 고양하기 위해 평등한 접근을 제공한다.*[18]

또한 유럽도서관의 후원기관인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로피아나(Europeana)로 불리는 웹 자원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로피아나 사이트에서는 유럽 각국의 국립도서관, 그 외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보존소, 시청각 자료실의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반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유로피아나 사이트의 4백만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그 밖에, 유로피아나 사이트가 "숨겨진 보물" 이라고 설명할 만큼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서나 이러한 자료를 연구,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19]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자원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전자정보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는 것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 의회도서관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워싱턴에 위치한 의회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이용할 수 있었던 독특하고 희귀한 자료의 디지털적 접근을 제공하는 등, "숨겨진 보물"의 빗장을 벗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도서관의 웹사이트는 현재 5백만에 달하는 디지털 자원을 소장하고 있으며, 학자, 연구원, 교사, 저학년 학생부터 대학원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몇 차례의 실험을 거친 후, 미 의회도서관은 미 의회와 민간 기부자의 후원을 얻어 국립디지털도서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대표주자격인 자료는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라고 부르는 가상컬렉션으로, 여기에서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미 의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에 대해 온라인으로, 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료 선정에 있어서는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 중 가장 희귀한 컬렉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20] 또한 다른 미국의 저장소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을 디지털화하여 아메리칸 메모리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약 1천만 건의 디지털 자료를 담고 있는 100개 이상의 주제별 장서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21]

하지만, 디지털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미국의 자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사이트를 구축하여 전세계 각국과 소장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2] 한국, 일본, 중국을 위한 특별 포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23] 또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이트에서는 해외 주요 도서관과의 제휴를 통해 개발한 디지털 전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전시는 2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시청각,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을 활용합니다. 전시자료는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역사적 관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과의 공동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4]

마지막으로, 현재 미 의회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4건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실될 수 있거나 거의 이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러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미 의회도서관 또한 웹사이트가 자원의 저장소로써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웹 사이트들이 영구적으로 유지·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에 대한 테러공격 발생 한달 후, 미 의회도서관은 인터넷 아카이브 등의 기관과 협조하여, 테러공격에 대해 개인, 기관, 언론이 웹에 올린 글들을 수집하여 보존하였습니다. 30만 개에 달하는 관련 사이트를 수집하였고, 역사 연구를 위해 이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25]

오래된 신문은 역사학자와 그 외 학자들에게 커다란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신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훼손되기도 하며, 신문을 저장하는데 주로 쓰이는 마이크

로필름은 사용하기에 매우 번거롭습니다. 미 의회도서관은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과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문이 보다 폭넓게, 그리고 손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훼손되어가는 신문을 디지털로 스캐닝하고 있습니다.[26]

또한 "미국의 발자취 디지털화" 작업으로 알려진 프로젝트에서는, 스로언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산성지이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이 있는 손상되기 쉬운 수천 권의 서적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자취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5가지의 희귀서적 컬렉션의 내용을 디지털의 힘을 빌어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희귀서적의 경우, 서적의 안전을 위해 제한 구역에 보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의 스캐닝과 디스플레잉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법에 대한 학습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스캔된 서적의 수가 2만 5천 권을 돌파하였고, 이들은 종이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이 확대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2만5천 번째의 책이 "위대한 해방자" 로 알려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라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27] 이외에도 우리가 제공하는 미국관련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연구원이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도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웹 브라우저 인풋 형식을 활용하여 125,000건의 아프리카 지도 목록 작성을 위해 도서관평의회와 미정보자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숨겨진 특별 컬렉션의 목록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들 중 하나입니다.[28]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훌륭한 가치를 지닌 구 자원에 대해 미 의회도서관의 벽이나 국경을 넘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 의회 도서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기관 저장소에서, 그리고 개관하는 한국의 국립디지털 도서관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워크숍 참석자들은 10년 전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많은 소망들이 달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수혜대상은 실로 전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고 문 헌

[1] Edward A. Fox, Reagan W. Moore, Ronald L. Larsen, Sung Hyon Myaeng, Sung-Hyuk Kim, "Toward a Global Digital Library, Generalizing US-Korea Collaboration on Digital Libraries," *D-Lib Magazine* 8, no. 10 (October 2002), http://www.dlib.org/dlib/october2/ fox/10fox.html, accessed 13 April 2009. The Web site for the conference itself is at http://fox.cs.vt.edu/UKJWDL/.

[2] "The Digital National Library," "Background," http://www.dlibrary.go.kr/NEL_ENG/ ndl/Business.jsp, accessed 11 April 2009. Also see "Welcome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Digitization," http://www.nl.go.kr/nlmulti/activities/ autom.php?lang_mode=e, accessed 11 April 2009.

[3] National Library of Korea, "Web Archiving Syste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OASIS," *CDNLAO Newsletter*, no. 58 (March 2007), http://www.ndl.go.jp/ en/cdnlao/ newsletter/058/583.html, accessed 15 April 2009. OASIS stands for Online Archiving and Searching Internet Sources.

[4] "Welcome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Digitization," http:// www.nl.go.kr/nlmulti/activities/autom.php?lang_mode=e, accessed 11 April 2009.

[5]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Expectation Effect," http://www.dlibrary.go.kr/ NEL_ENG/ ndl/Business.jsp, accessed 11 April 2009.

[6] World Digital Library, "The World Digital Library will launch on April 21, 2009," http://www.worlddigitallibrary.org/project/english/, accessed 13 April 2009. Also see Library of Congress, Media Advisory, "Library of Congress, UNESCO and Partners to Launch World Digital Library," 7 April 2009, http://www.loc.gov/today/pr/2009/09-070.html, accessed 13 April 2009.

[7] James Billington, "Proposal for a World Digital Library," speech to the U.S.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Georgetown University, 6 June 2005, www.loc.gov/about/welcome/speeches/wdl/wdl_6-6-05.html, accessed 16 April 2009.

[8] "Library of Congress Launches Effort to Create World Digital Library," November 2005, http://www.loc.gov/today/pr/2005/05-250.html, accessed 16 April 2009.

[9] John Van Oudenaren, "World Digital Library, UNESCO and Library Co-Host WDL Meeting," *The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66, no. 3 (March 2007) : 54-55, http://www.loc.gov/loc/lcib/0703/wdl.html, accessed 16 April 2009.

[10]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and Bibliotheca Alexandrina to Cooperate in Developing World Digital Library," 10 April 2007, http://www.loc.gov/today/pr/2007/07-069.html, accessed 16 April 2009.

[11] "World Digital Library Prototype," http://www.worlddigitallibrary.org/project/english, accessed 13 April 2009.

[12]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Archives Form World Digital Library Partnership," 15 July 2008, http://www.loc.gov/today/pr/2008/08-129.html, accessed 13 April 2009.

[13] World Digital Library, "Partners," http://project.wdl.org/project/english/ partners, accessed 16 April 2009.

[14] "CDNL Vision for the Global Digital Library," http://www.cdnl.info/, accessed 15 April 2009.

[15] PRDLA, "Pacific Rim Library," http://prdla.ucmercedlibrary.info/13, April 2009.

[16] "What is The European Library?" http://www.theeuropeanlibrary.org/portal/organisation/ about_us/aboutus_en.html, accessed 15 April 2009.

[17] Ibid.

[18] The European Library, "Vision of the European Library," http://www. heeuropeanlibrary.org/portal/organisation/about_us/aboutus_en.html, accessed 16 April 2009.

[19] "Europeana : think culture," http://www.europeana.edu/portal/aboutus.html, accessed 16 April 2009.

[20] Library of Congress, "About Digital Collections," http://www.loc.gov/library/about-digital.html, accessed 13 April 2009.

[21] http://www.loc.gov/memory.

[22] http://international.loc.gov/intldlhome.html.

[23] "Portals to the World," http://www.loc.gov/rr/international/portals.html. The Korean portal is at http://www.loc.gov/rr/international/asian/korea/korea.html.
[24] http://international.loc.gov/intldl/find/digital_collaborations.html.
[25] http://september11.archive.org.
[26] http://www.loc.gov/chroniclingamerica/.
[27] "Library of Congress Leads Nationwide Digitization Effort," 14 January 2009, http://www.loc.gov/today/pr/2009/09-10.html.
[28] "CLIR Announces Hidden Collections Awards," *CLIR Issues* 66 (Nov./Dec. 2008) : 3. The grant is described in more detail in http://www.clir.org/hiddencollections/awards/index.html, accessed 13 April 2009.

디지털시대, 국립국회도서관의 미래 추진사업 - 창의성을 위한 새로운 지식기반 구축

Future Initiatives in the Digital Era - to build a new knowledge base to generate creativity -

요시나가 모토노부(Motonobu Yoshinaga)*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을 기념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997년 이래 10년 동안 상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해 국립중앙도서관과 중국국립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오늘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진심 어린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 전

국립국회도서관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일본 내 유일의 국립도서관으로 일본국회의 입법활동을 돕는 기관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회도서관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장을 여는 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은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부관장

도서관의 미션을 재확립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국립국회도서관의 도서관장인 마코토 나가오 박사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립되어, 일명 “나가오 비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가오 비전에서는 “지식을 통해 번영하리라” 라는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문명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환경문제, 식량문제, 자원, 에너지, 인구 증가 등 심각한 문제도 초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움을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문지식이 기술로 이어지고 사회 및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여 전세계에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대성은 날로 커져갈 것입니다.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추세를 주도하기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협력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 번영하리라” 라는 도서관의 모토는 이러한 이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식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적 유산과 문화유산을 선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에서 공유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식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3. 신지식기반 구축

3.1 정보자원 구축 및 검색 개선

국립도서관으로서 다양한 매체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서관이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인쇄물과 디지털 자원을 연계하는 정보환경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2 타기관과의 협력 : 자존에서 협력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은 고립된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검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국립도서관으로서 국립국회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어디에서 필요한 정보자원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식기반으로서의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은 새로운 지식기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국립도서관에게 있어, 인터넷은 매우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인터넷 사용자를 중요한 이용자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서관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관내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도서관으로 전략적으로 이전해 가고자 합니다. 웹 상의 서비스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입니다.

4.1 법률에 근간하는 웹 정보 수집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 생각해보면,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먼저 웹 정보의 수집을 강화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웹에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 정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정보에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도 있고 해당 국가에 중요한 정보도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향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적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국립국회도서관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만든 웹사이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입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에는 비정부기관의 웹사이트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법률에 근간하는 웹 정보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4.2 디지털화와 아카이빙

자료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서고에 쌓여만 있던 방대한 자료들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와 지식이 배포될 수 있으며, 정보와 지식의 이용가능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디지털화는 정보와 지식의 배포를 활발하게 하고, 그 결과 정보와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주로 희귀본과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출간된 일본의 단행본을 디지털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000종(150,000권)의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본 보존을 위해 마이크로필름화 대신 디지털화를 채택할 수 있다면 보다 대규모의 디지털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며, 저작권 법의 관련 조항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의 양해와 협력을 통해, 출판 당시 만든 디지털 데이터를 입수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 중입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디지털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의 디지털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공문서 보관소, 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연계를 통해 중앙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4.3 검색도구의 강화

디지털 콘텐츠 강화와 더불어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이슈는, 이용자를 콘텐츠로 연결해주는 정보검색도구의 이용자 편리성입니다. 이미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익숙한 이용자의 관점에서 검색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풍부한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례로 서지데이터에 목록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참고사례, 패스파인더 등의 지식을 축적, 수집,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지정보 생성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외부데이터 활용, 도서목록 작성 과정의 재편,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자동생성 등의 방법도 활용해야 합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와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정보자원의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례로 차기통합도서관시스템 개발을 계획 중이며, 온라인 카탈로그 NDL-OPAC와 유니온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용자는 전국에 있는 자원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4 데이터 제공자로서의 역할 강화

국립국회도서관은 서지데이터, 서지 유틸리티, 정보검색서비스 등 도서관에서 만든 데이터와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사회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제공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내부와 외부 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제공자로써의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 및 학술적 창조성과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한 지식기반으로 우리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5.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

우리는 초고속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중심적 제도에서 분권화되고 협력적인 제도로, 소수의 작가만이 존재하던 시대에서 누구나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로, 소수의 전문가가 지식 창출을 담당하던 시대에서 집합적인 정보가 방대한 지식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시대로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하여 이러한 활동을 확대 또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폭넓은 "협력의 시대"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조직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엄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의 활동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화는 도서관, 공문서 보관소, 박물관 등 기존의 문화기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즉, 이용자들은 각 기관의 물리적 벽에 가로막혀 있던 다양한 지적·문화적 자산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표에서 저는 창의성을 촉진하는 지식기반으로서의 디지털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야 말로 국가 전체의 지적,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고, 전통적인 경계를 뛰어 넘어 통합된 방식으로 지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이 고립되어 진다면,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문서보관소, 박물관, 학술 및 연구기관, 서점, 출판사, 음반업계,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사회의 지식기반 구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발전구상

On Development of the Digital Library of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장야팡(Yafang Zhang)*

올해는 중국국가도서관 개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대에 걸친 중국국가도서관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중화민족 5천년 역사와 문화가 남긴 "진귀한 보물"인 문헌자료와 디지털자료를 각각 2600만권, 250TB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소장자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디지털도서관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외 이용자들의 자료검색 효율과 소장자원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중국국가도서관이 "공공문화서비스 제공기관", "국가정보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창조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중국국가도서관의 디지털자료 구축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중국국가디지털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1.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디지털자료 구축

디지털자료가 중국국가도서관 소장자료 중 가장 많이 애용되는 자료로 떠오르면서 우리는 관내 소장자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디지털자료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자료 구축에 관한 포괄적 목표는 중문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통합하며, 중문디지털자료 메타데이터의 등록, 가치확대(VA) 및 발굴이 가능한 센터를 건설하며, 중문디지털자료 구성· 보존하고 서비스하

* 중국 국가도서관 부관장

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외국어디지털자료를 선택적으로 구입한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팡쩡(方正) 중문e-book, 동팡(同方) 중문간행물DB, 대형 참고서적 등과 같은 대표적인 중문 전문(Full-Text) DB를 수집합니다. 둘째, 소장문헌을 디지털화할 때, 갑골, 탁본, 세화, 돈황문헌, 지방지와 민국문헌과 같은 중국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특수문헌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셋째, 웹페이지를 수집하거나 통합할 때 중국학, 무형문화재와 제29회 베이징올림픽 등과 같은 중요사건이나 전문주제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합니다. 넷째, 국제돈황프로젝트(IDP)나 세계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와 같이 협력에 의한 디지털자료의 구축과 공유를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1980년대부터 국내외 문헌DB와 전자출판물을 수집하고, 대규모 소장도서 목록DB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소장문헌의 디지털화에 착수했고, 2002년에는 웹페이지의 수집·보존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국가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료는 250TB에 달하며, 자체구축디지털자료는 200TB, 디지털화된 문헌은 1억 1,200면이며, 구매한 국내외문헌 DB는 200개, 데이터량은 50TB에 이릅니다. 즉, 중국국가도서관은 구입·자체구축 및 인터넷상에서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학문적 체계가 갖추어진 디지털자료 시스템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중국국가도서관의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건물 건설과 소장자료 구축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면, 이용자에게 자료 및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일관되게 이용자 서비스를 중시해왔으며, 서비스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1990년대 초 우리 도서관은 전자열람실을 설치하고 디지털도서관과 네트워크정보서비스에 대해 연구하였고, 1997년에는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네트워크정보서비스의 실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2년, 연간 사이트 방문자수가 2억 2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자료의 유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1년 대출 수는 1997년 대비 527% 증가하여 연평균 132%의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9월 9일, 중국국가도서관은 2기 프로젝트를 마치고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네트워크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켰는데, 2008년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2007년 대비 44.7%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네트워크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맞춤형 정보서비스와 네트워크 지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정보시스템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은 각종 자료 및 정보,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정보와 서비스, 도서관원과 이용자가 함께 만든 지식정보공간입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오랫동안 DB 검색, 정보전송 및 전문(Full-Text)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 방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 중국국가디지털도서관 "분관 디지털정보서비스"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관내 소장 디지털자료의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전국각지에 국가디지털도서관 분관을 건립하고 미러 사이트(Mirror Site)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우리 관의 고품질 디지털자료를 각지의 분관에 전송하여 전국을 커버하는 "국가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디지털자료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2.2 모바일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2007년, 중국국가도서관은 선진 모바일기술을 도입, 도서관 서비스에 접목시켜 핸드폰을 매개로 하는 "중국국가도서관 모바일 서비스-손 안의 도서관"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용자들은 "손 안의 도서관"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중국국가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자서비스, 모바일 열람 및 도서관 로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 시각장애인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2008년 9월 9일, 중국국가도서관과 중국장애인연합회 정보센터, 중국시각장애인출판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중국 시각장애인 디지털도서관" 웹사이트가 정식 개통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집에서 중국국가도서관의 문헌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각장애인들도 방대한 지식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TV 서비스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TV 서비스는 중국국가도서관과 베이징꺼화(北京歌華)케이블이 국가도서관 소장 자료 중 디지털TV를 통해 전송 가능한 자료·정보 및 서비스를 베이징 내 유선TV망을 이용해 300만 디지털TV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디지털TV를 이용해 중국국가도서관 강좌 및 전시회, TV열람, 중국국가도서관의 정수 등의 서비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P포털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5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전자신문 열람 서비스

이용자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전자신문이나 관내 소장 디지털자료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구독률이 높은 10대 신문사의 기사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매일 업데이트), 이용자는 화면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 페이지를 넘기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중국국가디지털도서관의 발전전략

중국국가도서관은 지난 100년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자료와 지식정보를 수집·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3.1 중국국가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중국국가도서관은 디지털시대에도 변함없이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 및 지식자원을 수집·정리·보존하고 이용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미디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정보전달 방식이 급변하며,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국가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중국국가도서관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사회적 의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가대표 서고(書庫), 국가도서목록센터로서의 역할 이외에 자료유형과 정보수록매체(carrier),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네트워크 공간이 점점 확대되며 이용자들의 정보이용방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중국국가도서관은 디지털자료 및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대표 서고로서의 내용 및 구조도 바뀌어야하고, 국가도서목록센터로서의 역할도 변화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장하고 있는 실제 문헌자료를 게시하고, 네트워크상의 자료나 디지털자료를 스캔해야 하며, 그 속의 정보와 지식자원에 "태크"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정보자원의 메타데이터 센터, 국가디지털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습득의 중심으로 발전하여 국가의 디지털정보인프라 및 세계디지털도서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2 중국국가디지털도서관의 전략적 목표

중국국가도서관은 국가대표 서고 및 도서목록센터로서의 역할은 물론, 네트워크상의 국가정보·지식 및 서비스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국가의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국가도서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적으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문정보 및 지식자원 센터"로 발전해나가고자 합니다.

3.2.1 디지털자료 수집기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중국국가도서관은 양질의 중문디지털정보를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능적으로는 정보자원과 이용자의 요구를 만

족시키는 디지털자료 수집기관이 될 것입니다. 중화민족 5천년 역사동안 축적되어온 역사·문화관련 정보와 지식, 그리고 사이버공간에 흩어져있는 양질의 중문정보를 통합하는 한편, 중문문화정보에 대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방대한 수요를 취합하고, 타겟 정보와 이용자 요구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이 정보를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 및 지식의 제공자"가 되고자 합니다.

3.2.2 국가 디지털정보 인프라의 "정보자원센터"

최근 개관한 중국디지털도서관이 정보인프라에 대해 가지는 역할·가치 및 의의는 주로 디지털정보의 창조, 조직, 검색 및 서비스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중국디지털도서관은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고품질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인프라에 속하는 각종 디지털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습득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검색도구를 제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제시할 것이며, 모바일폰 정보서비스 플랫폼, 디지털TV 정보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2.3 인터넷상의 고품질 중문디지털정보 서비스 중심

인류의 정보발전사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문헌관련기관의 경쟁력은 고품질 정보의 수집·가공 및 구성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문헌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 특히 양질의 학술정보 관리이론과 방법을 정리하고 개선해왔으며, 이것은 곧 디지털정보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서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지만 지식의 바다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의 차이, 검색서비스와 도서관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정보수집도구, 정보여과도구로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치 없는 정보는 거르고 유용한 정보만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이용률·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이용자의 검색에 의한 정보수집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국가도서관은 고품질 디지털정보의 체계화 및 정보 및 지식 획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서관의 "보이는 지식"과 이

용자들의 “보이지 않는 지식”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인터넷상의 고품질 지식자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3.3 중국국가디지털도서관의 전략적 계획

상술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 서비스 및 기술개발의 3대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3.3.1 디지털콘텐츠 전략

여기서 “콘텐츠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자료가 지니는 지식내용을 꺼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료 콘텐츠 부분에서 국가도서관의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장자료 중 우수한 자료를 골라 특색자원으로 개발, 국가도서관의 자원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콘텐츠 통합 및 콘텐츠 마이닝을 강화하여 단순한 국가대표 서고에서 탈피, 국가대표 서고, 메타데이터 베이스, 지식센터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전략 중 하나는 국가도서관 소장 콘텐츠의 부가가치 전략이고, 나머지는 소장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확대전략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전략은 각종 정보자원의 수집과 통합을 통해 소장정보의 획득성을 높임으로써 소장문헌의 사회적 가치와 서비스성과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중문문헌·정보 및 지식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중국국가도서관의 국내외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3.3.2 브랜드서비스 전략

도서관의 핵심가치는 서비스를 통해 발현되며 중국국가도서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8년, 우리 도서관은 모바일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디지털TV 서비스, 전자신문 터치스크린 열람서비스 등 일련의 서비스 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중국국가도서관이 “국가 디지털 정보 포털”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이용자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전문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3.3 기술개발 전략

기술은 사회 및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도구”로, 도서관의 비약적 발전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쇄술의 출현으로 도서관 소장문헌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고,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수백 년 동안 이용되었던 카드형목록이 ‘기계가독목록(MARC)’으로 바뀌면서 컴퓨터를 통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이 현대 도서관의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정보기술로 체계적이고 완벽한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정보자원 접근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헌·정보 및 지식을 수집·통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개관 후 100년 동안 방대한 문헌자료를 축적해 왔고, 디지털시대가 도래한 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자료를 수집하고 양질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국가디지털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중문디지털자료 수집도구”, “중국디지털정보 인프라의 중심”, 그리고 “인터넷상의 고품질 중문데이터자료 서비스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료는 2009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3회 한·중 국가도서관 업무교류의 '중국측 주제발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 제13회 한·중 국가도서관 업무교류는 중국측 참가 취소로 잠정 보류되었음.

중국국가도서관의 디지털자료 구축 및 서비스

뤼 슈 핑(呂淑萍)*

중국국가도서관은 '국가 서고(書庫)'로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중국문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방대한 소장문헌을 자랑하는 중국국가도서관은 정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양질의 문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정보자원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 급증으로 중국국가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을 기존의 '실물 문헌' 위주에서 '실물 문헌과 디지털 문헌'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방식도 '직접 방문 대여' 서비스와 디지털화된 문헌정보와 지식을 원격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디지털자료의 컨텐츠 구축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였다. 특히 국가디지털도서관 개관으로 중국국가도서관은 시공을 초월하는 '사이버 지식센터'와 '정보서비스기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 중국국가도서관의 디지털자원 구축 현황

중국국가도서관은 1980년대부터 디지털자료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1987년에 중문 서목(書目) DB 구축에 착수했고, 같은 해 CD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했으며, 2000년부터는 희귀본과 특수본의 디지털화 작업을 개시했다. 2008년말 기준, 중국국가도서

*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자료부 주임비서

관의 디지털자료 누계용량은 250TB를 초과한다. 이들 디지털자료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납본 받은 출판물과 음향물 및 부록으로 나온 전자출판물 등 납본에 의한 디지털자료가 있다. 그리고 구입한 전자출판물, 음향물, CD 및 네트워크 DB가 있으며, 자체 구축한 중문서목, 편명(編名), PDF자료, 멀티미디어 DB, 구입 혹은 납본 받은 동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한 것이 있다. 그밖에 인터넷상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다.

1.1 디지털자료 구축 계획

중국국가도서관은 디지털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양적, 질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디지털자료 구축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여 중문디지털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중문디지털자료의 '검색기지'를 구축한다. 셋째, 디지털자료의 수집, 가공, 보관, 관리 및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넷째, 네트웍을 통해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중문 디지털자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자료 구축에 관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성숙한 시장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는 자원은 중국국가도서관이 '구매'를 통해 통합한 후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특수자료는 소장현황 및 서비스 대상자의 수요를 근거로 기간별,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구축한다. 3. 사이버 공간에 유포 가능한 '무판권' 자료와 이용자가 광범위한 디지털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디지털자료 구축)계획'에서는 소장문헌의 디지털화와 이를 기반으로한 디지털자료의 통합 및 개발, 인터넷상의 자료와 기타 원시 디지털자료의 채집 및 재가공을 디지털자료 구축의 기본 방향으로 확정하였고 우리는 이 계획에 따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외 관련기관들과 '자료의 교환 및 위탁가공' 등을 포함한 '자료의 공동개발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1.2 자체 디지털자료 구축 현황

2008년말 기준, 중국국가도서관에서 자체 구축·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료는 180TB에 달한다.

1.2.1 디지털자료의 내용별 분류

(1) 문헌류 : 고서(古書)문헌, 민국(民國)문헌, 소수민족문헌,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2) 특별소장류 : 돈황(敦煌), 갑골, 청동기, 탁본, 법첩(法帖), 지도, 세화, 족보, 옛날 사진, 명사의 친필 원고, 신선본(新善本), 외국선본

(3) 전문테마류 : 중국문화사, 중국역사인물, 중국지방지(地方志), 중국고대법률,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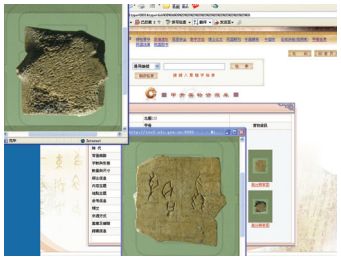
(4) 전문테마 가이드 : 학문분야 가이드, 직업가이드

(5) 인터넷자료 : 웹사이트·웹페이지 정보, 인터넷 주제 정보

1.2.2 특수자료 소개

자체 구축한 디지털자료 중에는 中華문화고전과 특수장서가 주요부분을 차지한다. 그중 비교적 특수한 자료로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있다.

(1) '갑골세계(甲骨世界)' DB



중국국가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갑골편 (甲骨片) 35,651점은 대부분 개인이 기증하거나 골동품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출토된 전체 갑골편의 1/4을 차지한다. 중국국가도서관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갑골편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우리는 2003년부터 소장하고 있는 갑골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2008년말 기준, 완성된 갑골사진(이미지)은 6,775종 11,700점, 갑골 탁본편(拓本片) 사진(이미지)은 5,773종 6,990점에 달한다. 그 중 갑골 메타데이터 3,764개, 사진(이미지) 7,532점, 갑골 탁본편 메타데이터 3,775개, 사진(이미지) 4,010점은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서비스방식 : 인터넷 무료 서비스

링크주소 : http://res4.nlc.gov.cn/index_jg_sw.jsp?channelid=75011

(2) '서하(西夏)의 황금조각' DB

중국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하(西夏)문헌은 대부분 서하와 원대(元代)의 유일본으로 700~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宋·元代 善本과 같은 시기에 속한다. 서하문헌의 내지, 표지 및 제첨(題簽)에 사용된 견사는 서하(西夏)와 원대(元代)의 종이와 견주의 원료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진귀한 실물자료이고, 서하문헌은 서하의 불교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중국국가도서관은 2003년부터 서하문(西夏文)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했고, 2008년말까지 서하문헌 書目데이터 124개, 서하古書 원본 이미지 4,909페이지, 서하문헌 연구논문篇目 1,201개, 서하 연구논문PDF 9,793페이지를 완성하였다. 그중 書目데이터 124개, 古書 원본 이미지 2,991페이지, 연구논문 編名데이터 1,201개는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서비스방식 : 인터넷 무료 서비스

링크주소 : http://res4.nlc.gov.cn/index_xx.jsp?channelid=75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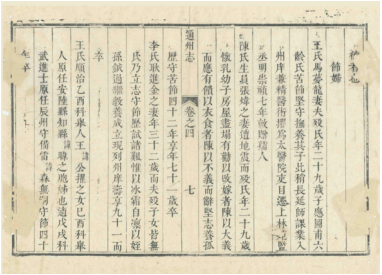
(3) '세화의 정수' DB

'세화'는 오랜 세월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중국 전통 회화양식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은 풍경, 인물, 고사(故事), 꽃, 새, 곤충, 물고기, 장식도안 등 다양한 소재의 세화 4,000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 신상(神像)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중국국가도서관은 2005년부터 소장 세화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매 작품마다 관련 고사, 역사적 배경, 작품의 특징 및 연관지식을 담은 작품해설을 첨가했다. 2008년말 기준, 607종 734점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마쳤으며, 그 중 278종 337점은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다.

서비스방식 : 인터넷 무료 서비스

링크주소 : http://res4.nlc.gov.cn/index_nh.jsp?channelid=75013

(4) '디지털 지방지(地方志)' DB



지방지(地方志) 문헌은 중국국가도서관만의 특색을 지닌 특수 소장문헌 중 하나로 문헌의 양이나 질이 국내 최고 수준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은 2002년에 지방지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8년말 기준, 6,868종 335만 페이지를 완성했다. 각각의 지방지 첫 24page에 대한 이미지는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서비스방식 : 인터넷 무료 서비스

링크주소 : http://res4.nlc.gov.cn/index_dfz.jsp

(5) 중국학 인터넷자료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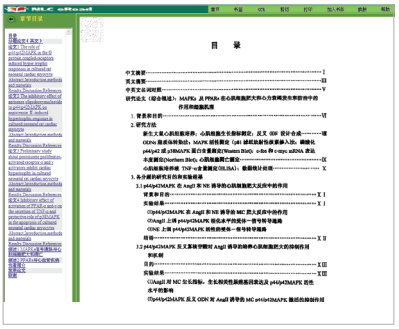
중국학 인터넷자료 DB는 '국외 중국학자 DB'와 '국외 중국학 가이드(Internet Guide for China Studies)' 두 부분으로 나뉜다. 2008년말까지, 중국학자 150여명의 연구분야, 활동연표 및 주요 학술성과 등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등 어종(語種)이 다른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국학 관련 사이트 308개를 찾아, 이들 사이트의 명칭, 언어, 분류, 운영자/운영기관, 내용, 사이트구성, 특색있는 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서비스방식 : 인터넷 무료 서비스

링크주소 : http://res4.nlc.gov.cn/index_zgx_wl.jsp?channelid=75014

(6) 박사논문 DB

'중국국가도서관 학위논문센터'는 국무원 학위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내학위논문 전문기관'으로 전체 논문의 관리 및 보관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센터는 국무원 인사部 전문가司(정부기관 조직명)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박사후 연구보고서'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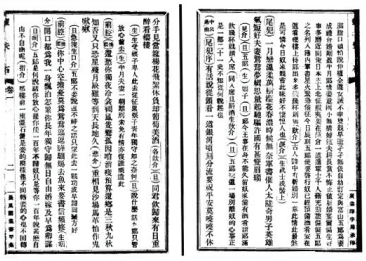


전문기관이기도 하다. 2008말 기준, 중국국가도서관은 120만種에 달하는 박사논문과 석사논문 일부, 대만 박사학위 논문 및 해외화교 학위논문을 소장하고 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논문의 영구보존을 위해 2002년부터 학위논문의 PDF DB 구축을 시작하였고, 2008년말까지 13만여種 1,7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의 디지털화 작업을 마치고 10만 8천여種의 논문을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서비스방식 : 인터넷 무료 서비스

링크주소 : http://res4.nlc.gov.cn/index_lw.jsp?channelid=75008

(7) 民國자료 DB



民國도서와 간행물은 중국국가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있는 소장문헌' 중 하나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은 이들 자료의 장기보존과 광범위한 이용을 위해 2003년부터 民國문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2008년말까지 민국도서 PDF 11,259종, 12,075책, 민국간행물 PDF 4,535종, 민국법률 PDF 10,336편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했다. 그중 민국도서 8,172종, 8,884책, 민국간행물 4,329種, 민국법률관련문헌 8,112편을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서비스방식 : 인터넷 무료 서비스

링크주소 : http://res4.nlc.gov.cn/index_mg.jsp?channelid=75011

(8) 인터넷정보 수집 및 보존

중국국가도서관은 2003년부터 중문사이트 자료의 장기 보존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중국학·올림픽·항공우주·신농촌건설·비물질문화유산 등 전문사이트, 정부사이트, 중문 PDF신문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고, 이 작업과 관련한 '인터넷정보 수집정책'을 마련하였다. 2008년말까지 39개 전문주제, 8만개 정부사이트, 291종의 중문

신문 수집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주제 사이트 36개, 전체 정부사이트, 중문 신문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서비스방식 : 인터넷 무료 서비스
링크주소 : http://webarchive.nlc.gov.cn/

2. 중국국가도서관의 디지털화 서비스

2.1 기초인프라 구축

중국국가도서관은 WA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1GB 네트워크을 실현하였고, LA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10GB 네트워크을 실현하였다. 또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IPv6을 위한 광섬유케이블 부설작업도 마쳤다. 수준 높은 네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Multimedia Streaming), 화상회의 등과 같이 용량이 비교적 큰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도서관 신관에서는 어디서든 무선랜(WLAN)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네트워크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2 디지털정보 취득 서비스

2.2.1 자료서비스 환경 개선

(1) 'WenJin(원진 文津)' 문헌정보 검색 서비스

2006년 5월 중국국가도서관은 자체구입한 디지털자료와 자체구축한 디지털자료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자료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08년에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WenJin(원진)' 문헌정보 검색시스템을 개통하였다. 'WenJin(원진)' 문헌정보 검색시스템은 중국국가도서관의 '공공자원 서비스 플랫폼'으로 우리관의 구입자료 및 OPAC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합시키고,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과의 연동을 실현시키며, Open Access를 통한 정보에 대한 무제한 링크를 구현함으로써 館내외 자료 및 정보의 상호연동과 일괄검색을 가능하게 했다.

링크주소 : http://dportal.nlc.gov.cn:8332/nlcdrss/database/sjk_xkfl.

(2) Web 2.0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 서비스

2007년, 중국국가도서관은 RSS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도서관 'Tool Bar'를 제작하였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우선 중국국가도서관 소식, 역사상의 오늘, 문화포커스, 업계동향, 관내 강좌 및 교육 등 5대 RSS내용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 중국국가도서관 메인 페이지의 각종 정보를 통합·안내한다. 셋째,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웹검색(Google), 바이두(Baidu) 및 중국국가도서관 장서검색(書目查詢), 간행물검색, DB검색 등 도서관 관련 검색을 통합해 준다.

(3) '디지털 공유 zone' 운영

중국국가도서관 북구(北區)에는 이용자들을 위해 524대의 컴퓨터를 마련하였다. 그 중 288대는 열람실, 학술교류 zone 등 여러 구역에 분산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36대는 총면적이 1049m² 에 달하는 '데이터 공유 zone'에 설치되어 있다. '데이터 공유 zone'은 인터넷 학습 zone, 디지털 과학 zone, 스페셜 서비스 zone, 전자상거래 zone, 인터넷 교류 zone, 미디어센터·공유자원 체험 zone 등 멀티기능 zone으로 나뉘어 있어 이용자에게 '디지털화, 네트워화, 커뮤니티화, 지식화, 개성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즐겁게 체험하는' 지식공유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디지털 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외에, 멀티미디어 및 VOD 서비스, e-book 단말기 대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이용자 정보소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2 자료 서비스 방법 개선

(1) 터치스크린 자료 열람 서비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 북구(北區)에는 '멀티미디어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구독량이 많은 10대 신문의 기사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150종에 달하는 전자신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들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당일 혹은 과거의 신문기사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확대 혹은 축소해서 볼 수도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중국국가도서

관내 소장중인 자치통감(資治通鑑), 돈황유서(敦煌遺書), 갑골, 사고전서(四庫全書), 영락대전(永樂大典), 조성금장(趙城金藏) 등 古書 진귀본을 열람할 수도 있고, 링크 기능을 통해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2) 시각장애인 디지털도서관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정보화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국국가도서관은 중국장애인연합회 정보센터·중국시각장애인출판사와 공동으로 '중국시각장애인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고 2008년9월9일에 시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개방적이고 평등한 정보지식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시각장애인 디지털도서관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뉴스, e-북, 음악감상, mp3, 최신소식, 이용자안내 등 10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중국고대전적(典籍) 209부와 종교철학·사회과학·정치법률·군사·경제·문학·역사지리·보건위생 등 분야의 현대서적 206권, 음악 923곡, 강좌 378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는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에 따라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웹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XHTML1.0 표준규격에 부합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3) e-book 단말기 대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중국국가도서관 북구(北區)에서는 80여대의 e-book단말기(대당 500권의 e-book 수록)를 구비하여 이용자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이용자는 개인의 독서취향에 따라 중국국가도서관 e-book 정보 플랫폼을 통해 e-book을 다운로드하거나 대출받아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읽을 수 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e-book은 31만種, 62만冊에 달하고 연감은 천여種에 이르는데 서비스 가능 e-book의 양은 점차 많아지게 될 것이다.

(4) 디지털TV 서비스

유선TV 시청자들이 중국국가도서관의 자료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베이징의 300만 디지털TV 시청자들에게 중국국가도서관의 자료나 서비스를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Wenjin(원진)강좌'·'추천 출판물'·'진귀본'·'도해(圖解)백과'·'아동도서' 등의 코너를 통해 다채롭고 특색 있는 내용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는 '도서대여'라는 'IP포털'을 통해 더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손안의 도서관' 서비스

2007년부터 핸드폰을 매개로 시행하고 있는 '중국국가도서관 모바일서비스－손안의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언제나' 이용 가능한 '휴대형 도서관'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디지털 도서관, 문자서비스,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 모바일열람과 중국국가도서관 로밍' 등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이용자는 '손안의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중국국가도서관에 관련된 기본정보·강좌·전시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장서목록, 소장자료 및 'Wenjin(원진)도서상' 응모 도서 등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 대여상태나 대여연장 도서를 조회할 수도 있고 중국국가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 디지털자료나 일부 e-book과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다. 중국국가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관련 서비스 이용시 현지 모바일업체에 GPRS이용료와 문자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6) 웹상 등록 서비스

중국국가도서관 이용자 관리시스템은 이용자 등록·인증·관리를 일원화한 '이용자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국가도서관 이용자 사이버카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실물 이용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시스템은 이용 시스템이나 이용분야에 관계없이 통합적인

개인정보 관리 및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하나의 응용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나면 다른 응용시스템과 상호인증을 하게 되므로 이용자의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자료 및 정보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서관의 서비스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도서관 이용률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디지털자료의 구축과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시도

중국국가도서관은 디지털자료의 구축과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3.1 자동편목(編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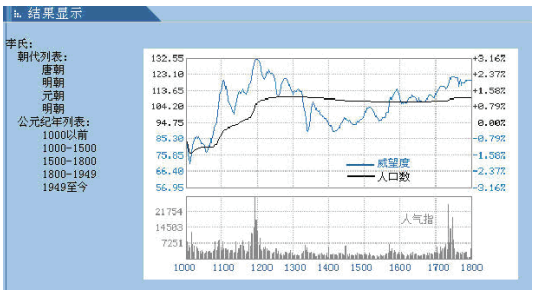
중국국가도서관은 TF를 구성하여 웹상에서 수집한 정보와 e-book, 전자간행물, 학위논문 등 '디지털자료의 자동편목(編目)'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3.2 지식발굴

중국국가도서관은 베이징대학, 우한대학 등 교육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지식'을 도서관 디지털자료 서비스 영역으로 영입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베이징지방지(地方志), 디지털족보를 대상으로 연구중이며 족보정보관리 시스템에 어떤 집안의 근원, 이동경로 및 흥망성쇠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지방지와 디지털족보를 '가시화, 지식화'할 수 있는 구현 방식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험중인 '개인집안의 이동경로'분석圖

실험중인 '개인집안의 흥망성쇠'분석圖



3.3 중국古書 善本書目 가이드

중국국가도서관과 베이징대학이 공동개발한 '古書善本書目 가이드'시스템은 2006년12월부터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기존 古書善本書目 데이터와 소장지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중국국가도서관은 향후 베이징대학과 공동으로 특정 인물, 활동, 시간 및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4. 디지털자료 구축 및 서비스 관련 협력

4.1 세계디지털도서관

2008년 11월 16일 중국국가도서관과 미국국회도서관은 '세계디지털도서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국가도서관은 관내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문화를 대표할만한 디지털자료 및 정보를 세계디지털도서관 웹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전세계 이용자가 자국 언어로 편리하게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국 이용자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 중문으로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중국국가도서관은 20여개의 디지털화에 성공한 특별소장자료를 제공하였다.

4.2 중문 PDF / 영상자료

중국국가도서관 특별소장자료 중 하나인 족보 약 3,800여種을 소장하고 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국내외 기관의 족보 디지털화작업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2009년 3월 8일 마카오기금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중화인 뿌리찾기 사이트' 구축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이며, 1期 목표는 '족보 디지털화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500개 이상의 姓氏, 2만개 이상의 족보書目 가이드 데이터, 1천부 이상의 족보문헌을 제공하는 것이다.

4.3 해외中華善本 반환 프로젝트

주지하다시피 수백만에 달하는 많은 중국 전적(典籍)이 해외로 유실되었다. 유실된 전적(典籍)은 갑골문 서간, 敦煌유서, 宋元선본, 明淸정참, 탁본/지도, 소수민족 문헌 등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데 주로 구미유럽 등 선진국의 소장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古書원본의 환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국가도서관은 '디지털방식'을 이용한 '해외 中華善本 반환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中華典籍(중국 소수민족 전적 포함) 조사, 장서목록 편찬, 中華典籍 해외보존 현황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복제 및 복원을 위한 中華典籍 해외 분포현황 및 수량 파악 등이 활동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소실된 中華典籍의 복제 및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하고, 웹사이트 상에 '중화디지털 典籍문고'를 개설하며 해외에 유실된 희귀善本을 복제하여 전세계 이용자들이 5천년 역사에 빛나는 중화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은 대영도서관과 공동으로 각자 소장하고 있는 돈황문헌을 디지털화한 후 교환하는 '디지털 돈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국으로 유실된 돈황문헌을 점진적으로 반환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한국 국립도서관, '아시아도서관'과 함께 '세계디지털도서관'을 모델삼아 '디지털자료 및 정보 구축 및 서비스'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확대하여 아시아지역 디지털자원을 함께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자료는 2009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속초 설악켄싱턴스타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제3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 내용을 일부 수록한 것이다.

기조연설

위기의 시대 도서관의 역할

팻 스캘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관협회인 "미국도서관협회"를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주된 목표는 도서관과 도서관 교육을 국제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65,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 조직이 주창하는 바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의 참여 또한 환영합니다.

미국 최초의 공공 도서관은 1800년대에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작은 마을이나 도시조차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위기는 도서관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시기에 도서관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는 우리의 서비스가 우리 사용자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청원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미국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와 연관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실제적인 데이터는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도서관 지원을 청원할 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사립도서관에서 조차 임원진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할 때는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 해주는 통계 수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어린이도서관협회장

2008년 미국인의 삶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져갔으며 국가 경제의 침체와 이런 국가 위기의 시기에 효과적인 도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원을 찾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은 엄청난 증가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여론 조사의 하나인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제공한 작년 9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중 68%가 도서관 대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6년에 비해 5%나 증가한 것이라 합니다. 설문조사 이전 일년 동안 지역내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미국인은 76%로 2년전 같은 시기에 조사된 66%에 비해 직접 방문자가 10%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온라인 자료의 사용은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 도서관 대출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 중 지역도서관 웹사이트를 방문자는 2006년에 조사된 24%에 비해 41%로 증가했습니다.

도서관은 평상시에도 우수한 지역 사회 자원이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거대한 금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 도서관 협회 회장, Jim Rettig는 "경기 불황의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가정들이 공공도서관같이 친숙한 장소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나라 전체가 갑작스럽고 부조화스러운 경기침체의 경험을 계속하면서, 지역 도서관들은 이런 불확실성속에서도 모든 연령층을 도울 수 있는 무료 도구나 설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더, 도서관들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중하고 믿음직한 지역사회의 동반자임을 입증하고 있다."라 말한 바 있습니다.

Rettig는 또한 도서관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가 일자리와 연관된 활동에 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도서관들의 3/4 정도가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일자리 찾기 방법과 표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법등과 같은 정보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 시에 고객들이 일자리 찾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뿐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도 도서관의 이용 급증 동향을 인식하고 이를 뉴스화 하기도 했습니다. 1월 3일 보스톤 글로브 지의 칼럼니스트 Derrick Z. Jackson은 전국 공립 도서관이 대출과 새로운 도서관 카드 신청에 있어 두 자리 숫자의 증

가를 보이고 있었음을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Jim Carlton은 2009년 1월 15일자 기사에서 갓 실직한 사람들이 구인광고를 훑어보고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각 지관에 모여들어 지난 해에 비해 도서관 출입율이 전국적으로 65%이상 비약했음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2월 2일 CBS 저녁 뉴스는 2008년에 1800만명이 LA 공공도서관을 출입했으며 이는 2007년보다 200만명이 증가한 추세라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 실직했으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 비어있는 컴퓨터 단말기 없이 모든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서는 직업 상담가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2월 28일 *워싱턴 포스트*가 "삼남매 중 장남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면서 그녀 자신은 취업정보를 찾기 위해서 지역내 공공 도서관들을 전전해야 한다."는 D.C. 거주자 Judith Theodore의 취재 기사를 내보내면서 매스컴의 보도는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국영 라디오 방송은 "도서관의 새로운 뉴스는? 재정적 조언"이라는 이름의 방송을 내보냈으며, CNN은 "이력서 작성 워크샵이나 저당물 소유권 관련 세미나 등을 포함한 무료 인터넷 접속에 덧붙여 전국 도서관 서비스 이용률은 극적인 증가를 보여왔다."는 취재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위한 공공 자금은 이용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고, 국가 경제 위기가 더욱 확실해지면서 2009년에는 약간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거나 삭감이 많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이제는 오히려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8년 말 주립 도서관 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내년 공공 도서관 재정지원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삭감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습니다.

> *미 도서관 협회 전무이사인 Keith Michel Fiels의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목소리 높여 우리의 주장을 말하고 대중에게 도서관 편에 서서 도서관을 옹호해달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만 합니다"*

지역이나 주정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청원운동 시 우리가 가진 공개 자료를 전

달해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미 도서관 협회 워싱턴 지부는 도서관 지역사회의 핵심 이슈들과 근심 사안들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는 "*더욱 더 거대한 세계로의 창문*" : *변화의 미국에서 도서관의 역할 개방에 대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12월 17일 오바마-바이든 정부 인수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알려드리면, 정부는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 부양책에 도서관을 포함시켰습니다. 한 예로 도서관들은 공공 컴퓨터 수용량 확장을 위한 2억 달러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도서관에게 있어 침체된 경제는 고통스러운 영향을 줍니다. 뉴욕의 트로이 지역을 예로 들자면, 공공도서관 분관 세 곳 중 두 곳이 2월에 문을 닫았으며 ; 도서관 인력은 정규직에 동등한 직원 기준으로 4½가 감축되었고, 책 및 물자를 위한 예산은 30%, 아동이나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60%가 삭감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도서관 매체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올 한해 동안은 2008년에 진행된 것처럼 유지됐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전국 조사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매체 교육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만이 숙련된 학교 도서관 매체 교육 전문가를 전임 직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전문가들이 센터 바깥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재정이 지방세 수익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경제 위기 하에서 서비스의 막대한 감소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립 도서관 관리기관의 책임 담당부서가 실시한 미 도서관 협회 2008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41%의 주정부가 2009년 공공도서관을 위한 주정부 재정을 삭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수요가 급상승하는데도, 이 서비스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많은 주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라는 미 도서관 협회 Jim Rettig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좋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해 하나하나가 모두 필수적인 도서관 인력배치나 공공도서관의 개방 시간에도, 장서 개발과 기술 정비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Rittig는 “실직자들의 실업수당 제출이나 일자리 찾기 활동을 지원하고,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제수행을 돕거나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관은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힘겨울 때 해결책의 일환이 됩니다.” 라는 말 또한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 한가운데서, 140만 달러 가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미 도서관 협회 공개 프로그램 사무국의 12월 발표에 따르면 450명 이상의 개인과 법인 후원자가 도서관을 위해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문화적 공동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부금 캠페인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문화적 공동체 기금에서 조성된 자금은 사서를 위한 연례 직업 개발 연수의 기회, 국가 모형 프로그램의 창출, 지역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계획된 자원을 보충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이 기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도서관 대출 카드 이용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2008년의 미국 도서관은 대출 카드 등록에 있어 놀라운 증가의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arris Interactive社가 제공한 해리스 조사에 따르면, 2008년 9월, 도서관 카드 등록기간 한달 동안, 2006년 이후 5% 증가한 68%의 미국 성인이 도서관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199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의 미국인이 도서관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카드 사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6년 미국도서관협회 가구 조사에 비하면, 도서관 직접방문은 10%가 증가했습니다. 2년 전 65.7%였던 것에 비해, 조사 직전 해에는 76%의 미국인이 자신의 지역 공공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온라인 방문은 더욱 커다란 증가를 보여서 2006년에 23.6%였던 것이 조사 직전 해에는 41%의 도서관 카드 소지자가 자신의 지역 도서관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온라인 과제 지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오디오나 비디오, 그리고 전자서적 등을 포함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를 눈에 띄게 증가해 왔음을 밝혀내 공공에 알린

미 도서관 협회의 2008년 공공 도서관 재정 & 기술 접근 연구에 그 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에서 발견된 내용을 보면 특정 그룹의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카드 소지자에 비해 더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남성은 62%만이 도서관 카드를 소지한 반면, 여성은 73%가 도서관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사는 또한 카드 소지자의 39%가 책 대출을 ; 12%는 CD나 비디오,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 10%는 도서관 소장사항을 보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 9%는 참고 자료를 이용 ; 그리고 8%는 인터넷 접속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조사 응답자(92%)가 자신의 지역 도서관을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서 보고 있다고 응답 했습니다. 10명중 7명이 자신의 지역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기둥(72%), 지역 회관(71%), 가족 행선지(70%), 및 문화 센터(69%)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해리스 투표는 2008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2,710명이 참가해 온라인으로 시행된 조사입니다.

박물관·도서관 정보 서비스 기구(IMLS)가 시행한 또 다른 투표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 2006년에 공공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진 업무처리 건수는 책이나 다른 인쇄 자료 그리고 오디오/비디오 자원 등을 모두 포함해 총 21억 건에 달했다. 이는 도서관 업무 지역 내 거주하는 각 개인에게 평균 7.3 건이 제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인의 97%가 도서관 업무 지역 안에서 거주한다.)
- 2006년 14억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으며 이는 도서관 업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거의 5번 방문한 수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 아동은 공공 도서관 자원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 중 한 부류이다. 2006년 총 대출 처리의 35%가 아동 자료들에 해당되었으며, 5780만이 도서관 제공 아동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 2006년 도서관은 8억 720만권의 인쇄자료, 4,260만 오디오 자료, 4,390만 비디오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전국적으로 공공 인터넷 단말기 사용은 3억 3,400만 건수에 달했다.

박물관·도서관 정보 서비스 기구의 디렉터인 Anne-Imelda M. Radice는 "이 보고는 공공도서관이 미국에서 가진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나 어려운 경제 시기에 공공도서관은 필수적인 지역사회 자원이다. 이 조사는 지역사회,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과 실행 결정을 알리는데 뒷받침할 탄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말로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용 증가가 도서관 기금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2008년 초에 시작된 경제 불황이 도서관의 대중적 이용 증가에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몇몇 긍정적인 동향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미 도서관 협회의 도서관 활동 사무국(Office for Library Advocacy, OLA)이 도서관 재정에 관해 수집된 다량의 정보에 의하면, 작업 시간, 인력 배치, 장서 및 수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시설 확장/증진에 영향을 줄 재정 삭감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 정부들 중 40%가 2009년 공공 도서관을 위한 주 재정 지원의 삭감을, 이 주 정부들 중 20%는 예산 삭감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 예측한다고 합니다.

기 술

기술은 정보 기술의 수요와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점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공공도서관은 사용허가(라이센스가 있는) 자원들을 포함해 과제와 교육 지원이나 훈련, 그리고 전자정부 접속 보조 등 광범위한 서비스와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도서관의 대다수는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목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개인화된 이용자 계정 및 온라인 참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도서관이 행사 일정표를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링크, 아동·청소년 페이지, 직원들이 만든 페이지, 도서관 친구들의 감사인사 페이지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조금 높은 비율의 수치로 보입니다.

기술 서비스 분야를 보면, 응답한 도서관의 89%가 관내에 Wi Fi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44%가 현지에서 디지털화한 장서 접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60%)는 온라인 채팅 및 즉석 메시지에 이어 전자 우편을 통한 참고봉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매체 프로그램 또한 과거 십 년 동안 기술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학교 도서관 매체 센터에서와 학교 전체 둘 다에 걸쳐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는 도서관 목록,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에 존재한 방대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자원은 매체 프로그램의 벽을 넘어 학교 내 모든 교실, 실험실 및 사무실로 그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원격 접속은 학생과 교사가 가정에서 이 자원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다른 발견

- 전자책은 책, 교과서, 참고서적 (사전, 백과사전, 지도), 정기간행물과 같은 인쇄물자와 함께 학생들이 인지하는 가장 믿을만한 자원으로 꼽고 있다.
- 구글과 다른 검색엔진들은 학생들이 연구를 하거나 수업 과제를 끝마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다른 우수 자원으로는 전자책, 인쇄 책자, 온라인 사전, 백과사전과 지도, 위키피디아 같은 전자참고서적 자원들이 포함된다.
- 학생의 57%가 정보활용능력의 안내사항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38%는 다소 중요하다, 그리고 5%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킹 (소셜 네트워킹)

사회적 네트워킹 - 관심사와 활동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활동 탐구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온라인 공동체는 - 도서관 컴퓨터 사용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네트워킹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가상 세계 (예를 들어 Second Life), 학교 및 교과과정.
- 기존 유명 사이트 (예를 들어 My Space, Facebook 및 Twitter).
- 상호 협력 도구 (예를 들어 Wikipedia의 wikis, Google Documents의 editors, Library Thing의 social libraries)
- 공개토론이나 게시판, 채팅, 문자메시지와 즉석 메시지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형태

게 임

게임은 사회적 네트워킹의 또 다른 형태로,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National Gaming Day @Your Library(당신의 도서관에서 치르는 전국 게임의 날) 행사의 성공에 의해 입증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게임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십대를 위한 여름 독해력 프로그램하고도 이어져 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 참가자들과 더불어 도서관의 명성이 향상된다.
- 게임 프로그램에 참가 후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비 게임 서비스로 돌아오게 된다.
- 이용자들이 게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중에 또한 다른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미 도서관 협회 회장인 Rettig의 말처럼 “더 많은 사회적 비디오 게임과 보드 게임들이 소개되면서, 도서관들은 이용자를 위한 현대적 교육 기회를 만들고 증진시키기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족 전체를 위한 지역 문화 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 도서관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도서관이던 그렇지 않은 도서관이던 간에 도서관 세계에서 이동도서관 서비스 차량의 수는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학교, 상점가, 인근, 노인 가정, 성인 교육 센터, 아동 복지 시설, 병원 및 교도소들을 방문합니다. 이동도서관의 이용은 현 경제 하락과 함께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으며, 이동도서관은 때로 당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일박 이상이 필수적인) 그런 외진 장소로까지 순회하곤 합니다. 이 이동도서관의 대부분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합니다.

도서관이 확장하는 다른 서비스

많은 도서관은 현 경제상황이 부가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더욱 촉구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예로, 뉴욕의 한 도서관 시스템은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방암 진단 X선 검사와 같은 건강검진을 제공하기 위해 한 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이동 건강 검진소에는 엑스레이 장비와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며 도서관이 통역자를 제공합니다.

많은 도서관들은 십대 어머니들에게 육아법 워크숍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책 토론 그룹이 있고, 몇몇 도서관은 예술사에서부터 인터넷 사용법까지에 걸쳐서 수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미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 서비스 마케팅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협회가 한발 더 앞서나가 도서관 지지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도서관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린 통계 정보는 도서관에 대한 대중의 필요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에서 수집되었지만, 이 조사의 결과는 세계 모든 나라의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으로 해석됩니다. 도서관 기금 마련이나 심지어 도서관

프로그램의 정의조차 전세계가 다양할 수 있지만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세계적인 것이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는 도서관인 것 입니다.

저는 이만 미국인 작가이며 역사학자인 Barbara Tuchman을 말을 인용하며 말을 맺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닫혀져 있는 문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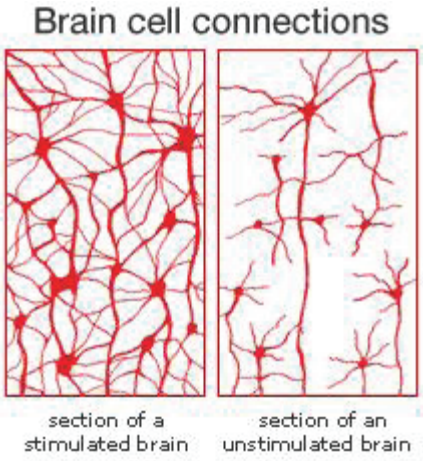
저희가 도서관 문을 계속 열어놓고자 세계적인 노력을 맹세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십시오. 그 어느 때 보다 더,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린 도서관 문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 입니다.

유아와 영아를 위한 도서관 업무 확장

헬가 호프만*

최근의 연구들은 독자로서 학생의 발달과 이후 그들의 학문적 성공에 있어 조기 문해 교육 증진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결과로 독일 도서관은 독서 증진 분야에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6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

1. 초기 언어와 문학의 발달



오랫동안 도서관은 취학 전 아동들에게 있어서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특별 프로그램들을 시작해왔다.

그 사이 많은 학문 연구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조기 독서가 아동발달에 중요하고, 아주 초기에서부터 책을 읽는 것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에게 독서의 중요성은 연대감과 안도감에서 부터…독서 학습에 까지…그리고 장래 학문적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아동 발달적, 감성적 그리고 학습적 문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사서

예를 들어, 2008년에 출판된 “유년시절의 질병 보관소”[1], 라는 평론에 따르면 유아들은 부모가 집에서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면 학교 생활에 더욱 잘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책과 독서의 긴밀하고 상냥한 동행이 소개되면서, 그들은 언어나 문해 교육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독서애를 더욱 더 발달시키고 싶어했다. 더불어, 이 연구는 독서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과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두뇌 구조는 부분적으로만 유전학적으로 결정되며 초기 경험들이 미래의 학습에 필요한 신경학적 통로(시냅시스)의 숫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학술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2]. 이 통로들은 아동의 감각을 활성화하는 세포 사이에서 발달된다. 태어나서 50조 이던 시냅시스는 8세가 될 때까지 대략1,000조로, 20배 늘어난다 - 주로 경험과 외부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험이나 적절한 자극의 부재는 아동발달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이미 5세의 나이에, 인간의 두뇌는 미개발된 신경학적 통로들과 함께 세포증식을 시작한다. “쓰지 않으면 녹슨다(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중요한 것은, 최적 발달을 위한 “기회의 창”이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창에서 성장하는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언어를 쓰는 가족의 아이들은 언어습득에 있어 “최적기”인, 3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 시절에 거의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도 두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영유아들이 자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른들과 함께 하는 경험은 언어나 읽기, 쓰기의 발달에 있어 기본이 된다. 아이들이 정규 학교 교육과정 이전에 언어와 문학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면, 그들은 독서 성공에 있어 남들보다 더 잘 준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은 조기 문해 교육과 사전 독서 기술의 습득과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1)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08/05/080512191126.htm (26/04/2009)
2) Graphics : http://www.state.lib.la.us/empowerlibrary/Early%20Literacy--Brief1.pdf (26/04/2009)

이 사전 독서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 사물의 이름을 인지하는 등과 같은 어휘력. 이는 아동들의 독서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3,000개 에서 5,000 개 사이의 단어를 인지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 책에 흥미를 가지고 즐기는 등의 인쇄물에 대한 학습의욕. 인쇄물에 대한 학습의욕이 있는 학생은 책을 가지고 놀이를 하며, 쓰는 척 하고, 책을 읽는 것을 사랑하고 어린이 도서관에 찾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 인쇄물에 집중하거나, 책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페이지 안의 철자들을 따라가는 방법을 아는 등 인쇄물 자체에 대한 인식. 여기에는 상하좌우(우리의 문화에서)의 흐름과 같은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 적어 내려갈 수 있음을 포함한다. 인쇄물 인식이 있는 아이는 책 속의 철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다.
- 이야기를 전달하고 사물과 사건을 서술하는 등의 서술 능력. 서술 능력이 발달된 아이는 도서관에 찾아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더라 같은 말하기가 가능하다.
- 활자들은 서로서로 다르고, 각각의 이름이 있으며, 특정 활자는 특정한 소리가 난다는 지식 등과 같은 활자에 대한 지식. 활자 지식에 대한 예는 B라는 활자의 이름을 말하고 이 활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아이의 능력이다.
- 낱말 속의 작은 소리를 듣고 조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음운론 인식. 이는 음운을 듣고 만들어 내거나, 소리를 가지고 낱말을 만들어내거나, 소리나 두 낱말을 합쳐 하나의 낱말을 말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읽기를 힘겨워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음운론적 인식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생 첫해의 중요성에 주목해 보면, 유아들에게 새로운 의미는 책과 이야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다. 나이에 적절한 도서관 경험들은 직접적으로는 이 나이 또래 집단을 위한 독서 자료집이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시키고 지역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이 발달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사서들은 다양한 단계의 초기 문해 능력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 영아, 유아나 미취학아동이 무엇을 이해하고 각각의 연령 단계들에서 읽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1.1 영아기(0-12개월)

1.1.1 0-6개월

가장 먼저 아이들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및 미각 같이 그들의 감각을 통해 세계를 경험해야만 한다. 아기들은 보고, 만지고, 입안에 집어넣을 것들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시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그들과 함께 독서를 시작해주는 어른들 또한 필요하다.

신생아들은 4주차에 벌써 얼굴을 맞닿는 것을 선호하며, 가족 구성원의 확대 사진이나 잡지에 사진이 들어있는 페이지들은 최초로 함께하는 "독서" 경험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연구들은 말하고 있다.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해 유아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최초의 "책"들이 읽혀지는 방법이다. 어린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8에서 12인치이기 때문에, 유아의 얼굴에서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책을 보여줘야 한다.

이 연령에 적합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 밝은 색채를 사용한 간단하며, 커다란 그림이나 디자인을 가진 책
- 뻣뻣한 마분지 책 또는 어린이 침대 위로 걸쳐놓을 수 있는 병풍형 책
- 사람이나 친숙한 사물의 그림이 들어 있는 욕실에 가지고 가거나 젖어도 괜찮은 옷감이나 부드러운 비닐로 만들어진 책

1.1.2 6-12개월

6개월 된 유아는 책의 낱장을 건드리거나 치는 등 그림책 "독서"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 할 수 있다. 그들은 아직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많은 소리들로 실험을 한다. 그들에게 말하거나 읽어줄 때, 어른들은 그 유아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아기들이 듣는 동안에 반응하는 어른의 얼굴 표정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아이들의 독해력 때문에 그림책 읽기는 오래 한번 하는 것보다는 짧게 자주하는 해주는 것이 좋다. 반복은

유아가 그림을 인식하고 초기 언어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돕는 핵심요소이다.

9개월에서 12개월의 유아들은 낱말(예를 들어 수용언어 같은)을 이해하는데 증진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략 12개월이 되면 몇몇 그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부터 독자와 아이 사이의 대화는 확장 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이게 뭐지?"라 질문하고, 유아가 대답하도록 격려하기를 반복해 주는 것이다. 또 다시 반복은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유아들은 머지않아 그들이 마음에 드는 최초의 그림책을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그 책을 몇번이고 읽어달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 연령에 적합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 얼굴 사진이나 다른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보드북
- 만지거나 맛볼 수 있게 돼있는 밝은 색깔의 짜리몽땅한 책
- 공이나 병 같은 친숙한 물건의 사진이 들어있는 책
- 어린이 침대나 담요 위에 펼쳐놓거나 병풍처럼 걸쳐 놓을 수 있도록 낱장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책
- 목욕 시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비닐 책
- 껴안거나 물어뜯어도 괜찮도록 세탁 가능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책
- 가족과 친구들의 작은 플라스틱 사진 앨범

1.2 유아기(1-3세)

1.2.1 1-2세

12개월에서 15개월의 유아는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제스츄어(표현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어른들은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노래하고 읽어주면서 그들의 어휘에 반응해주고 성장하도록 격려해 주어야만 한다.

유아들은 2세가 되면 커다란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어른들의 언어를 모방할 수 있고, 많은 낱말들과 명령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책에서 친숙한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독서를 해왔던 어린 유아들은 책의 낱장을 넘겨가며 자신들 스스로

“읽기”를 시작한다. 이때 그들은 책은 큰소리로 읽거나 다른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또한 책 안의 물체들은 실생활의 사물이나 장소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 연령에 적합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 갖고 돌아 다닐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진 보드북
- 자거나 놀이를 하는 등 친숙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책
- 잠자리를 위해 침대 맡에서 읽어줄 만한 책
-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것에 대한 책
- 각 페이지에 약간의 낱말만을 가지고 있는 책
- 간단한 음운이나 예측 가능한 문구들이 담긴 책
- 모든 크기와 형태의 동물 책
- 소리가 나도록 만든 책

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2세까지는 독서가 아이와 어른 - 부모나 초기 어린 시절의 보호자 - 사이의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쌍방의 경험이다. 몇몇의 사례를 제외하면 이는 아직 어린이 도서관의 표준적인 그룹 경험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부모나 전문가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 앞을 내다보고 활동하는 보급자로서 활동할 것이다. 그렇지만 2세 이상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유아 그룹을 위한 최초 독서 프로그램 - 각 1인의 어른과 동반 - 이 제공될 수 있다.(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

1.2.2 2-3세

아이들은 2세가 되는 시기에 300-500단어를 이해하게 되고 매일 두 세 단어의 능동태를, 여덟 개에서 열 개의 수동태 단어를 추가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 모국어의 기초 문법 구조에 익숙해지고 말하기 기능은 눈에 띄는 단계로 이르러 일상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연구들은 어휘력이 더 나은 아이들은 강하고 성공적인 독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후 그들이 쓰여진 문자를 인식하고 자신들이 읽은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이들의 책과 독서에 대한 지식은 좀더 복잡한 이해력을 포괄하도록 발달한다. 그들은 "어른" 독서 행동을 모방하고, 책을 바른 방법으로 잡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낱말과 사진을 모두 보고, 종종 그들 자신의 단어들을 사용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한다. 이는 이후 독서 과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술들이다.

이 연령에 적합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 간단한 이야기를 말하는 책
- 그들이 암기하기 좋은 간단한 음운을 가진 책
- 잠자리에서 읽어줄 만한 이야기책
- 숫자를 세거나, 숫자, 모양, 크기에 대한 책
- 동물, 자동차, 놀이시간에 대한 책
- 그들이 좋아하는 TV 캐릭터가 들어있는 책
- 노래 책
- 소리가 나도록 만든 책

1.3 유치원과 미취학 아동(4-6세)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보통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반복적으로 읽어달라고 한다. 그들은 독자가 한 페이지 또는 한 줄을 건너뛰면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그 책들에 점점 더 친숙해진다. 이러한 문구나 책의 "예측가능성"은 독서 과정 이해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1.3.1 4-5세

아이들의 발달은 우리의 미디어 사회에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미디어의 존재는 독서 학습 과정 또한 변화시킨다. 4세 또는 5세의 아이들 중에 멀티미디어 경험(TV, CD, 카세트, 비디오, DVD, 컴퓨터, CD-ROM...)이 없는 아이는 거의 없다. 우리의 풍부한 미디어 선택은 아이들이 더 나은 독자로서 발달하는데 자원이 되고 또한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DVD를 보거나 CD를 듣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욱 쉽고 편안한 것일 수 있다 - 그리고 어른의 참여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부모나 보호자 등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독서하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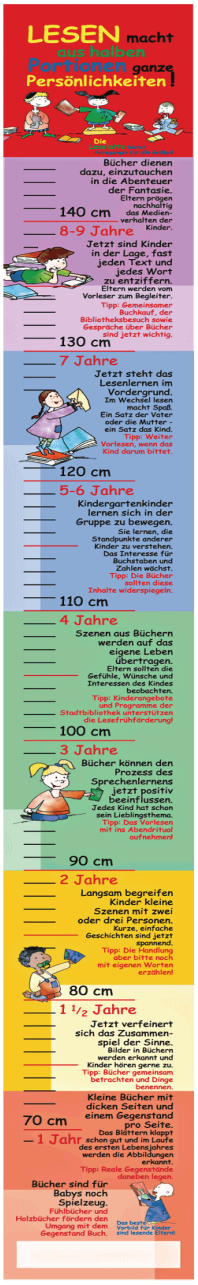
보여주거나, 읽어주기를 지속해서 멋진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4세의 아이들은 아동극단이나 도서관 독서 상황 같이 대략 30분 정도 조용히 경청하고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1.3.2 5-6세

취학전 아동의 시기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점점 페이지 안에 인쇄된 것들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글자와 그림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몇몇 글자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인쇄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어 단어의 의미를 질문할 수도 있다.

취학전 아동들은 어른들의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책과 잡지를 사용한다. 보통 그들은 책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다양한 문구와 삽화를 이해한다. 그들은 또한 종이, 가위, 풀과 크레용을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규칙적이고 즐거운 일과가 된다.



독일어 버전의 독서 사다리

2. 독일에서의 발달, 선정사례들

2.1 역할 모델 "북스타트" (영국)

영국에서 비롯된 북스타트 캠페인은 종합적, 효과적이며 항구적인 아주 우수한 조기 문해 교육 창안 사례이다. 이 캠페인은 1992년 독립적 국가 자선단체인 북트러스트[3]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최초의 국가적 영유아 도서 기부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내포된 아이디어는 책과 독서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데 시기상조란 결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관 담당자들은 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 자료들과 함께 모

3) http://www.booktrust.org.uk

든 아기들에게 무료로 책 한 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교육당국과 의료 서비스를 연결시켰다. 주로 아기의 7-9개월 검진 때 가족에게 전해지는 북스타트 세트는 보드 북 두 권이 든 큰 가방과, 동요 전집 하나,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지도 자료들, 도서관에 대한 정보와 안내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스타트가 상당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우리는 독서 습관에 관한 프로그램의 영향, 독서와 독서 관련 활동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연구를 알게 되었다. 북스타트[4]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도서 구입,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했다
- 아이들이 책을 즐기고 도서관을 방문할 확률이 높다
-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확률이 높다
- 초등학교의 교육적 수준이 증진되었다

2.2 독일에서의 "북스타트" 후속 프로젝트 - 공공 도서관

북스타트의 오랜 경험과 성공 덕분에 북스타트는 전세계적인 역할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2.2.1 Brilon 공공 도서관

독일에서 최초로 북스타트를 실행한 공공도서관 중 한 곳은 Brilon 공공도서관이다. 2006년 이 도서관은 지역 병원, 소아과 의사, 유치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시작했다. 독서애를 생성하고 자극하며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초보 엄마들은 소위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사다리"라 불리는 두 개의 무료 책 꾸러미를 받게 된다. 첫 번째 꾸러미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병원에서 받는다. 두 번째 꾸러미는 2세 때 소아과 의사한테 받게 된다.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이 "독서 사다리"[5] 특징적인 기능이 있다. 0에서 10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이 측정 막대는 많은 어린이들의 방 뿐만 아니라 의사나 언어치료사 대기실, 유치원,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 장소에도 진열된다. 그 사다리는 부모가 자기 아이들의 조기 문해 교육을 격려하는 방법, 무엇을 읽으

4) http://www.booktrust.org.uk/show/feature/search/Bookstart-research
5) http://www.leselatte.de, http://www.buecherbabys.de는

며, 도서관 방문시기는 언제이며, 도서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제공한다. 딱딱한 플라스틱과 마분지 두 가지 형태로 사용가능하며 독어에서 아랍어, 중국어 (진행중), 네덜란드어, 영어, 불어, 이태리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웨덴어와 터키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다른 도서관들이 조기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 나갔으며 또한 그 사이 도서관 집단은 그들의 활동 범위를 현저히 넓혀 나갔다.

Würzburg[6] 공공도서관과 Hamm[7] 공공도서관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들이 그 두 사례이다.

- Würzburg 지역의 어머니와 그들의 아이들은 “Babies Love Book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주 마다 도서관은 갓난애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들려주기, 놀이, 노래 부르기 행사를 진행한다.
- Hamm 공공도서관은 “Books for Babie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역 출생 신고 사무소에 신생아가 등록될 때, 모든 부모들은 “독서 소책자”를 건네 받는다. 여기에는 목욕할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세탁 가능한 비닐로 만든 책 한 권,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9개 언어로 번역된 정보전단 하나, 지역 은행이 후원한 1일 도서관 이용 상품권 하나가 들어있다.

2.2.2 “북스타트” 후속 프로젝트 - Stiftung Lesen(독서 협회)

공공도서관이 주로 지역적인 수준에 집중한 반면, 독일 “Stiftung Lesen (독서 협회)[8]”는 활동적 독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적 기관이다. 1988년 이래로, 이 문화적 비영리 재단은 독서 문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행해 왔다.

재단이 의도한 바는 다음과 같다.

- 아이들에게 우리의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독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6) http://www.stadtbuecherei-wuerzburg.de
7) http://www.hamm.de/stadtbuecherei.html
8) http://www.stiftunglesen.de

- 부모, 교육자, 교사, 사서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독서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반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 독서 연구와 독서 증진의 활기찬 상호 연계를 꾀한다.
-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킨다.

프로젝트와 캠페인들이 가장 중심에 두고 초점을 맞춘 것은 가족과 가족기관이다. 이 맥락에서, Stiftung Lesen은 이민 가족의 아이들처럼 다언어 사용 환경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별히 주목한다. 두 번째로 훈련 과정과 세미나가 실행되어 왔다. 방법론적-교훈적 지침들이나 소책자, 인터넷 등에 의해 노하우가 전승되었다. 세 번째로 - Stiftung Lesen의 자금난에 의해 초래 - 독서 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경제·정치적 의사 결정자와 함께 하는 동반자 프로젝트들을 진행시켰다. 네 번째로, Stiftung Lesen은 독서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과학활동과 연관시키고, 연구와 설문조사 등 다른 내용들도 발간한다. 마지막으로, 독서에 대한 문제는 미디어를 통한 이벤트나 캠페인으로 홍보되고 인쇄 매체와 시청각 매체 발행인들과의 제휴를 꾀한다.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이나 큰 소리로 책 읽기의 날 같은 이벤트와 미디어 캠페인은 우리의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독서 증진이라는 목적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하자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간략하게, Stiftung Lesen은 가정, 유치원, 학교를 도서관에 포함하고 통합시키는 전국적 핵심 전달자로서 활동한다. 특히 조기 문해 교육 증진 분야에서 재단(주로 전 디렉터인 Ring교수)은 독일내에서의 인식 증진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착수에 공헌한 바가 아주 크다.

2.2.3 리딩 스타트 - 독일에서의 독서 구상

2008년 6월 Stiftung Lesen은 2006년에 지역적으로 시작됐던 시범 프로젝트 "리딩 스타트 - 독일에서의 독서 구상"을 전국적인 프로젝트로 확대했다. 아주 단기간에 거의 250,000 "리딩 스타트" 세트가 전국 소아과 의사들에게 전달됐고, 부모들과 의료진 둘 다 의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든 소아과 의사의 2/3 이상이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관심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시작한지 3개월 만에 Stiftung Lesen은 거의 "매진"됐고 2차 연간 프로젝트(2009년 5월 - 2010년 6월)를 위한 예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딩 스타트 포스터

아이들의 생후 12개월 정기 검진 시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 리딩 스타트 세트를 받게 된다.

- 유명한 독일 출판사가 발행하는 최초의 보드 북
- 책 공유에 관한 안내 전단
- 도서 목록
- 최초 도서와 독서 경험(사진, 그림...)을 기록하기 위한 독서 일기
- 영유아 방에 걸어 놓을 수 있는 포스터[9]

다른 협조자들 - 정부 부처, 출판사들, 기업 및 미디어 회사등과 같은 - 과 더불어 각종 독일 도서관 조직들이 이 캠페인을 지원한다. 그들에게 있어 이 캠페인은 그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지역적인 도서관 프로젝트를 계승해 나아가는 이상적인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공 도서관이나 교회 연관 도서관들과 같은 자신들의 구성원들에게 이 캠페인을 그들의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도록 장려한다.

3.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 : 취학전(미취학 아동을 위한) 서비스

3.1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는 괴테의 도시, 대관식이 거행된 역사적 도시, 대륙에서 가장 큰 금융 중심지로서 독일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이다. 또한 그 이상으로 단어와 아이디어를 위해 좋은 장소이다. 출판사들의 존재는 이 도시의 지적인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1949년 창립된 연간 도서 박람회는 도서와 전자 미디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국적, 국제적 시장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도서관인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 학술 대학 도서관들, 독일 국립도서관 등 상당 수의 도서관이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고 있다.

9) http://pdfs.stiftunglesen.de/lesestart/poster_nat_2008.pdf

3.1.1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은 주변의 통근자, 학생, 방문자들을 합쳐 대략 67,000 도시 거주자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눈에 띄게 분산된 구조가 특징이다 :

- 2개의 중앙 도서관(음악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 "Freestyle"을 포함한 연소자용 도서관과 성인 도서관)
- 17개 도서관 분관
- 도시 전역에 걸쳐 30 군데를 도는 2개의 이동도서관
- 73개의 학교 도서관

Reading Spiral, 프랑크푸르트 도서관 독서 증진 활동의 로고와 테마

이런 구조 때문에 다양한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도서관 경영은 운영위원회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 운영위원회는 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지원을 제공하고 시스템 안에서 양질의 봉사가 제공되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책임을 맡는다. 각기 다른 강조점 중에서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 서비스와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독서 증진 활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은 "Reading Spiral" 아이디어를 따른다.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맞춰주고자 하는 이 개념은 아이 개인 - 그리고 부모, 교육자와 다른 보호자 - 가 출생을 시작으로 초기 아동기 전반에 걸쳐 그리고 학교 재학 시기 전반에 걸쳐 나이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4.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서비스

4.1 신생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매년 대략 6,500-7,000명의 아기가 태어난다. "Frankfurt Kinderbüro"[10](아동국)은 이 아기들의 부모를 돕기 위해 모든 산부인과의 조산사와

10) http://www.kinderbuero-ffm.de

영아 간호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환영 소포"를 개발해왔다. 이 소포에는 지역 풋볼 팀이 후원한 놀이복 한 벌, 동요 CD 하나, 영유아와 보호자들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같이 다양한 안내 자료들이 들어있다.

2009년 중반부터 2014년 중반까지 진행될 5년간의 프로젝트가 계획됐으며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은 모든 "환영 소포"에 "독서 사다리"[11]를 포함할 계획이다.

4.2. "빕스타터(Bibstarter)[12]"(2-3세)

빕스타터 프로그램은 도서관 분관에서 제공되며 2세에서 3세의 유아들과 부모에게 제안된다. 원래는 한번의 공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는데 정기적으로 유아 그룹을 초대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임이 입증된 프로그램이다.

한 도서관 분관의 빕스타터 그룹

이 프로그램은 대략 30-45분 정도 지속되도록 계획되었는데 큰 소리로 읽기, 노래하기, 부모와의 협력 하에 쉬운 공작놀이 하기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주위사람들이 "뭘 보는거니?", "이 작은 곰이 뭐하고 있어?" 등과 같이 질문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활발하게 흡수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큰 소리로 읽기 세션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책을 전하는 방법과 자녀들의 말하기 능력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기도 하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읽던 간에, 사서는 항상 동요를 불러주거나 비누 방울을 불어주는 등의 환영인사와 작별인사같이 의식적인 행사를 제공할 것이다. 이 의식적인 행사들은 이 연령의 아이들이 새로운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 행사들은 그룹 내 연대감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음번 방문을 기대하도록 만들 것이다.

---

11) 자세한 내용은 7쪽의 "Brilon Public Library"를 참조

12) 역자주) Bib은 아기의 턱받이를 일컫는 말로 턱받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적용할 독서 증진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Bib + Starter, Bibstarter라는 용어를 사용함

4.3 Reading-Minis (4세부터)와 "Book Gang"(6세부터)

"빕스타터"하고는 다르게 이 두 가지 프로그램들은 처음으로 부모없이 아이들에게만 제안되는 프로그램들이다.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도서관 분관들은 공개 프로그램 또는 유치원이나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룹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이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이 두 사례 모두 큰 소리로 읽기 시에는 참석하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주의력 지속 시간에 맞추어 창의적인 상호작용이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에 의해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그림 그리기, 칠하기, 공작하기, 이야기를 다시 시연하기 등등은 읽은 내용을 멋진 경험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4.4 "독서 주문 (Reading Spell)"(4-8세)

"독서 주문"은 매번 다른 주제(곰, 해적, 동화 등)를 가지고, 매년 가을 편성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과 유치원, 미취학 그룹이나 학교 그룹에게 모두 제안된다. 모든 도서관 분관들과 중앙 어린이 도서관은 주제에 맞는 도서들과 다른 미디어를 전시하며, 큰 소리로 읽기 활동에 참가하고, 주제와 일치하는 수공예를 만들어 그들의 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하고자 하는 도서관 방문자들을 초청한다.

독서 주문 파티

아이의 창의적 기여도를 보여주는 작품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줘서 전시되도록 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마지막에, 참가한 모든 아이들은 "독서 주문" 파티에 초대되고 작은 선물을 받게 된다.

4.5 다언어 서비스

프랑크푸르트 거주자의 30%이상이 독일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이민 배경을 가지

고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미성년자 중 그 비율은 심지어 50%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다언어 자료들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모국어 자료들에도 접근하려는 요구가 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뿐 아니라 도서관 분관에서도,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와 그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로 쓰여진 미디어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유치원, 미취학, 학교 그룹을 위한 이야기시간과 다언어 독서 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서 다언어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자존감을 느낄 수 있고 모국어에 대한 감사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독일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은 외국어 몇 마디를 배우게 될 수도 있다.

이야기 시간은 짧은 구절들을 읽어주거나(예를 들어 독일어와 터키어 둘 다로), 핵심 단어들을 다른 언어들로 반복해주고 아이들의 주의집중을 위해 운동 활동을 첨가함으로써 더욱 풍성해진다.

5. 프로젝트

5.1 "독서 황제"(미취학 그룹)

5개 도서관 분관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실행된 "독서 황제 프로그램"[13]은 미취학 그룹을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6번의 지역 도서관 분관 방문으로 도서관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아이들의 사전 독서 기술에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독서황제 손가락 인형

프로젝트 동안 한번 방문시 마다 황제우표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든 "독서 황제 소책자", 손가락 인형 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6개 미디어전시회가 제공된다. 사서와의 최초 만남에서, 사서는 이 그룹의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소개

13) 소위 제관식이 이루어진 황제의 도시였던 프랑크푸르트의 과거 영광을 비추어 이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사용함.

해준다. 사서는 독서와 창의적 상호작용이 공유될 것임을 설명해 주고, 매번 도서관을 방문할 때마다 "독서 황제 소책자"에 붙일 수 있는 황제 우표가 수여될 것이고, 전시회 때마다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준다. 전시회 주제는 유치원이나 보육원 교과과정의 표준 주제들을 참조해 공주나 영웅에서 공룡이나 영양소에 까지 다양한 범위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마지막 주제는 언제나 학교 등록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아이들이 학교 등교 첫날을 준비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으로 쓰이게 된다. 이 마지막 방문시 이 어린 "독서 황제들"의 제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나 지역 언론도 초청된다.

유치원 직원들은 그들 자신의 활동과 연결되는 것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높은 존경심을 가진다. 그들은 아이들의 지식을 넓히고 각각의 주제에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수시로 이 6번의 방문 동안 사용됐던 책들을 빌려 쓰기도 한다. 장기간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자들과 도서관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5.2 "독서 샛별(Reading Starlet)"(3세 부터)

"독서 샛별"은 3세부터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도서관(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을 알리기 위한 활동 소책자이다. 이 소책자는 소책자 내부에 숨겨진 "독서 샛별"을 찾고, 그림과 연결하고, 소책자에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독서와 도서관에 관한 노하우를 아이들과 부모에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독서 샛별 포스터

도서관들은 아직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족이나 그룹들과 접촉하거나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독서 샛별" - 소책자, 문 손잡이 걸이, 포스터 등의 형태로 - 을 사용한다.

5.3 "조기 문해 교육" 인식 주간

2009년 3월 도시 전역에 걸쳐 조기 문해 교육 인식 주간 행사가 조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강연, 모든 도서관 분관의 유아 대상 활동, 도서관에서의 가족 만남,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독서 샛별" 시행 같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0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보육원이나 유치원, 학교에 있는 그들의 보호자들을 위해 이루어진 우리의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된다. 이는 집중 강화 행동 주간으로 그리고 거주자와 의사결정자들이 참가한 성공적인 홍보 활동 도구로 여겨질 수 있다.

6. 보급자로서의 부모와 교육자들을 위한 서비스

6.1 대여가능 미디어 서비스

그림책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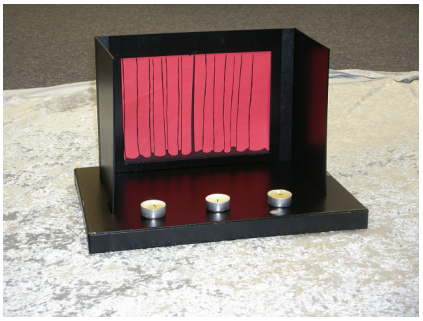
프랑크푸르트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교육기관을 위한 특별 대여 조건에 수혜를 받아 미디어 장비들을 빌릴 수도 있다.

학교 도서관 분과는 경작, 자연, 인체와 건강 등과 같은 다수의 주제를 담고 있는 미디어 장비들을 제공한다. 각 장비들은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 운전자에 의해 보육원과 학교에 전달되고 여기에는 교육자/교사들을 위한 안내 자료와 다양한 매체 형태로 50-60개 표제들을 포함한다. 더불어 학교 도서관 분과는 대여가능 "그림책 영화"(그림책의 삽화를 보여주는 슬라이드 쇼 또는 영사기 시영)를 제공한다. 어른이 큰소리로 읽거나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말하는 동안 슬라이드나 파일들이 투영되어 상영된다. 종종 관객이 이 영화 상영에 합류하거나 이 후의 창의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도 환영 받는다.

슬라이드나 파일들은 보통 글자 없이 그림으로 상영되므로 어른들은 예술을 경험

하는 독특하지만 성공적인 방법인 이야기의 시각적 접근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주의력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어둡게 만들어놓은 도서관의 안락한 분위기에서 그림 감상을 즐기게 된다. 몇몇 보육원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한달 간격으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림책 영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예약 구독"을 해 대출하기도 한다.



Kamishibai, 그림책 극장

마지막으로 보육원과 학교들은 소위 "Kamishibai"라 불리우는 일본에서 유래된 그림책 영화관을 대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그림책의 그림들은 "극장"에 상영되기 위해 한장 한장 스캔하고 인쇄돼서 잘라진다. 그 이후에 아이들은 이야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들 자신의 그림으로 이 그림 그리기를 반복할 수 있도록 초청된다.

6.2 후속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은 조기 문해 교육 활동에 대한 도서관 프로그램 확장을 시작하기 전에, 강연과 워크숍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했고, 준비된 정보와 자료를 직원이 곧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 그룹을 초빙했다.

경험이 많고 숙련된 도서관 직원들도 부모와 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한 후속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 분과는 부모-아이-저녁에 대한 개념을 개발해냈는데 이 개념은 큰소리로 읽기 활동에 대한 공유사항과 부모 지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들과 2개 언어를 말하는 그들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그 가족들을 그들의 언어로 지원하고, 동시에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새로운 문화로 통합시키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분과의 훈련 워크숍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그들의 보육원

과 학교 도서관 일상에서 독서 증진과 조기 문해 교육 기술을 육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6.3 "통신 수프(Letter Soup)", 교육 전문가들을 위한 간행물

위에서 거론한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안내 자료나 소책자 등과 더불어,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은 연령-적합 도서들과 함께 각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모아놓은 자료를 간행한다. 조기 문해 교육에 관한 특별판이 2009년 3월에 편집되었다.

출현 달력

이 간행물들은 도서관 직원들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유치원, 보육원, 학교와 다른 도서관들 직원들에게 판매되기도 한다.

6.4 문해 출현 달력

매년 크리스마스 시, 교육자와 교사들은 12월 24일까지 하루하루 헤아려 나가는 문해 출현 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달력들은 교실이나 학교 도서관 수업에서 큰 소리로 읽혀질 수 있도록 5-10분 정도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학교와 보육원들에게 보내진다.

7. 결 론

연구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와 다른 문해 기술들이 초기 발달 단계에서 소개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 도서관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연령에 적합한 독서 자료들에 접근 제공
-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이 모여서 공유하고 사회화하기 위한 포근하고 환대받는

안전한 공간 제공

- 아기와 유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제공(이야기 들려주기, 큰소리로 읽기, 운율 시간 등등...)
- 부모와 보호자들에게의 정보제공과 훈련
- 지역 행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적 사회적 기관과의 협력
- 기타 등등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도서관들은 조기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것을 향해 앞서 나갔다. 이로써 그들은 이전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을 이용자로 끌어들이고 모든 연령대를 위한 교육의 중심지로서 자신들의 위치 강화를 이어가는 "새로운 시장"을 획득했다.

그러나 - 개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강조점에 상관없이 - 영유아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들은 방대한 자원을 요구한다 :

- 인력 : 초기 사회적 경험들은 - 도서관 활동들을 포함한 - 소그룹들 안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사서는 대략 한번에 5명에서 7명의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15명에서 20명 또는 그 이상의 아이들 그룹은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과중한 짐을 지우게 되고 비생산적인 모임이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어떤 활동도 인력 집약적이며 노동 집약적인 것이다.
- 훈련 : 초기 아동 발달과 교육법 양쪽에 지식을 나누어주고, 사서 개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멀쩡한 바퀴가 있는데도 다른 바퀴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경험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후속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인력 강화를 위한 보충 역할로서, 도서관 체제 안에서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구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은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모든 활동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함께 이 일에 대처한다.
- 설비 : 아기, 유아, 그들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도서관 안에서 자신들의 방문을 기다려주는 듯 느끼게 해야 하고, 보기 좋고 안전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지역을 찾아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소켓 같은 전기기구들은 덮어 두고 가구와 선반의 예리한 가장자리를 보호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장서 : 전통적인 도서관 미디어 이외에, 이중언어 자료들, 해당 지역사회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자료들, 오디오 책, 부모들을 위한 정보나 교육적 자료들, 장난감들이 도서관 장서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 홍보 활동 :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이 의도된 관객들과 타겟 그룹들에 전해져야만 성공적인 것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미디어 캠페인과 지역 동반자와 거주자들에게 홍보하고 그들을 연관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만약 도서관들이 출생에서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서술된 몇몇 사례들과 같은 많은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물론 이 방법들은 개개 도서관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지역 네트워크 - 내부 사서 네트워크나 교육 기관들, 부모들, 지역 당국 등과 결합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 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저자는 학교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같은 다양한 도서관 환경에서 2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사서이다. 2000년 이후 그녀는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독일)에서 팀 리더로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주요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연령대 그룹을 위한 독서 증진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 학교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 지역 교육 기관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킹
- 교육자, 사서, 부모/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상담과 훈련

현재까지 그녀는 또한 “도서관과 학교” (독일 도서관 협회)의 독일 전국 전문가 집단의 일원이며 국내외 다양한 비정부 기관을 위한 도서관 고문으로서 경험을 쌓아왔다.

참 고 자 료

독문

- Grauel : Anne : Leseförderung im Vorschulalter. Konzeption und Durchführung eines Eltern-Kind-Nachmittags in der Stadtbibliothek Heilbronn. Diplomarbeit. Leipzig, 2005 (http://stadtbuecherei.stadt-heilbronn.de/info/Veroeffentlichungen/_files/Diplomarbeit%20Anne%20Grauel.pdf, 26/04/2009)
- Frühe Leseförderung. Linda de Vos (Hrsg.), Stadtbücherei Frankfurt am Main (Die Buchstabensuppe, Bd. 17). Frankfurt, 2008.
- Hachmann, Ute : Lesen macht aus halben Portionen ganz Persönlichkeiten. Lokales Bündnis für Leseförderung in Brilon leistet Beitrag zur chancengerechtigkeit und Integration. - (http://edoc.hu-berlin.de/miscellanies/bruecken-28964/103/PDF/103.pdf, 26/04/2009)
- Hachmann, Ute : Schon Babys können lesen - frühe Sprachförderung mit dem Buch. Bedeutung der frühkindlichen Sprach- und Leseförderung und ausgewählte Angebote und Leistungen von öffentlichen Bibliotheken. - Expertendossier mekonet (http://www.oebib.de/fileadmin/redaktion/lesefoerderung/Materialien/Bibliothek_und_Kindergarten/Gastbeitrag_Schon_Babys_k_246__1.pdf, 26/04/2009)
- Küls, Holger : Gehirnforschung, Lernen und Spracherwerb. In : Kindergartenpädagogik. Online-Handbuch (http://www.kindergartenpaedagogik.de/1024.html, 26/04/2009)
- Näger, Sylvia : Literacy - Kinder entdecken Buch-, Erzähl- und Schriftkultur. - Freiburg : Herder, 2007.
- Ring, Klaus : Wann beginnt das Lesen? Neurobiologische Erkenntnisse zur Sprach - und Leseentwicklung. In : JULIT. Informationen 3/2004
- Vorlesen in der Familie. Ein Reiseführer für Mütter und Väter. Zusammengestellt aus einer Broschüre der Stiftung Lesen von Dietger Luithle. - Essen, 2007.

영문

- Arnold, Renea : Kids Just Wanna Have Fun. The Best Way to Encourage Early Literacy Is Also the Most Amusing. By Renea Arnold and Nell Colburn. - In : School Library Journal, 2/1/2004.

- Early Literacy. BrainWonders.(http://www.zerotothree.org/BrainWonders, 26/04/2009
- Early Literacy. State Library of Louisiana(http://www.state.lib.la.us/empowerlibrary/Early%20Literacy--Brief1.pdf, 26/04/2009)
-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and Toddlers.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http://archive.ifla.org/VII/d3/pub/Profrep100.pdf, 26/04/2009)
- Hasson, Elizabeth A. : "Reading"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 Early Childhood Educational Journal, Vol. 19, No. 1, 1991, page 35 - 37 (http://www.springerlink.com/content/qnl27l46h7770857/, 26/04/2009)
- The Language of Babies, Toddlers and Preschoolers. Connecting Research to Practice. Published by Ounce of Prevention Fund, Chicago (US). (http://www.ounceofprevention.org/includes/tiny_mce/plugins/filemanager/files/Language%20of%20Babies.pdf, 26/04/2009)
- Marks, Robbie Bravman : Early Literacy Programs and Practices at Colorado Public Libraries. October 2006(http://www.lrs.org/documents/closer_look/early_lit.pdf, 26/04/2009)
- Parent Guide. Every Child Ready to Read. The Early Literacy Initiativ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hicago.(http://www.myhamilton.ca/NR/rdonlyres/A8D1B044-EB37-4D35-9B92-075CF3020D47/36463/EveryChildReadytoReadParentGuide.pdf, 26/04/2009)
- Roeber, Jane A. : Read from the Start. Early Literacy Activities and Resources for Librarians and Other Educators. - Madison (US), 1995.
- Scipio, Vonda : Early Literacy Development in Minority, Middle-Class Families. A Qualitative Research Study. - Kean, 2006.
- Wayne, Angela : Literacy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A Thesis. - Florida, 2006.(http://etd.lsu.edu/docs/available/etd-07132006-152107/unrestricted/Wayne_thesis.pdf, 26/04/2009)
- What a Child Needs to Know. Six Components of Early Literacy. (www.discountschoolsupply.com/content/Early%20Literacy%20Packet.doc, 26/04/2009)
- What is Early Literacy? (http://www.multcolib.org/birthtosix/earlyliteracy.html, 26/04/2009)

모국어가 소수언어인 아동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Runar Skrovset[1)]

1. 서 론

국제도서관연맹협회의 다문화 도서관 성명서(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는 "문화적 ·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에서의 도서관 정보 서비스는 모든 도서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적 · 언어적으로 비주류에 속하는 집단에게 특별 맞춤 서비스 제공까지도 포함한다. 여기서 소수민족, 망명자, 임시거주자, 이주노동자, 원주민 등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집단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도서관 서비스는 이런 주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비주류 언어 아동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가장 먼저 노르웨이의 인구통계와 내가 대표하는 다중언어도서관(MLL : Multilingual Library)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후 우리가 모국어를 중요시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뒤를 이어 우리의 프로젝트와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1.1 노르웨이의 인구통계

북유럽 상단에 위치한 노르웨이는 길고 폭이 좁은 나라이다. 노르웨이는 상당히 큰 지역을 영토로 가지고 있지만(한국의 약 3배임) 전체적으로 500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인 오슬로에는 겨우 5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 노르웨이 총 인구의 10%는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슬로에 살고 있는 주민 중 최고 25%정도가 노르웨이 이외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집단은 폴란드, 파키스탄, 스웨덴, 이라크, 소말리아, 베트남 출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이민자는 거의 전세계(총 210개 나라)를 망라한다는 사실을

---

1) 오슬로공공도서관 다중언어도서관 수석사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망명자나 피난자, 이주노동자, 재혼에 의한 가족 결합 등을 통해 노르웨이로 온다. 노르웨이는 국민의 수를 고려하여 많은 수의 망명자나 피난자의 망명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가 이민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1.2 MLL (다중언어 도서관 : The Multilingual Library)

MLL은 오슬로 공공 도서관(Public Library)의 하위 부서임과 동시에 노르웨이 다문화 부처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다. 이는 이 부서가 타 도서관들을 위한 전문적 능력과 지도 능력을 갖춘 센터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MLL은 수서, 목록의 부서이고 또한 주요 비주류 언어 매체의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지역 도서관들이 비주류 집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 도서관은 모든 비주류 언어에 적합한 장서, 필름, 음악 등을 개발, 구입, 유지하는 비용소모가 큰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주요 관심사가 항상 비주류 집단이고 그 분야에 필요 자원, 친교, 능력을 집중시키는 중앙 집중적 특수 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MLL이 약 35개 언어로 된 매체 장서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노르웨이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모두 이 자료들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우리의 디지털 목록에 있는 개별 타이틀을 주문하거나 일종의 전집을 주문할 수도 있다. 전집은 하나의 언어로 된 도서들로서, 종종 10권에서 100권의 도서들로 구분되며, MLL의 사서들이 대출자들의 연령, 성별, 관심사 등의 정보에 기반하여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전집은 상당히 인기가 높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전집이 노르웨이 전 지역의 도서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의 이민자들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사회는 다언어, 다문화 사회이고, 이것은 반드시 도서관 서비스에 반영되어야 한다!

1.3 모국어의 중요성

우리는 모국어를 통한 자극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다. 우리의 모국어는 우리가 개인으로써, 또는 사회가 전체로써 존재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모든 업무에 있어 근본이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업무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가 비주류 언어 아동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나는 그것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1.1.1 모국어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노르웨이어를 더 잘하는 방법이다.

비주류 집단의 모국어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집중한다고 해서 국가의 주언어나 공식 언어(이 경우 노르웨이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 성인 교육, 직업시장,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르웨이어에 대한 훌륭한 지식에 좌우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모국어와 주 언어 사이의 관계는 'A 아니면 B'와 같은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는 커녕 어린 시절의 언어 교육은 주로 정의나 개념을 학습하는 것과 관련성이 깊다. 다시 말하면, 도서나 게임, 일상생활에서의 교육적 대화를 통해 모국어에 대한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 즉 모국어에 대해 보다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아동보다 노르웨이어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대부분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적용된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모국어 실력을 지닌 아동은 노르웨이어도 쉽게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비주류 아동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모국어로 된 도서나 영화 등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업무에 도서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노르웨이에서 이민자 부모를 둔 아이들이 집에서는 오로지 모국어에만 노출되고 보육학교에서는 노르웨이어에만 노출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보육학교를 통해서 입학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노르웨이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임에 틀림없으나 우리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그들의 모국어 또한 지속적인 자극과 개발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년에 스웨덴에서 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주 언어인 스웨덴어와 더불어 모국어에 대한 교육도 받은 이민 학생들이 주류 학생들을 포함한 타 학생들보다 모든 과목에서 평균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1.1.2 독서의 즐거움

아동 및 청소년 사이에서 독서의 즐거움은 수년 동안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어놓았다. 어떻게 목표(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 목표 자체에 대한 모든 이들의 관점은 현재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소년들이 독서를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소년들은 좋은 독서 습관이나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소년들이 독자로서의 능력은 떨어진다. 좋은 독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도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많이 읽기 위해서는 읽는 것, 즉 독서를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악순환을 끊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독서를 즐기게 할 수 방법이 있는가? 우리는 독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는 좋은 느낌이 우리가 가장 잘하거나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언어의 경험에서 얻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자나 비주류 집단의 많은 아동들의 언어가 공식적인 주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어가 아닌 타 언어가 모국어인 아동 및 청소년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도서를 읽고 최초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들이 이후 주요 노르웨이어 도서 구매자로 떠오른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1.3 부모 참여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좋은 보육 시설, 학교, 도서관은 아동의 언어 학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아동의 독서 및 언어 이해 능력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도서관 부문의 관계자로서 우리는 이를 고려해야만 하고, 이는 특히 비주류 가정을 대하는 우리의 업무에 적용된다. 많은 이민자들이 그들의 자녀 교육에 직면했을 때 큰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은 과제 등의 여러 부분에서 부모의 중요한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해 인종적으로 노르웨이인인 동급생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아동들의 집에서 주 언어로 된 도서는 물론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아동에게 적합한 도서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동에게 적절한 도서를 갖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동급생과 이민

가정의 아이들이 만났을 때 후자에 속하는 아이들이 매우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국어로 된 도서를 가지는 것은 (해당 도서는 보육시설이나 학교 혹은 공공도서관이나 기타 타 기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음) 많은 비주류 아동들이 불운하게 고통 받는 불평등한 상황에서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도서들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독서나 언어 능력 향상에 보다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고, 동시에 독서의 역할 모델로써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집에 독서하는 사람이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종종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주류 집단의 아동들은 후자(독서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의 아동)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사라지거나 변화되도록 도서관이 우리 사회와 함께 다뤄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1.1.4 교실 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써의 다문화 도서

우리는 또한 타 언어, 타 문화의 매체를 보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비주류 아동들 뿐 아니라 주류 아동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주류 아동은 이 작업의 결과물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타 언어 및 타 문화를 접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물, 즉 복수의 언어 및 문화로 구성된 도서는 보육학교나 교실 등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젊은 세대가 그들이 살아가고 자라는 사회의 다문화적 측면에 보다 자연스럽고 편한 관계를 지니도록 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반면, 기성 세대는 보통 그들이 속한 사회의 타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때로 근거 없는 공포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주류 아동들이 자신이 잘 아는 문화에서의 삽화와 그들의 언어로 된 도서를 접했을 때 이는 비주류 아동들이 그들의 다문화적 정체성(모두에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아동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요소가 다문화 국가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비주류 언어로 된 도서가 주류 언어로 된 도서를 보충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2 현재의 도서관 서비스

1.2.1 요술 망토(The Magic Cloak) - A Journey through Islamic Art

요술 망토는 2개 언어 그림책인 “A Journey through Islamic Art”에 기초하여 개발된 이동 전시회이다. 요즘 전시회 광고문 2 부가 한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전세계로 보내지고 있다. 이 전시회는 스웨덴-이란 혼혈 유리 공예 예술가인 Teymor Zarre가 장식한 “Gate to the Orient”라 불리는 아름다운 전시관의 중앙에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두 개의 헤드폰 세트가 제공되는데 참가자는 이것을 통해 스웨덴-터키 혼혈 작곡가인 Coste Apetrea가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터키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다. 전시관은 그 자체로도 보기에 매우 아름답고 둘러보기에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지만, 도서관이 제기한 요술 망토의 개념은 다양한 보조적 액세서리들로 표현된다. 쿠션과 페르시안 기도 카펫이 전시관을 둘러싸고 여러 개의 그림과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이것들 사이에는 “A Journey through Islamic Art”에 있는 삽화가 그려진 크고 웅장한 담과 아랍 문자, 아라비아 숫자 시스템, 아랍 지형으로 둘러 싸인 멋진 어린이 친화적 포스터가 있다. “A Journey through Islamic Art”는 20개의 사본도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른 언어로 쓰여졌다. 또 다른 2개 언어 그림책인 “The Whirling Hijab”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적절한 책으로 이 책 역시 전시회에 진열되어 있다. 그리고 전시회에는 이런 인쇄 도서들 뿐 아니라 “Lakia's Dream”, “Ali's House”와 같은 스토리를 담은 녹음도서(sound book)도 있다. 이 스토리들은 우리가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기관인 The Story-telling House와의 협력을 통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시회에는 아름다운 “요술(magic)” 망토가 있다. 이 망토는 사서들이 아동들에게 “A Journey through Islamic Art”를 읽어줄 때 입는 것으로, 이 요술 망토는 “A Journey through Islamic Art”의 주인공이 이슬람 세계에서 장소를 옮겨 다닐 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전시회는 어디에서 열리든 매우 눈길을 끌지만, 모든 도서관에서 시행하기에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MLL은 활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전시회가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어했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해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 전시회에 앞서서 도서관들이 받은 정보와 영감(inspiration)들로 가득 찬 종합 폴더를 만들었다. 이 폴더는 다양한 실용

적 도움과 안내사항, 배경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도서의 주제 및 몇몇 스토리텔링을 위한 조언을 담은 안내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전시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많은 교육적, 조직적, 창조적 활동들에 대한 중요한 힌트와 아이디어(음식 조리법, 모자이크 템플릿 등)를 담고 있다.

이 전시회의 주요 목표는 서로 다른 이종 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이슬람 예술 및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들의 인종적·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대화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아이 부모들은 요술 망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이슬람교도인 부모가 관련 지역의 책이나 포스터를 근거로 그들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한다. 어떤 도서관들은 심지어 우리에게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전시회에서 자극을 받아 그들의 호기심 많은 급우들에게 아랍어로 자기 이름 쓰는 법을 가르치고는 뿌듯해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관은 그 자체로 보육학교나 학교에서 계획된 방문 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을 끌어들인다. 아이들은 특히 전시관의 작은 탁자앞에 앉아서 다른 것들과 함께 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 전시회에 대한 반응에 상당히 만족했고, 전시회가 열린 많은 장소에서 이 요술 망토가 사람들이 세대나 배경을 뛰어넘어 서로 긍정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전시회 개최 기간 동안 몇몇 도서관이 지역 학교와 가까워지면서 교육적 영역에 있어 협력자로써의 위치를 강화한 것에 만족했다. 이 지역 학교들은 요술 망토 전시회를 노르웨이어, 역사, 지리, 예술 및 공예와 같은 교과목과 연계하여 이용했다.

1.2.2 이중 언어 그림 책

이중 언어 그림책은 이름 그대로 2개 이상의 언어로 텍스트가 구성된 그림책을 말한다. 이런 책은 비주류 언어 아동에게 훌륭한 문학적 소양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범위하고 올바른 이중 언어 그림책의 선정은 보통 영어와 그 외의 언어로 번역된 책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중 노르웨이어로 된 책의 선정은 매우 적다. 몇 되지 않는 작은 출판사들이 약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아주 소수의 도서만을 간행한다. 이것들 중 하나는 교본과 녹음 도서(sound book)로 이루어진 노르웨이 설화집으로, 노르웨이어와 그 외 9개 언어로 이야기가 녹음되고 쓰여졌으며,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면, 노르웨이어를 바탕으로 하는 이중 언어 도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랜 동안 노르웨이의 주요 출판사들이 이중 언어 그림책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하도록 설득해왔으나, 현재까지 큰 소득은 없다. 출판사들은 이중 언어와 다문화 측면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판사들이 어떤 것을 출판할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상업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사실에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출판사들이 우리가 원하는 책을 생산하게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MLL은 출판사가 아니고 출판에 대한 어떠한 자격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중 언어 그림책을 출판하고 있는 외국 출판사와 협력을 꾀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존의 이중 언어 도서 중 6권의 도서를 노르웨이어로 번역했다. 출판사는 그것을 우리가 제시한 가격과 양만큼 인쇄해 주었다. 우리가 번역한 도서는 Star Publications(www.starpublic.com)가 근간이 되어 New Delhi와 London이 협력 작업한 “Star Children’s Picture Dictionary”를 비롯한 MantraLingua(www.mantralingua.com)의 5개 도서였다. 우리는 아직 노르웨이어로 된 이중 언어 도서를 필요한 만큼 만족스럽게 가지고 있진 이런 번역작업이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MantraLingua는 이중 언어 그림책을 전문으로 하며, 덧붙여 영어와 한국어로 된 수천 권의 도서도 보유하고 있다.

MLL에서, 비록 몇 권 되지는 않지만, 노르웨이어로 된 이중 언어 그림책의 주요 소비자는 바로 우리이다. 이런 도서들은 매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몇몇 이야기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동과 가정들에게 주제적으로 적합하다. 이 도서들로부터 직·간접적인 문화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고,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지리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아동들이 북부 백인 유럽인들 뿐 아니라, 그림책 속의 다양한 등장 인물들과 마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다른 장소의 수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MantraLingua와 같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언어로 생산, 인쇄된 도서는 어떤 것이든 확실한 장점을 가지는데, 그 장점은 다문화 보육학교, 교실 등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본, 디자인, 인쇄 등의 질은 언어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전 세계 여러 언어의 도서 구매자로써, 우리는 아동 도서 출판의 조건 및 전통이 장소나 언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언어에서는 그 질에 대한 만족은 말할 것도 없고,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MantraLingua와 같은 특별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도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운 곳의 언어로 되어 있으며, 이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공헌을 한다. 왜냐하면 소수 아프리카 언어든 독일어든 그 도서들의 품질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1.2.3 동화 꾸러미(Fairytale bags)

어느 나라에서든 고전 설화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우리는 노르웨이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비록 노르웨이어를 잘 못하더라도 설화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화 유산들은 알아주기를 바란다. 몇몇 설화는 한 국가나 지역에서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아동 및 성인들에게 공통적인 기준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보육 학교들은 그들의 교육에 설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주류 언어를 잘하지 못해서 설화나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언어적 비주류 아동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만든 동화 꾸러미는 보육 학교에서 비주류 아동들이 도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동화 꾸러미에는 이중 언어 (영어를 번역한)로 된 그림 책 버전의 동화 한 권, 해당 이야기를 가장 일반적인 비주류 언어로 표현한 사본들, 노르웨이어로 번역된 작은 교본이 들어있다. 또한 동일한 스토리를 다른 언어로 녹음한 녹음 도서(sound book)도 있다. 꾸러미 안에는 해당 이야기의 주요 캐릭터를 묘사한 봉제 인형도 있는데, 이 봉제인형은 연관된 그림책 삽화들과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이 인형들은 영문 출판사 MantraLingua에 의해 생산되어 왔다. 화려하고 산뜻하게 꾸며진 꾸러미(가방) 자체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명한 사회 지식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재까지 노르웨이 설화 “The Three Billy Goats Gruff”와 영문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의 재창조물에 바탕을 둔 두 개의 각기 다른 이야기 꾸러미가 만들어 졌고,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피드백은 매우 열정적이고 대기자 리스트도 길다. 이 결합체는 언어 능력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고, 내용은 그들이 듣는 동안 각색한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언어적 비주류 아동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도서를 읽어줄 수 없는 여러 보육학교 교사들도 이 아이들이 그들의 고유 언어로 스토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CD를 잘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1.2.4 "When Two are Angry with Each other"

http://naartoersinte.deichman.no

"When Two are Angry with Each other"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그림책이다. 이 책은 미취학 아동들과의 각기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실험한 "At Floor Height"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디지털화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오슬로 공공도서관의 아동국(Children's Department)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및 아동 언어 발달 전문가들과의 협력 하에 아이들이 도서와 그 도서의 디지털 형식에서 글과 그림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책의 디지털 버전은 노르웨이어와 그 외 3개 언어(Urdu, Somali, Kurdish)로 만들어졌고, 또한 이 책의 내용과 등장인물들로 이루어진 6개 게임이 만들어졌다. 아동국에서 3대의 컴퓨터가 "When Two are Angry with Each other"을 위해 배정되었고 이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용되고 있다. 이 책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의미있고 유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 책을 클릭하는 동안 부모들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그들의 언어로 책을 읽고 들을 때면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날 수도 있다. 심지어 모국어가 노르웨이어인 아이들은 타 언어로 책의 내용을 듣는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2.5 The Reading Seed Project

Reading Seed 프로젝트는 다문화 지역의 몇몇 보육학교와 공공도서관이 보육 학교 도서관 즉, 보육 학교 내에 존재하는 작은 도서관을 협력해 세우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에도 유사한 소규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적 실험들이 있었다. 이후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많은 전문가와 전문 지식을 이용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보육 학교 전체가 참여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노르웨이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학교에 입학한 이민 아동들이다.

공공도서관은 대량의 도서를 구입해서 보육학교에 대여해주고 그 도서는 몇 달 간격으로 교환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육학교에서 데리고 올 때 도서를 대출해 집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보육 학교들은 일상 프로그램의

독서와 문학적 활동에 추가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능한 한 많은 학부모가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University of Stavanger의 Reading Centre는 프로젝트 참가 보육학교 아동들의 능력 정도를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 방법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을 기록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아동들은 적당한 시기에 사후 점검을 받게 될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아직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 참가 보육학교의 숙련된 언어 교사들에 의해 관찰된 바에 의하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물론 프로젝트 연구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 어릴 때부터의 독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던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 -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의사 결정자와 이야기할 때 유용한 논거가 된다. 확고한 논거는 이런 형태의 도서관과 보육학교 간 협력 체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따라서 이후 이루어질 대규모 자원 배정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1.2.6 국제 모국어의 날

1999년에 UNESCO는 2월 21일을 국제 모국어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 기념일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많은 도서관들이 그들의 일상 업무에서 비주류 언어 아동의 요청과 요구, 권리를 다루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도서관들도 있다. 어떤 경우든, UNESCO가 선언한 공식 기념일은 모국어와 다언어에 대한 주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다.

오슬로의 MLL은 여러 언어로 이야기 시간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왔다. 몇몇 도서관은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2월 21일이 되면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했고 그들이 속한 지역 환경에서 많은 청중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어냈다. 우리는 우리 도서관에서 어떻게 이 날을 축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중요한 분야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국제 모국어의 날을 이용하는 것이다.

3. 결론

이 글의 초반부에 나는 IFLA 다문화 도서관 성명서의 근본적인 원칙을 인용했다. 나는 이 성명서로부터 다시 몇 가지, 보다 정확하게는,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가 수행해야 할 주요 임무 몇 가지에 주목하면서 이 이야기를 맺고자 한다.

-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문화적 의견 교환을 활성화시킨다.
- 언어적 다양성과 모국어에 대한 존중심을 장려한다.
- 어려서부터 여러 언어로의 학습을 진행하고, 다양한 언어의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한다.
- 언어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모든 관련 언어의 표현, 창조, 보급을 지원한다.
- 모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포용과 참여를 지원한다.

이 항목들은 모두 우리의 업무에서 본질적이며 우리가 항상 최상의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오늘 나의 발표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귀하의 관심에 감사하는 바이다!

어린이 도서관 :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 덴마크의 어린이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과 지역 사회 사이의 전략적 협력

리스벳 베스테르고르, 아나 에네마르크와 앤 포울슨과 공동 작성

1. 서 론

오늘날 도서관은 분명 하나의 기능을 가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 공간이나 학교 안에 있는 물리적인 건물이면서 그 사회 안에서 문화적 기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어린이와 관련된 새로운 당위성과 좀 더 뚜렷한 모습을 찾아야만 한다. 2008년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보고서(Future Library Service to Children, 2008)에서는 덴마크의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권고와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놀이의 위상과 사회 통합, 문화적인 형성, 양질의 독서 기법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의 일상과 매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양한 다른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데 목적을 둔다.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된 분야에서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들이 계발과 경험, 교육에 대하여 도서관법에 나타난 세 가지 전반적인 목적을 결부시켜야 한다. 도서관은 여전히 어린이의 독서 경험이나 독서 기법을 제공하는 특별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도서관과 광범위한 지역사회 간의 시의적절한 파트너십은 많은 잠재력과 자산이 된다. 본 연구는 도서관과 지역 사회 간의 전략적 협력이 어떻게 어린이의 독서를 증진시키는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어린이 독서와 도서관의 도전과 핵심 영역을 개괄적으로 다

* 어린이 도서관 컨설턴트, 덴마크 도서관&미디어국

루고 있다. 3장에서는 어린이 문맹에 따른 덴마크의 도전을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4장에서는 어린이 독서와 관련한 도서관의 과거와 현재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 5장은 새로운 개념인 일반 교육과 문화 형성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개념은 미래 도서관 어린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6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덴마크의 독서의 즐거움(Joy of Reading) 캠페인은 도서관과 지역 사회 간에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폭넓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험들을 다루고 있다. 7장은 5가지 다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파트너십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독서를 더 많이 강조하는데 기여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8장에서는 다섯 가지 사례의 다양한 전략들을 요약하면서,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가 제안한 10가지 세부 제안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9장은 어린이 독서 향상의 세 가지 결정적인 요인으로 사업의 지역적 소유권, 초기의 협력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국가 수준의 모범 사례 배포라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2.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어린이 도서관은 중재라는 종래의 전통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경험과 변화된 '놀이 문화'를 결합시켜 중재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 자신의 의견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재 역할과 관련하여 변화된 접근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는 도서관의 장서보다는 반드시 어린이와의 대화나 실제 도서관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공도서관을 최소한 월 1회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1998년 51%에서 2004년 39%로 떨어진 것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p. 109)

2006년 덴마크 문화부 장관은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위촉하였다. 이 위원회는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어린이 도서관의 새로운 개념과 서비스에 대한 다수의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10개의 세부적인 제안 사항을 수록한

이 보고서(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는 2008년 2월에 다음과 같이 상당히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화 자원이 되어야 하지만, 도서관이 어린이를 위한 문화 기관의 중심이 되고 싶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어린이와 의사소통하고, 어린이의 놀이 문화와 함께 문화적인 발전과 자질을 도모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는 자료와 장르를 넘어서 광범위한 매체 경험을 지원해야만 한다. 중재의 역할은 참여하는 어린이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만 하고, 확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흥미진진한 물리적 틀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과 더 많은 자원 봉사 활동 단체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변화와 혁신에 개방된 영역이 될 수 있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p. 17)

3. 어린이들의 문맹

보고서와 10가지 제안 사항의 또 다른 매우 적절한 배경은 어린이들의 기능적 문맹이다. 오늘날 덴마크의 어린이들 중에는 학교를 떠날 때까지 읽지 못하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규모의 어린이 집단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주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모든 교육과 생산이 글쓰기에 기초하기 때문에 잘 읽는 능력과 글쓰기 능력은 사회적인 생존 기술이 되어왔다.

공립학교의 모든 과목에서 학습은 읽을 수 있는 학생을 전제로 하며, 2006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연구 결과는 실망스럽다(Egelund, 2006). 57개국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덴마크는 기능적 읽기 능력이 없는 학생의 비율이 16%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수치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자면, 핀란드는 5%, 스웨덴 15%, 노르웨이 22%, 아이슬란드 20%로 나타났다.

읽기 능력과 관련한 덴마크의 2000년과 2003년도의 결과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매우 능숙한 독자의 비율은 다른 북유럽 국가와 OECD

국가에 비해 덴마크가 낮다. 그리고 이전의 PISA 시험에 따르면,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보다 읽기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Egelund, 2006, p. 11-12)

덴마크 PISA 연구팀과 Rockwool 재단의 Aarhus 경영대학이 공동으로 덴마크에서 제 2언어로 덴마크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읽기 기술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오히려 우울한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47%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떠날 때, 기능적 읽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구적 배경이 없고 덴마크어가 제 2 외국어인 학생들의 53%가 기능적 읽기 능력이 없었다.(Egelund, and Tranæs, 2005)

따라서 덴마크어가 제 2언어인 학생들의 절반은 공립학교 이후의 청소년 교육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읽기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업 및 기능 훈련 교육도 양질의 읽기 능력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시험과 관련하여 해독하고 이해하며 시험과 관련된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덴마크 정부는 기능적인 문맹이 상징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읽기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 계획에 착수하였다. 특히 교육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독서의 즐거움이 있는데, 어린이가 좋은 독자가 되도록 여가 시간 독서를 격려하는 것이다.(Rapport fra Udvalget til forberedelse af en national handlingsplan for læsning, 2005)

어린이를 위한 미래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이 보고서는 읽기 능력과 함께 어린이의 독서 경험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특수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도서관의 주도와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욱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어린이 독서와 관련된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은 늘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어린이에게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램과 다독하는 어린이가 좀 더 자신감 있는 독자가 된다는 지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다양

해진다. 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다수의 매체와 어린이가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는 중재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어린이를 능숙한 독자로 만드는 업무를 지원해야만 하는데, 예를 들어, 언어 증진 활동을 제공하는 탁아소들과 협력하거나 학교의 읽기 교습을 지지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p. 57)

어린이들 자신도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독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Centre for Children's Literature의 연구(Havad skaber en lysæser?, 2007)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한 어린이의 독서 습관을 분석하고 어린이가 열성적인 독자가 되었다고 그들 자신이 느끼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독서에 열정적인 어린이의 특징은 책을 실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매체 중 하나로 여기고 외적 부분과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독자로 인식한다. 또한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과 같이 그들은 친목과 독특한 행사를 찾는다. 그 어린이는 친구들과 책에 대한 비법을 서로 교환하며 즐기기 때문에 훌륭한 독자가 계속해서 되고 싶어한다. 어린이들에 따르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독서를 즐기고 책을 추천하는 부모와 도서관 내 어린이를 존중해주고 친해지기 쉬운 사서, 그리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독서 캠페인에 학급을 참여시키는 선생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에 대한 어른의 중재 역할이 어린이가 독서 경험에 대해 같은 단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기본적이며, 이는 어린이가 어른과 함께 공동 관심사를 공유한다고 느끼는 데서 온다. 따라서 교사, 교육자, 도서관과 같은 전문적인 중재자들은 중재하고자 하는 책을 읽어야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을 포함시켜 어린이와 함께 대화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용자와의 대화, 독서를 통한 감정 공유, 도서관과 지역 기관 간의 독서에 관한 주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훌륭한 독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신 개념 - Bildung

어린이의 읽기 능력은 현대 사회가 시민에게 제시하는 많은 요구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식 사회에서 필수 자원은 물리적이면서 디지털 매체의 모든 종류의 콘텐트를 생성하고 해석하고 교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다모드 자질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수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쓰기는 동일한 매체의 그림과 같이 다른 방식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p. 18)

오늘날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여가 시간에 주로 매체 사용을 연습하면서 인쇄, 시청각,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경험과 정보, 특히 의사소통을 습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는 다모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Bildung' 개념은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 개념은 정보와 놀이, 의사소통과 함께 지적, 감성적 학습 구성 요소와 '신' 매체 및 '구'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읽기는 여전히 핵심 개념으로, 모든 매체를 사용하는데 미리 습득해야 한다. 한편 모든 매체는 읽기에 흥미를 조장하고 읽기 능력을 지원하는데 적합하다.

새로운 'Bildung' 개념은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제안 사항을 기초로 구성되어 다음에 이어서 제시될 것이다.

6. 도서관에서 지내기, 배우기, 하기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그들 미래의 적절한 영역에서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계발(enlightenment), 경험(experience), 교육(education)에 관한 도서관법의 세 가지 전반적인 목적과 결부시켜야만 한다.

계발이란 검색 엔진이나 포탈 등을 통한 개별적인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찰력과 함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과업은 정보를 적

절한 식견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어린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경험은 책 형태로 표현된 꾸민 이야기를 전달하고, 문화적인 행사를 위한 장면을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다. 경험은 시각, 청각, 다매체적인 모든 문화적 표현물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과업은 모든 종류의 표현물과 관련하여 어린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자각할 수 있게 개발하고, 모든 종류의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호기심을 일으키고, 놀라우며, 자극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조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은 정규 학급에서 일어나는 '측정 가능한' 것만이 아니다. 도서관과 같이 반 정도가 공식적인 공간과 학생들이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 역할 놀이의 규칙을 배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듯이 학습이 주요 목적이 아닌 비공식적 공간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들, 어른들과 함께 그들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틀을 창조해내도록 돕는 것도 도서관의 과업이다. 도서관은 학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도서관은 비공식적 학습 과정과 개별 네트워크, 학교와 같은 공식화된 교육 기관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요약하면 도서관은 어린이가 있고, 배울 수 있으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할 수 있다. 도서관은 특별하게 해야만 하는 것 없이도 어린이가 올 수 있는 성역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가 무엇인가를 하고, 배우며, 경험하고 놀 수 있도록 어린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흥미진진한 틀을 제공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기술한 형식과 똑같이 정확하게 기능하는 덴마크의 어린이 도서관은 없는데, 이는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있고 싶은 공간'으로서 도서관은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과 관련된 좀 더 넓게 펼쳐진 모형이 될 것인 반면에 '하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아마도 좀 더 나이가 많은 어린이에게 특히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모형은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준다.

6.1 새로운 자질은 도서관에서의 새로운 활동들을 도모한다.

어린이 도서관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는 도서관 직원이 어린이를 위한 가

상 활동 및 물질적인 활동의 용이성과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개별 어린이와 어린이 및 가족이라는 집단의 관점에서 서비스와 개별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직원들이 어린이가 경험하고 알고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모든 적절한 매체와 장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워크숍, 온라인 서비스, 게임, 문학을 통한 중재, 자료 편집, 장소 설계,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열성적으로 콘텐트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숙달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기관들이 중재에 대한 자질과 기본적인 직원 교육에서 광범위한 매체를 이해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좀 더 넓은 어린이의 문화적 요구를 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직원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가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문화 분야에 특정 자질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직원의 범주는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보고서에서는 '어린이 사서'라는 호칭 대신 '도서관에 고용된 사람' 또는 '도서관 직원'으로 사용하고 있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p. 45)

6.2 광범위한 매체 경험

도서관은 특히 소설과 비소설 문학을 기반으로 어린이의 문화적 발달을 진작시키는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문학과 즐거운 독서 경험에 관한 도서관의 중재 역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책이나 기타 자료를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커다란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새로운 매체 기술이 산출되면서, 책은 잊혀지기 쉬워지고 있다. 이를 전통적인 매체로 종종 표현하곤 하지만, 다른 매체와는 반대로 내용 자체가 다소 적은 범위로 중재되고 오늘날의 전제 조건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며 표현하는데 영속적인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매체 소비는 최근 십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책 보다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영화, 스스로 제작한 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원

으로부터 이야기와 전문 지식, 경험 등을 수집한다. 도서관 서비스의 일부가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은 어린이의 문화를 중재한다는 전통적인 개념과 도서관의 기능을 흔들고 있다. 성인이 어린이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인 이러한 매체와 장르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중요하다. 도서관에서의 컴퓨터 상호작용은 어른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화면에서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오락과 정보, 그리고 학습에 대한 자원과 유용한 링크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사회적 활동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p.50-53)

6.3 놀이 문화

보고서의 또 다른 제안은 놀이 문화를 어린이, 부모에 관련된 콘텐트와 중개 역할의 중심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도서관은 다른 매체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찰하고, 장난감과 게임의 제공은 물론, 놀이를 창조해 냄으로써 어린이의 놀이 문화를 지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도서관은 물론 부모가 전자 형태를 포함하여 장난감과 게임에 관한 활용 가능성과 제한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어린이에게 장난감과 게임이 어떻게 필수적인 어린이의 놀이 문화와 우정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놀이에 대한 강조가 의미하는 것은 직원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직원이 장난감의 품질을 평가하고, 어린이를 위한 모든 유형의 자료와 문화적인 상품과 관련하여 부모와 어린이에게 조언하고 영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게임과 사회적 활동을 창조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p. 56-58)

어린이 도서관에서 향후 고용 인력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직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질 개발의 권고를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안 사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알파로 여겨지고 있다. 알파는 오메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연관성 안에서 어린이를 위한 도서

관 서비스를 새롭게 하고 지역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지역 내 공공사업 기관들이 경영상의 인력, 자금, 시간의 측면에서 자원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미래 어린이 도서관에 관한 보고서는 덴마크의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순회 방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서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이다. 사서들은 보고서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는 도구로 여기며, 도서관은 '용량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과 가능성을 주는 거국적인 개념에 기초한 해결책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The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에서는 현재 보고서의 권고와 제안 사항을 적용하고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7.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의 즐거움 : 캠페인부터 지역적 소유권과 이행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보고서는 2003년 문화부에서 시작했던 국가적 수준의 캠페인인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 익힌 교훈들을 기초로 크게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후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유년기와 많은 부분에 걸쳐 어린이가 독서의 즐거움을 고취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에 합세하였다.

캠페인에는 좋은 경험과 좋은 책, 좋은 독자와 같이 다양한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다. 캠페인이 이루어진 마지막 연도에는 좋은 경험을 소유하고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지식의 공유, 연구, 중재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 당국과 도서관에서 문학과 학습, 문화와 관련된 업무 안에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고취시키고 있다.

'독서의 즐거움'에 대한 질적 평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를 고취시킨다는 캠페인의 노력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요구와 자발성에 대한 호소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문학 간의 긍정적인 연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문화경제학적 분석(Damgaard and Sørensen, 2008)에서는 학교와 탁아소, 도서관 간의 새로운 상

호 협력을 창출하는 전략이 극도로 생산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캠페인은 공개적으로 자금이 조달된 사업이 어떻게 행정과 관료제도에 필수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 자금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조장하는 목적을 가진 구체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할당되어 있다.

캠페인은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연간 공동 출자 귀표 프로그램으로서 2008-2010년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공동 출자는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국가 전역의 유치원 도서관
- 취학 어린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독서 캠페인
- 청소년을 위한 문학 활동

독서의 즐거움 프로그램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함께 공공도서관과 공공 영역 및 기관 간의 합작 사업을 야기해 오고 있다. 다음은 어린이의 독서와 언어, 학습을 도모하고 강화시키고자 덴마크의 공공도서관이 유치원과 학교, 공공 부처, 자선 단체들과 협력한 5개 사례이다.

7.1 사례 1 : 유치원 도서관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보고서의 제안 사항 중 하나는 도서관이 실재로 어린이가 생활하는 곳까지 손을 뻗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도서관에서 다른 파트너 즉, 유치원이나 가정, 학교, 협회 등과 연계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덴마크 내의 약 30개 유치원 도서관은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모든 덴마크 공공도서관은 탁아소와 협력하여 유치원 도서관을 구축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와 직원은 책과 독서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을 확대하고, 어린이와 부모들이 책과 다른 자료들을 대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Madsen and Poulsen, 2008)

유치원 도서관은 책과 다른 자료의 대여를 담당하는 보존소로부터 사서와 문화적인 시설이 있는 유치원 내에 실재 부속 도서관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어떠한 모형을 선택하든지, 유치원 도서관에서의 핵심 요소는 어린이에게 책에 대한 일상적

인 경험을 제공하고, 많은 다른 선택이 가능한 매우 바쁜 날에 도서관으로 어린이를 데려와 큰 소리로 읽는 것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유치원 도서관은 어린이와 부모의 책과 기타 자료의 접근을 대중화하는 과정에 기여하며, 모든 어린이가 책과 독서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도서관을 방문하는 지리적, 시간적 장애 요인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자와 도서관이 어린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개발하고 미취학 어린이에게 언어 개발과 인적 개발, 읽기 배우기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도록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 도서관은 탁아소의 업무를 언어 및 문화와 관련된 국가 수준의 교육 학습 계획과 함께 강화시키는 것을 돕고 있다. 연구자인 Kjeld Kjertmann은 어린이의 읽기, 쓰기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유치원 도서관을 꼽고 있다. “문어(written language)와 책은 어린이와 함께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뒤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학교만 단독으로 어린이가 읽고 쓰도록 가르치는 책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100% 완전히 발전된 쓰기 사회에서 우리가 이 세대 또는 저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문어를 아이들로부터 멀리 두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유치원 도서관은 유아들이 미래에 읽기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한 부분이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 강한 흥미를 개발하고, 읽고 쓰기 시작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떠날 때, 청소년 교육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는 일종의 묘안이다.”(Cranfield and Enemark, 2007)

어린이와 부모, 교육자 및 교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서관 책을 교류하며 선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형은 어린이의 일상적인 환경 안의 다른 장소로 전달될 수 있고, 이는 초심자를 위한 독서 카페나 독서회, 부모를 위한 강좌와 같은 활동에서 가능한 보완될 수 있다. 이런 부수적인 모형은 방과 후 센터나 클럽, 스포츠 센터, 시민 센터, 문화 센터 등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최우선적인 전제는 도서관이 어린이가 친숙한 환경에서 어린이를 찾아내고, 자료를 이동시켜, 전통적인 도서관 공간 밖에서 제공한다는 점이다.

7.2 사례 2 :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를 위한 '준비하고-확실하게-답하기 (Ready-steady-answer)' 독서 퀴즈

각종 경시 대회와 행사는 특히 참여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을 자극시키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개인의 지식이나 가능성에 대한 청중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고, 또래 친구 집단이나 읽지 못하는 다수의 어린이가 있는 학급의 어린이에 관한 역할 모델로서 위치를 얻을 수 있다. 경시나 퀴즈와 같은 행사는 또한 상당히 오락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캠프나 박물관 방문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Ready-steady-answer 퀴즈는 경쟁적인 특성과 함께 매체에서 구현되어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대 어린이들의 요구에 기초를 둔다. 이러한 매력적인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퀴즈는 텔레비전의 인기 가요나 X-Factor 대회 보다 더 주목을 끌 수 있으며 질적으로 충분한 다른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에게 인식시킨다. 퀴즈는 7개 학년의 팀 시합으로 진행되며, 각 학급에서는 청중인 급우를 동반하여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하나의 퀴즈 팀을 만든다.

수상의 종류는 역할 모델로써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기능을 지지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약 전체 학급에 이득이 되는 상을 위해 경쟁한다면, 해당 학급은 가장 인기를 끌 필요는 없지만 독서광을 팀에 넣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하여, 학급이 우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학급의 다른 어린이들이 더 많은 독서를 하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독자를 변화시킨다. 또한 퀴즈는 사회적 차원에서 독서를 하게 만드는데, 원래 독서는 혼자 하는 과정이지만 퀴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린이가 자신이 배워온 것을 사용하는 사회적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된다.

퀴즈에는 많은 유형의 질문이 있다. 이 범주는 독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데, 폭넓게 박식한 독자, 특정 장르를 고수하는 독자, 유년기 책, 노래, 운문, 연, 속담, 단어의 기원, 필름과 책, 요리법과 이용자 지침서, 비소설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도서관은 학생들이 퀴즈를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사들과 협력한다.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의 참여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요하다. 전형적으로 학생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한 교사를 가진 학생들이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형태의 퀴즈와 그 외의 전략적인 독자를 위한 행사는 어린이 도서관이 어린이와 관련하여 그 자체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조직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어린이가 문학을 감상하고 사랑하며 열성적인 사람으로 도서관의 새로운 방식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가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도서관은 최신의 인기를 끄는 동향을 알고, 아동문학 내의 질문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 도서관은 예비 게임이나 활동이 있는 행사 자체로도 확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핵심적인 매체 능력이 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능한 신속하게 지식을 찾아내는 대회와 같은 것이다. 사서, 교사, 학교 도서관은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자유 시간을 정하고 Ready-steady-answer 독서회에 가서 다른 장르를 연습할 수 있다. Ready-steady-answer와 같이 지역 학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퀴즈는 어린이에게 독서 경험과 독서 기법을 제공하는 업무 안에서 도서관을 위한 확실한 도구가 된다.

7.3 사례 3 : 청소년을 위한 작가 학교

독서의 즐거움 프로젝트에서 청소년을 위한 작가 학교는 읽기와 쓰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읽기라는 단순한 사실은 수동적이고 덜 흥미로운 활동으로 인식되는 반면, 예술적인 과정에서 작문과 창작은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덴마크 북부 지방 Brønderslev에서 청소년을 위한 작가 학교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신진 작가들을 위한 온실 역할을 하며, Brønderslev 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목표는 청소년에게 스스로 작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들은 집중적인 교육 과정을 교수자인 전문 작가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참석하고, 교육 과정 이후에 연습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쓰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다른 청소년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가 주어진다.

작가 학교는 여름 방학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연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지원서와 함께 보낸 글을 기초로 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다수의 지원자들은 전문적인 관심과 동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크고 강력한 경험이며, 이들은 각각 다른 사람의 작문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작문 과정을 논의하고 싶어한다.

개별 교육 과정 이후에 학생들의 이야기들은 명문집으로 출간되며 국가 전역의 도서관에 배포된다. 자신의 글을 인쇄 형태로 보는 것은 청소년들이 작가로서의 자기 이해를 신장시키고, 작가로서의 정체성 개발을 촉진시킨다. 소설 컬렉션은 청소년들의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쓰기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켜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은 어떻게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지 배우는 것의 흥미로움을 알게 해 준다.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의 강사인 Peter Kaspersen은 Brønderslev의 작가 학교를 평가해 왔다. 그는 이러한 교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커다란 잠재력으로 꼽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작문 연습은 공립학교에서 해왔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작가 학교에서는 모두가 죽을 만치 쓰고 싶어 하며, 너무 열심히 해서 누구도 ‘선생의 마음에 든 학생’으로 꼬리표가 붙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많은 열정과 동기 부여를 창출하게 한다. 교수자의 역할도 공립학교의 덴마크 언어 교사와는 다르다. 작가가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개별적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돕고, 그들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제안을 내놓게 한다. 작가를 교수자로 참여시킴으로써 학교가 제공하는 모든 것은 질이 좋아지고 전문화 된다. 청소년을 위한 작가 학교와 다른 독서의 즐거움 프로젝트는 자유로운 콘텐트 개발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관리 형식을 가진 다소 비공식적인 교육 체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Cranfield and Enemark, 2007, p. 57)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유사한 창조적인 과정을 마련하면서 전문 작가들, 삽화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 확실한 파트너

들은 지역 청소년 클럽이나 근로 청소년 보습학교가 될 수 있고, 도서관들이 테마 과정을 연계하여 학생들을 위한 창조적인 작문 워크숍을 계획하는 고등학교와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 과정에는 낭송 기법이나 구두로 하는 스토리텔링과 같은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

7.4 사례 4 : 북 스타트

Danish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는 2009년 3월에 6개월, 12개월, 18개월, 36개월 어린이에게 책을 선물로 주는 사업에 착수했다. 책 선물은 언어 체험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른 제안들과 주도적인 결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초기에 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지역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취약 계층을 위해 지정된 정부 자금이 투자되었다. 장기적인 목표는 덴마크의 모든 어린이들까지 이것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독서의 즐거움 프로그램의 부분은 아니지만 어린이 독서와 관련된 중요한 시발점이다.

북 스타트 사업은 지역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넓히는 관점을 강조한다. 불리한 거주 지역에서의 도서관은 건강한 방문자, 구직 상담, '친구 같은 방문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많은 사업의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소개될 때 좋은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가 생후 6개월이면 이미 시작해서 이러한 기회들은 어린이의 지식과 책에 대한 접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 스타트에 대한 영감은 본래 영국에서 착안되었지만, 스웨덴의 Markaryd 모형에 근거해왔으며, 실제로 덴마크의 예비 사업인 '언어 포털'에서도 하고 있다. 언어 포털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것들을 중개하고, 덴마크인 아닌 다른 인종적인 배경을 가진 가정과의 연결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어린이의 언어를 향상시키고 좋은 독자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펜하겐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착수했으며,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거주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북 스타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는 분명히 많은 장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북스타트는 아동 문학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문학이 초기 학습과 사회 변

화를 위한 도구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작용'도 많은데 전반적인 목적에 따라 각각의 부작용은 감소되거나 강조될 수 있다. 이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세습을 격파하고, 어린이의 학습을 책임지는 부모를 지원하며, 글과 그림을 '읽고' 해독하며, 이야기의 순서를 이해하는 초기 단계의 문장 이해 능력을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한테 태어나서부터 풍부한 문장 이해력과 심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부족한 것인지를 현안으로 다룰 수도 있다.

북 스타트의 취지는 조그만 어린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진작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서관에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바로 부모가 그들의 자녀인 어린이와 함께 읽을 때 열정을 발산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책을 경험하고, 만지고, 씹고, 조사하는 과정을 기꺼이 하려고 하며,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함께 하며 영유아 문학에 강점을 제공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단어로 표현하며 소음을 만드는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언어 자극은 단지 하나의 언어만을 말하도록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무의미한 언어나 덴마크어, 아랍어, 중국어 등과 같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2012년에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약 20,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북 스타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 스타트는 덴마크 전역의 15개 시 안에서, 20개의 다른 거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Enemark, 2009)

7.5 사례 5 : 과제 카페

덴마크어를 제 2 언어로 사용하는 덴마크의 학생들 절반 가까이는 공립학교를 떠날 때, 청소년 교육을 마칠 만큼 충분하게 잘 읽을 수 없다. 과제를 도와주는 카페는 덴마크어 보다는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덴마크 언어를 숙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후의 교육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문화부는 공동으로 도서관에서 전체 100개의 새로운 자발적인 과제 도움 계획안과 현존하는 과제 도움 계획안을 지원 활동과 같이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힘을 합하고 있다. 북 스타트와 같이 과제 카페도 독서의 즐거움 프로그램의 일환은 아니지만, 카페가 또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읽기와 학습, 그리고 언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은 과제 카페에 대한 훌륭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중립적인 공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책과 전자 매체에 대한 지식을 거의 무제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직원을 갖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의 과제 카페는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시간대에 개방될 수 있다. 또한 여자 아이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찾아 올 만큼 대다수의 다양한 인종 배경을 지닌 어린이와 부모들도 도서관을 은신처로 여긴다. 덴마크어가 제 2 언어인 어린이들 중에서 과제 도우미와의 접촉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되고 보수를 지급 받는 덴마크 사람과의 유일한 관계인 경우도 있다. 도서관에서의 과제 도우미는 자원봉사자들이며 전문적인 교사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과제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움은 다양한 이유로 그들의 부모는 제공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이 과제 카페를 다른 교육적, 문화적 활동들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Letiecafeer, 2007, p. 5-10)

그러나 과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와 도서관 직원이 정상적으로 교수 방법과 교육 방식과 교육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의 과제 카페도 어린이의 교사들과 좋은 상호협력 관계가 중요한데, 과제 도우미가 어린이들이 향상시켜야만 하는 영역을 완전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공되는 것들이 어린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실제 과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전형적인 과제 카페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오후 시간에 개방된다. 일부 카페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등록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과제 카페는 반드시 도서관 내에서만 필연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은 지역의 스포츠클럽이나 주택 협회 건물 또는 연령이 좀 더 많은 어린이를

위한 클럽에서 과제 도움을 쉽게 조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청소년이 오기에 적절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제 도움을 제공하는데 흥미를 끌기 위해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는 통합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온라인 과제 도움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을 받았다. 가상 과제 카페의 예비 사업에서 학생들과 자원봉사 과제 도우미들은 웹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학교와 도서관이 개방된 시간 이외에도 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

8.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에 관한 10가지 제언

유치원 도서관, 준비하고 확실하게 답하기 독서 퀴즈, 청소년을 위한 작가 학교, 북 스타트, 과제 카페는 위원회가 미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보고서에서 제시한 10개 제안 사항 중 대다수에 대해 구체적인 용어로 묘사하고 있다.(Future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2008, p. 18)

8.1 새로운 능력이 도서관의 새로운 활동을 창출한다.

새로운 매체 환경, 새로운 문화적 습성, 다양한 요구와 기대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자질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한다. 도서관 직원은 인터넷을 좀 더 잘 활용해야만 하고, 도서관 내 활동들을 도모하며, 모임을 조직하고, 이용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서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8.2 도서관 공간은 놀라움과 영감을 주어야만 한다.

우리가 도서관의 물리적인 공간을 설계할 때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한다. 도서관은 어린이가 존재하고, 배우고, 놀기에 매력적이어야만 한다.

8.3 도서관은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

도서관은 새로운 환경과 시설을 창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어린이를 위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주인으로서 직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4 어린이는 도서관에서 놀아야 한다.

도서관은 놀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활동의 중심 영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서관은 놀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 낼 수 있고, 장난감과 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게임과 장난감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8.5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독서 경험과 독서 기법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독서, 독서 경험, 독서 기법에 대한 어린이의 흥미를 고취시키는 업무를 계속한다.

8.6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창출한다.

학교와 도서관은 어린이 서비스를 위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함께 일을 함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도서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8.7 도서관은 외부의 사람들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인상을 만든다.

도서관은 덴마크 사람이 아닌 인종적인 배경을 갖는 장애자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어린이들과 같이 특별한 요구를 갖는 어린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적용한다.

8.8 도서관은 학습과 문화 발전을 지원한다.

도서관은 어린이가 글과 소리, 이미지를 부호화하고, 창조하며, 교환하는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을 지원한다.

8.9 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다가서야만 한다.

도서관은 어린이에게 손을 뻗어 어린이가 실제로 움직이는 곳인 유치원, 탁아소, 학교나 협회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8.10 도서관 경영은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춘다.

도서관 경영은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재고와 혁신, 지역적인 적용을 위한 인력과 자금, 시간을 우선시 한다.

이 중 몇 가지 사항들은 도서관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어린이로 전환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덴마크 공공 도서관에서는 10개 권고 사항을 채택하여 따르고자 한다. 권고 사항 중 일부는 덴마크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가 전략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방편 중 하나는 어린이 담당 사서를 위한 심도 높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위한 발전 기금을 통해 도서관에게 보조금을 할당하여 그들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많은 좋은 생각과 개념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Danish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는 Copenhagen Bombay라는 영화 회사와 합작하여 새로운 어린이 사이트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별 도서관들의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 도서관이 제공하는 것들 간에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국가 안의 공공도서관은 사이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콘텐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이트와 물리적인 도서관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활동을 결합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이트는 Radio Denmark의 새로운 어린이 TV 채널과 상호 작용도 해야 한다. 이 채널은 매일 30분간 생방송으로 어린이 TV를 위한 틀을 새롭게 짜는 것에 대해 덴마크의 주요 어린이 도서관 중 하나와 협약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도서관과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는 10개 권고 사항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주요 과업에 직면하고, 보다 나은 최신의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확실히 하며 국가 안의 98개 시 전역의 협의 사항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9. 결 론

어린이의 독서 강화는 많은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도를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화 자원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강화되려면, 도서관이 외부의 관계를 더욱 잘 발굴해 내야한다. 덴마크의 사례는 최상의 결과가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서관과 탁아소, 학교가 합동으로 하는 독서의 즐거움 활동과, 경시 대회, 게임에서부터 쓰기 연습과 방법론적인 언어 자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주택협회, 스포츠 단체, 기타 여가와 관련된 단체들과 협력한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좀 더 영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볼 수 있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도서관이 계속해서 중요하고 적합한 문화적인 활동 장소로 보이게 하려면, 어린이들의 문화적인 공간과 네트워크 안에서 어린이들의 문화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이 지역적, 국가적으로 다른 공공 기관과 사적 행위자들과 관련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도서관의 실행 계획은 외부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 기능을 위한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외부 관계들을 강화시키는 것에 주력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다른 중요한 것으로 풍부한 독서는 초기에 공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고, 학습과 발달에 대한 욕구를 갖고 태어난다. 영유아시기에 이미 개념 인식과 의사소통, 어휘에 대한 씨가 뿌려진다. 지역의 파트너와 함께 도서관은 매우 어린 영유아가 견고한 언어 기반과 읽기를 배우려는 욕구를 획득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서관이 교육자나 교사, 듣기 및 말하기 치료사, 교육 컨설턴트, 제 2언어로 덴마크어를 하는 영유아 컨설턴트, 어린이의 문화 상담가, 작가, 그리고 탁아소와 학교의 학부모 위원회와 같이 다른 직원 집단과 함께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협력을 시작하고 지원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의 즐거움 사업은 보통 부모와 같이 어린이의 주요 역할 모

델에 이르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도서관과 함께 하여 도서관은 부모에게 그들 자녀의 독서를 위한 도구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의 독서를 도모하려는 공통적인 노력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덴마크 전역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독서에 대한 횡단적 분야 간 협력의 다양한 관례들이 있다. 일부 도서관들은 다른 지역의 문화 기관 및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 반면에 다른 도서관들은 지역의 자원 봉사자 및 단체와 협력하는 특수한 관례를 가진다. 지역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협력은 좀 더 깊이 있는 어린이 독서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포함하여 도서관에서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정적인 요소는 시당국 간, 정부와 시당국 간의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사실이다.

Danish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에서는 모든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중재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적인 다양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영감 자료, 사업 상담, 테마 모임, 국가적인 독서 대회, 연구 사업에 대한 재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서의 즐거움 캠페인을 통해 좋은 결과는 다수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된다는 것과 독서의 즐거움을 위한 서비스 안에서 활동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도서관을 격려하고, 고무할 수 있는 중요한 '횃불'이 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양질의 어린이 문학을 장려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

팻 스캘스*

나의 모든 경력은 어린이와 함께 해 왔고, 이 기간 동안 나는 출판 사회에서의 많은 변화를 보아왔다. 미국에서는 여러 경향들이 출판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종종 이러한 경향은 영화나 텔레비전 산업에서 파생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스타워즈가 방영되었을 때, 어린이들은 우주에 관한 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는 출판사들이 Barack Obama를 다룬 전 연령층의 책들을 앞 다투어 출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책들이 양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 걸프만을 황폐화시켰을 때, 출판사들은 이러한 자연 재해와 자연재해가 끼친 삶을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을 서둘러 출판하였다. 우리 역사 속에 비극이나 기념이 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청소년 독자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책들에 대한 급격한 요구가 있다. 나는 이때의 모든 책들이 질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특히 10대는 이러한 경향들에 영향을 미친다. “Twilight” 시리즈가 큰 유행일 때는 어른들조차도 이 책을 읽는다. 이 책들의 질은 훌륭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읽는다는 현상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독서에 빠지도록 하면, 이들을 양질의 다른 책들로 안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어린이 도서 출판이 미국에서 매우 상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문학에 대해 관심과 요구가 항상 있어왔다.

Association of Library Service to Children이 후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문학을 요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 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이들이 출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 미국어린이도서관협회장

1. 수상 프로그램

1922년에 처음 행해진 The John Newbery Medal은 매년 전년도에 출판된 미국의 어린이 책 중 가장 뛰어난 책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가 수여한다. 이 상은 18세기 영국 서적상 John Newbery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이 상의 목적은 첫째, 어린이 책 분야에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저작을 장려하고, 둘째 어린이 문학으로의 공헌이 시, 희곡, 소설과 유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공에게 강조하며, 셋째 어린이 독서 흥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서들에게 그 분야의 훌륭한 저작들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Newbery Award는 전 세계의 어린이 책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상이 되었다. 이것의 유구한 역사뿐만 아니라 이 상의 조건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어린이 도서상으로 자기 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37년에는 The Randolph Caldecott가 만들어졌다. 이 메달은 당해 가장 뛰어난 그림책을 만든 예술가에게 수여하며 19세기 영국 삽화가 Randolph J. Caldecott를 기념하여 이름을 붙였다. 삽화가 있는 책은 Newbery 상이나 Caldecott 상 중 어느 한 쪽의 상이나 두 가지 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Newbery와 Caldecott 상을 선정하는 위원회는 1978년 분리되었고, 1980년 각각의 선정 위원회가 시작되었다.

Newbery와 Caldecott Medal의 수여가 시작되면서, 위원회는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다른 책들도 언급할 수 있었고 늘 언급하였다. 이러한 책들을 “Honor Books (영예로운 책)”라고 부르고 있다.

출판사, 사서, 교사들은 미도서관협회의 동계 회의에서 발표하는 수상작들을 매우 고대한다. 또한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꿈도 이 메달을 수상하는 것이다. 이 상들은 광범위하게 판매하기 위한 책들로 번역이 된다. 거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이 메달을 수여한 책을 구입할 것이며, 서점들도 어린이 도서 부문에 이 책들을 구매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 뿐 아니라 Amazon.com과 같은 온라인 서점들도 웹페이지 맨 앞에 이 책들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상을 받은 책과 영예로운 책의 작가와 삽화가를 인터뷰하고 있다.

많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모의 뉴베리, 칼데콧 위원회(Mock Newbery and Caldecott Committees)”를 후원하고 있다. 그 목적은 어린이들이 전년도에 출판된 가장 뛰어난 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의 내역은

BookLists, School Library Journal, Kirkus Review, Publisher's Weekly와 같은 잡지에서 주요 비평에서 소개된다. 어린이들은 이 내역의 모든 책을 읽고 메달을 수여하고 싶은 책에 투표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어린이들은 책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며, 출판사들은 어린이들이 자기 출판사의 책을 고를 때 두근거린다. 이제 어린이들은 실시간으로 팟 캐스트나 스트리밍 비디오를 통해 수상 발표를 지켜볼 수 있다.

나는 Newbery와 Caldecott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아오면서, 청소년 독자에게 나를 따라 독서하도록 항상 격려하였다. 내가 빨리 배운 것 중 하나는 기회를 주어지면 어린이들이 질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Association of Library Service to Children은 Robert F. Sibert Informational Book Medal을 수여하였다. 이 상은 매년 전년도 영어로 출판된 가장 뛰어난 정보책의 저자와 삽화가에게 수여된다. 영예로운 도서도 수상된다. 이 상은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비소설 저작의 출판을 도모해왔다. Newbery와 Caldecott Medal과 같이 모든 도서관들은 Sibert Medal 수상작들을 구매한다. 서점들은 비소설이 공공에게 잘 팔린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수상작들을 잘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은 학교의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다수의 비소설을 구매한다. 내역은 보통 매우 다양한데, 이는 어린이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주제의 비소설을 반영한다. 올해의 수상작은 "We Are the Ship : The Story of Negro League Baseball"이며 영예로운 도서상은 빙하에 관한 책과 Theodore Roosevelt의 딸인 Alice Roosevelt의 전기가 선정되었다. Sibert Award가 시작되면서 출판사들이 어린이를 위한 훌륭한 비소설을 출판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되었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2006년에 처음 수여된 The Theodor Seuss Geisel Award는 전년도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초급 독자를 위한 가장 훌륭한 미국 책의 저자와 삽화가에게 매년 수여된다. 수상자는 어린이가 독서에 빠질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문학적, 예술적 업적으로 인정되어 청동 메달을 받는다. 이 상은 세계적인 저명한 어린이 작가인 Theodor Geisel의 이름을 땄다. Dr. Seuss라는 별명을 가진 Theodor Geisel이 "사람은 작고 어린 것과 상관없이 하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어린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즉 웃고, 도전받고, 즐기고, 기쁠 수 있길 원한다."는 뜻이다. 재치가 넘치고, 재미나며, 항상 어린이를 존중하는 Dr. Suess는 어린이와 부모라는 4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방식을 매료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린이와 부모가 읽는 것을 도와주었다.

메달 수상작은 모두 책 표지에 인장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출판사들은 출판 목록에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관이 양질의 어린이 문헌이 중요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 Born to Read : How to raise a reader(태어나면서 독서를 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 : 독자를 키우는 방법)

이 프로그램은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우리는 어린이의 뇌가 생애 첫 3년 동안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언어에 대한 어린이의 초기 경험은 건강한 뇌 발달을 돕고, 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읽기 학습의 토대를 마련한다. 부모들은 실제로 어린이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사이다. Born to Read 소책자는 ALSC 웹사이트 www.ala.org/alsc/born.html에서 이용가능하다. 또한 아기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책 목록도 있다. 유아를 위한 양질의 책들이 증간되고, 도서관과 병원은 젊은 부모들과 이야기 시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사무실에 Born to Read 소책자를 비치하고 있다.

Every Child Ready to Read @ your Library 캠페인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도는 공공도서관협회의 일찍부터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사업의 일환으로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의 읽기 학습을 부모와 보모가 준비할 때 공공도서관이 안내한다는 발상이다. 그들은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고, 좋은 구두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The Association of Library Service to Children에는 다양한 집단의 어린이에게 양질의 책 목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Quicklist Committee가 있다. 예를 들어, Oprah Winfrey가 어린이를 위한 여름방학 독서 목록을 요청했을 때, 이 위원회가 해당 목록을 제공하였는데, 그녀의 웹사이트에 있다. 그녀의 웹사이트에서 이 목록이 다른 어떤 항목들보다 접속 건수가 많다고 한다. 이외에도 Parenting 잡지, Time 잡지,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We the People 사업, 그리고 기타 다양한 출판물과 기관을 위한 목록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목록들이 책 판매에 매우 지

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Quicklist Committee에서 목록에 오르기 전 모든 책을 읽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문헌을 장려하는 다른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다.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의 Children's Choices와 대부분의 주립도서관협회는 어린이가 그들이 좋아하는 책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도서상을 후원하고 있다.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Social Studies,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Science는 모두 해당 분야에서 양질의 책을 대표하는 책들의 목록을 개발한다. 공공 및 학교도서관은 장서 개발에 이 목록들을 활용한다.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어린이 문학에 대한 특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University of Florida,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University of Wisconsin이 그 중 잘 알려져 있다. 각각의 이 대학교는 어린이 도서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 작가에게 메달을 수여한다.

이제 기술은 사서가 리스트서브와 블로그를 통해 좋은 책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출판사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참조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출판사가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장려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 모두 인식해야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린이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린이가 읽도록 기대하기 전에 어린이에게 먼저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엘리스가 "그림과 대화가 없이 책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라는 구절은 내가 좋아하는 인용구이다. 어린이가 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연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다. 어린이에게 책을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책을 어린이에게 읽혀야 한다. 어린이가 컸을 때라도 교사, 부모가 자신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이런 대화는 믿음을 조장한다. 어린이가 우리를 신뢰할 때, 어린이들은 우리가 독서에 대해 제안한 것을 더욱 더 기꺼이 선택할 것이다.

나는 27년간 11-13세의 중학년 학생들과 함께 일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수업 전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에게 큰소리로 읽어주었다. 약 75명의 아이들을 매일 아침에 만났다. 난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원하는 책들을 큰소리로 읽어주었다. 이런 책에는 Newbery Medal 책과 National Book Award 책, 그리고 다수의 고전들이

포함되었다. 매일 아침마다 모인 어린이들은 내가 다 읽은 책을 늘 거의 매번 대출하였다. 그러고 나서 뒤에 나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양질의 출판을 도모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설을 찾는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출판사들은 그들의 웹사이트에 교사를 위한 지침들을 게재하고 있다. Random House는 그들의 웹사이트(www.randomhouse.com/teachers)에 광범위한 종류의 교사용 지침을 제공한다. 이들은 주제(테마)와 교과 영역에 따라 책을 기재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지침을 Linda Sue Park의 A Single Shard에 첨부해왔다.

도서관은 어린이 독서토론회를 후원하고 있고, 종종 부모를 포함시킨다. 출판사는 보급판 책의 뒤에 독서 토론 질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어린이가 독서회나 토론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은 책을 좀 더 완전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공도서관의 여름 방학 독서 프로그램은 좋은 책 출판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보통 주제(테마)가 있으며, 어린이들이 다수의 책을 읽도록 한다. 어린이가 책을 비평하는 "청소년 비평회(young critics clubs)"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모두 어린이들이 좋은 문헌을 접하게 한다. 출판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알고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수 있을 것 같은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도록 사서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평가(testing)"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이다. 독자에게 그들의 "학년 수준"에 따라 책을 읽도록 한 뒤, 읽은 것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수의 어린이들이 독서와 평가를 동일시하며, 이로 인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읽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곧 사라질 것이고 어린이들이 독서를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하나의 사실은 어린이가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사랑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이 책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출판사들은 독자의 요구에 부응한다. 우리가 양질의 책의 요구하면, 그것을 곧 출판사가 간행할 것이다. 그러나 출판사가 모든 것을 출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들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책을 늘 출판할 것이지만, 이런 책들은 수명이 짧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양질의 책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언제나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

【사금파리 한 조각】

- 저자 : 린다 수 박
- 알림 : 랜덤 하우스는 린다 수 박의 새로운 작품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청소년 소설-역사-아시아 / 일년생 / 판매 종이판매 / 2003년 2월/ $6.99
  978-0-440-41851-1 (0-44-041851-8)
  비축약 오디오 시디와 비축약 오디오북으로 다운로드 이용 가능.

1. 교사용 지침

1.1 이 책에 대하여

12세기 한국에서 12세 고아가 견습생에서 예술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용기와 생존, 미술의 힘에 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아 소년 목이와 두루미 아저씨는 줄포라는 도자기를 빚는 작은 마을의 다리 밑에 산다. 집이 없고 배고프지만 두루미 아저씨는 목이에게 용기, 정직 그리고 근면과 같은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들을 가르친다. 목이가 뜻하지 않게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도공 민 영감이 만든 도자기 하나를 깨버리자, 목이는 그 도예가 밑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빚을 갚으려한다. 목이의 가장 큰 소망은 민 영감으로부터 배워 훗날 자신의 손으로 도자기를 빚는 것이다. 민 영감은 목이를 무시하지만, 소년은 성실하게 일해, 송도의 왕실 감도관에게 민 영감의 작품을 전달한다. 길을 떠나면서 목이가 도적질을 당해 도자기는 부서졌지만, 목이는 민 영감의 작품이 왕실 감도관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사금파리 한 조각이지만 이것을 전달하려는 여정을 계속한다.

1.2 저자에 관하여

한국 이민자의 딸(재미교포 2세), 린다 수 박은 일리노이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녀는 4살 이후부터 언제나 독서를 즐기고, 시와 이야기를 써왔다. 그녀의 처녀작

Seesaw Girl(널뛰는 아가씨)은 1999년에 출판되었다. Kite Fighters(연싸움)는 이듬해 출간되었다. 2002년 그녀의 세 번째 소설 사금파리 한 조각은 최우수 뉴베리 수상작이다. 최근 저서는 When My Name Was Keoko : A Novel of Korea in World War II(내 이름이 쿄코였을 때)이다. 소설뿐만 아니라 그녀는 어른들을 위한 시와 단편 소설을 출판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뉴욕 주의 북부 지방에 살고 있다.

2. 교수 지식

2.1 독서전 활동

수업 시간에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City, Arts of Korean Gallery에서 가상 현장 견학을 참여하도록 한다.(인터넷 정보원에 수록된 웹 주소 참조) 학생들에게 특히 청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것들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 메모를 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도자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그들의 설명과 작가의 말(note) 중 하나를 비교해본다.

2.2 주제 연계

용기(Courage) - 목이가 민 영감에게 다가가 그의 밑에서 일하고자 했던 용기에 관해 학생들이 토론한다. 목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두루미 아저씨는 어떻게 했는가? 두루미 아저씨가 이야기 "The Rock of the Fallen Flowers(꽃잎이 떨어진 바위)"(p. 117)를 들려주면서 목이에게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목이가 도적질을 당했을 때 죽음을 넘어서 삶을 선택하는 용기는 어떠한가? 도적질을 당한 뒤 민 영감을 만나는 그의 용기는 어떠한가?

생존(Survival) - 두루미 아저씨가 목이에게 "학자들은 이 세상의 고귀한 단어들을 읽어내지. 그러나 너하고 나는 세상 그 자체를 읽는 법을 익혀야 한다."(p. 7)고 말한다. 이 말이 살아남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목이가 "세상을 읽는 법"을 익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적하도록 해본다. 민 영감 밑에서 생존 능력이 일하고 배우는 그의 인내심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정직(Honesty) – 두루미 아저씨가 목이에게 정직을 가르친 것이 어떠하였는지 학생들이 논의해본다. “노동은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지만, 도둑질은 사람들에게서 품위를 빼앗아가는 거야.”(p. 6)라는 두루미 아저씨의 말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목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빼앗는 것이 도둑질인가를 생각해본다. 저작권과 특허를 통해 개인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 생각에 대해 수업시간에 토론한다. 목이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란다.”라고 어떻게 배우는가? 민 영감은 목이가 그의 밑에서 일하기 위해 맨 처음 다가왔을 때 왜 목이의 정직을 의심했는가? 그가 목이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

희망(Hope) – 목이의 가장 큰 소망은 도자기를 빚고, 마을의 가장 위대한 도예가인 민 영감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목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대해 토의한다. 그의 희망은 용기와 어떻게 병행되었는가? 두루미 아저씨는 “얘야, 문을 닫아 버린 바람이, 다른 문을 열어 주기도 하는 거야.”(p. 97)라고 말한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 목이에게 열어진 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Family) – 두루미 아저씨와 목이는 집이 없다. 두루미 아저씨와 목이 사이에 나타나는 부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민 영감은 목이에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다.”(p. 95)라고 말한다. 반면 목이에 대한 민 영감의 감정과 아내의 감정을 대비시킨다. 민 영감이 목이에 대해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민 영감과 그의 아내는 목이를 그들의 막내 아들과 음절이 같은 이름인 현필로 부르게 된다(p. 147). 이 이름의 중요성을 논의해본다. 목이는 민 영감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죽음(Death) – 학생들에게 민 영감이 여전히 그의 아들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인용하게 한다. 목이가 어떻게 민 영감이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왔는가? 목이가 소설의 마지막에 두루미 아저씨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토론해 본다. 한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종종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 목이가 민 영감과 아지마에게 두루미 아저씨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2.3 교과과정 연계

언어 – 린다 수 박은 특정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직유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퉁명스러운 한 마디는 바싹 마른 들판에 내린 소나기처럼 목이 가슴을 시원하게 쓸고 지나갔다."와 "목이는 진흙을 완전히 한 꺼풀 덮어쓰고 있었다."(pp. 30&33) 학생들에게 각 문장을 직유 없이 다시 써보도록 한다.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다음, 학생들이 소설에서 다른 직유를 찾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예술가의 간략한 약력이 전시된 예술 작품에 덧붙여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왕실에 민 영감의 도자기와 함께 전시된 민 영감의 약력을 쓰게 한다. 사금파리 한 조각을 왕실에 전달한 목이에 대해 간략한 찬사를 학생들에게 포함시키도록 한다.

사회 – 불교는 고려왕조 시대 동안 강력했다. 학생들을 도서관에 보내 불교의 믿음을 조사하도록 한 후, 두루미 아저씨가 목이에게 가르친 가치들이 이런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논하는 짧은 보고서를 쓰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고려 왕조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문화를 조사하도록 한다. 그런 후에 예술 분야에서 한국인의 기여를 보여주는 연대표를 만들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한국 미술의 작품들을 방문객이 볼 수 있는 한국의 다양한 박물관도 찾고자 할 수도 있다.

과학 – 민 영감은 그의 도자기를 굽는 공동 가마를 사용한다. 가마의 열이 도자기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학생들은 옛 가마를 만드는 방식을 조사해서 현대 가마의 설계와 비교하였는가? 과학과 기술이 현대 공예가가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도예학(science of pottery)"이라 부르는 간단한 소책자를 쓰고, 삽화를 넣도록 한다.

예술 – 벚꽃, 난초, 국화, 대나무는 한국의 귀족 식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고려 왕조 시대의 먹과 붓으로 그린 수묵화에 자주 사용되었다. 이런 꽃과 식물 그림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먹과 붓을 사용하여 그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음악 – 음악은 고대 시대부터 한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판소리는 한국 민요의 일종으로 길고 서사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민요와 유사하며, 북치는 사람과 함께 종종 읊거나 노래로 불러진다. 민요의 요소를 토론한다. 학생들이 목이의 출생으로 시작하여 그가 민 영감의 가족의 일원으로 끝날 때까지, 목이의 삶에 대한 판소리를 쓰도록 한다.

2.4 어휘

이 책의 어휘는 학생들이 새로운 단어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단어에 대한 어휘 저널을 만들도록 하고, 이야기의 맥락으로부터 이 단어들을 정의하도록 시도한다. 이런 단어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

oblivious(p. 4), insolence(p. 30), felicitous(p. 41), derision(p. 46), arduous(p. 53), invective(p. 66), lugubrious(p. 74), plaintive(p. 81), noxious(p. 88), trepidation(p. 109), pinioned(p. 123), skepticism(p. 138), barrage(p. 144)

2.5 수상내역

2002 뉴베리 메달 수상자
미국도서관협회 저명한 도서
미국도서관협회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책
학교도서관잡지의 올해 최고의 책
북리스트 편집장의 선정 도서

2.6 서평

* 영원한 보석과 같다! – Kirkus Reviews

* 독자들이 이 인물들이나 그들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 Publishers Weekly
*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등장인물들이다. 까다로운 완벽주의자 민 영감 ; 그의 친절한 아내, 현명한 두루미 아저씨, 무엇보다 결단력과 생기 넘치는 총명함이 행운을 가져온 목이. - School Library Journal
* 이 조용하지만 빠져드는 이야기는 독자를 다른 시간대와 공간으로 끌어당긴다. 사회는 그것만의 풍습을 가지고 있지만, 등장인물의 마음과 정신, 욕망은 오늘날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 Booklist

2.7 인터넷 정보원

Linda Sue Park
이것은 린다 수 박의 공식 웹사이트이다.
www.lindasuepark.co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청자를 포함해서 한국미술의 전시를 하고 있다.
www.metmuseum.org/explore/korea/gallery.html

Koreaninfogate
이 사이트는 청자의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www.koreainfogate.com/beautykorea/special/celadon.asp

2.8 흥미로운 다른 도서들

Gathering Blue
Lois Lowry
용기, 생존, 희망, 죽음, 예술
5학년 이상 / 0-440-22949-9
Dell Laurel-Leaf Readers Circle

The Friends
Kazumi Yumoto
가족, 죽음, 문화적 다양성
5학년 이상 / 0-440-41446-6
Dell Yearling

Mieko and the Fifth Treasure
Eleanor Coerr
희망, 예술, 문화적 다양성
2학년-6학년 / 0-440-40947-0
Dell Yearling

Year of Impossible Goodbyes
SookNyulChoi
용기, 생존, 희망, 가족, 문화적 다양성
5학년 이상 / 0-440-40759-1
Dell Yearling

2.9 저작권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린스빌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예술 인문과학원의 도서관장인 Pat Scales가 준비함.

도서에 관한 참고자료 : 교사용 지침

1.Carl Hiaasen의 SCAT

1.1 책에 대하여

Nick과 Marta는 Truman 학교의 가장 무서운 선생님인 Mrs. Starct 선생님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석유 굴삭 작업을 폭로하게 된다.

Mrs. Starch 선생님은 그녀의 생물학을 듣는 학생들과 함께 Black Vine Swamp로 견학 여행을 떠나지만, 불에 타는 냄새 때문에 그들의 여행은 중단된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왔지만, Mrs. Starch 선생님은 없었다. 선생님의 실종에 대해 소문들이 무성했지만 학교 교장은 그녀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로 일축한다. 경찰은 학교의 비행 소년인 Smoke의 탓으로 돌리지만, Nick과 Marta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Buzzard Lane에 있는 Mrs. Starch 선생님의 집으로 떠나는데, 여기서 Bunny Starch 선생님의 조카라고 불리는 괴짜 남자를 만난다. 그는 Nick과 Marta를 늪에 데려가는데 거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Mrs. Starch 선생님과 Smoke는 둘도 없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 아기 표범과 엄마 표범과 재회시키려는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불을 냈고, 왜 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1.2 독서 전 활동

학생들에게 현재 미국의 석유 굴삭과 석유 사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잡지의 기사를 찾도록 한다. 그런 다음 Everglades와 같은 땅에서 석유 굴삭과 채광을 멈추고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학생들이 동물,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과 그들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1.3 주제 연계 - 집단 토론용 질문

약자를 괴롭히기(Bullying)

학생들과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한 뒤, 소설 속에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도록 한다. Dressler 박사와 경찰은 Smoke가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낙인찍었지만, Nick은 Smoke가 실제로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다고 말한다. 범죄 행위와 비행 간의 차이에 대해 토론한다. 소설에서 Smoke가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독자가 알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Mrs. Starch 선생님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방식과 아기 표범을 대하는 방식을 비교해 본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bullying)과 협박(blackmail)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논해 본다. Winship이 그녀의 손자와 사위를 도우려고 어떻게 협박하였나? Dreake MacBride의 협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왜 그를 위해 일하지 않았을까?

부자 관계(Father-Son Relationships)

학생들이 Nick과 아버지의 관계를 Smoke와 그의 아버지 관계와 비교하도록 한다. Twilly Spree는 어떠한가?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가 선택해 왔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Duane Sr.을 돕는 Winship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고, 진짜 아버지를 원하는 Smoke를 이해해 본다.

투쟁의 가치(Values in Conflict)

Twilly는 Nick과 Marta 그리고 Smoke가 "어른들은 부족한 강인하고, 용감하며 옳은 일을 했다"는 점으로 인해 그들을 동경한다. Nick과 Marta가 땅을 보존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교훈을 배우는가? 그들이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어른들을 어떻게 웃음거리로 만들었는가? "희망은 끊임없이 샘솟는 우물이다."이란 말을 설명하게 한다. 이것이 소설의 전체 주제인지에 대해 논의해본다.

용기(Courage)

이 소설에는 용기를 보여주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다. 학생들과 가장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Smoke는 소설 초반부에는 Mrs. Starch 선생님에게 용감하게 대항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그는 줄거리가 전개되면서 어떤 다

른 종류의 용기를 보여주는가? Smoke와 Mrs. Starch 선생님이 용기에 대해 Nick과 Marta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희생(Sacrifice)

Nick의 아버지는 Nick을 Truman 학교에 보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육군 예비군에 가입한다. 그의 궁극적인 희생은 무엇인가? Nick과 Marta, Smoke 그리고 Mrs. Starch 선생님이 표범 새끼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이 등장인물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Nick의 오른 팔이 부러지는 것에 대한 예상외의 결과는 무엇인가?

포기(Abandonment)

포기에 대한 Smoke의 생각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해본다. 이 생각들이 Smoke의 과거 범죄 이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표범과 아기 표범을 재회시키려는 그의 헌신이 포기에 대한 그의 생각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본다. Mrs. Starch 선생님도 포기의 희생자이다. 그녀가 그녀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소설 속에 다른 등장인물들은 포기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이것이 그들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4 교과 과정 연계

언어

Mrs. Starch 선생님은 "교사의 직무는 각 학생들의 강점을 알아내고 계발하여, 지식을 추구하는 데에 그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Nick과 Marta, Smoke의 관점에서 "내가 Mrs. Starch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란 제목으로 소론을 쓰도록 한다.

Mrs. Starch 선생님과 세 명의 제자가 Black Vine Swamp에 돌아온 뒤 "선생님과 학생들이 새끼 표범을 구하고 불법 석유 굴삭 작업을 폭로하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신문과 전국 신문에 나올 수 있는 특집 기사를 쓰도록 한다.

사회

학생들에게 Sierra Club의 목적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 클럽의 활동은 과학과 사

회 과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클럽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매년 9월 29일로 지정된 National Public Lands Day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해온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읽도록 한 뒤, 학교에서 축하를 위한 몇 가지 활동들을 계획해본다.

과학

학생들에게 자기가 속한 주(state)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 후, 하나를 선택해 조사하고 학교 신문의 과학 칼럼에 게재할 수 있는 기사를 쓰도록 한다. 웹사이트 www.endangeredspecie.com 방문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자는 탄원으로 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드라마

학생들이 Nick, Marta, Smoke 그리고 Mrs. Starch 선생님을 손님으로 초청하여 텔레비전 토크 쇼를 연출하도록 한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새끼 표범을 구하고 Red Diamond Energy Company를 폭로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독서 전 활동에서 배운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토크쇼의 특별 손님으로 Al Gore를 초대한다. Al Gore가 Mrs. Starch 선생님과 세 명의 학생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술

학생들이 "지구를 구하자(Save the Earth)"라는 엽서를 꾸미도록 한 뒤, 엽서 뒤에 Nick, Marta 또는 Smoke가 Twilly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도록 지도한다.

1.5 어휘 / 언어 사용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를 쓰도록 하고, 소설의 문맥으로부터 의미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본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포함될 수 있다.

p. 2 regurgitation p. 90 intimidated p. 136 menagerie p. 356 ominously…….

1.6 저자에 대하여

Miami Herald의 칼럼니스트인 Carl Hiaasen은 Sick Puppy와 Basket Case와 같은 성인을 위한 다수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출간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타자기를 선물한 6살 때부터 플로리다에 대해 집필해 왔다. 청소년 독자를 위한 Hiaasen의 처녀작 Hoot는 2003년도 뉴베리 명예상(Newbery Honor Book)을 수상하였다. Flush와 Scat도 플로리다의 야생에서 신비롭고, 때때로 범죄적인 사건들을 풍자적인 시각으로 담고 있다.

1.7 인터넷 정보원

Florida Panther Net
www.florida.conservation.org/panther

Defenders of Wildlife
www.defenders.org/wildlife_and_habitat.wildlife/panther.php

The Nature Conservancy
www.nature.org

Dealing with Bullies
www.kidshealth.org/kid/feeling/emotion/bullies.html

Everglades Foundation
www.evergladesfoundation.org

<웹에서>
바이오, 교사용 지침서 등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Teachers @ random
온라인 뉴스레터를 방아보기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www.randomhouse.com/teachers
수업시간을 위한 도서를 100 이상의 테마와 공휴일로 탐색해 보십시오.

1.8 주제에 따른 관련 도서

Flush(도서관 오디오로 청취 가능)
Carl Hiaasen
갈등, 약자 괴롭히기, 부자 관계, 희생, 용기
4학년부터 7학년
Alfred A. Knopt PB : 978-0-375-84185-9
Alfred A. Knopt HC : 978-0-375-82182-0
GLB : 978-0375-92182-7

Hoot (도서관 오디오로 청취 가능)
Carl Hiaasen
갈등, 약자 괴롭히기, 용기
4학년부터 7학년
Yearling PB : 978-0-440-41939-6
Alfred A. Knopt HC : 978-0-375-82181-3
Autumn Winfred Oliver Does Things Different (도서관 오디오로 청취 가능)
Kristi O' Donnell Tubb
갈등, 약자 괴롭히기, 희생, 용기
4학년부터 7학년
Delacorte Press HC : 978-0-385-73569-8
GLB : 979-0-385-90558-9

Belle Prater's Boy (도서관 오디오로 청취 가능)
Ruth White
포기
4학년부터 7학년
Yearling PB : 978-0-440-41372-1

Pat Scales,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스빌의 아동문학 컨설턴트가 준비 작성함.

어린이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쿄코 마츠오카*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는 “어린이사서를 위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를 부탁 받았다.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을, 매우 쓴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계속 교육”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이미 교육이 이루어 졌다는 전제하에 그 이후의 교육을 이르는 말이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도서관계에는 맞지 않는 용어다.

사실, 전문대나 종합대학의 도서관학 학생 또는 취득요건을 충족한 사서가 시소(shisho)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시소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사서의 필수요건도 아니다. 아직 일본에서의 사서는 의사나 간호사, 교사와 같은 전문직종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를 “사서”라고 칭하고는 있으나 이들 “사서”는 일반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이후 보직이 도서관으로 결정된 일반 공무원이다. 이들 일반 공무원은 우연히 수자원부나 선거관리 위원회 같은 곳이 아닌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 임용이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직선정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도서관 근무가 불만족스러운 “사서”가 있는 반면 도서관 근무를 매우 희망하는 공무원이 다른 분야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근무하고 있기도 하다.

* 일본 동경어린이도서관장

나는 도서관 근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강한 동기로 도서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특히, 장래가 촉망 받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의 기회가 없이 어린이사서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내겐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어린이사서가 된 운 좋은 공무원은 2-3년 기간의 순환보직 규정으로 인하여 항상 다른 부서로의 발령에 불안해하고 있다.

몇 년 전 내게 많은 충격을 준 젊은 친구의 예를 들고자 한다. 그녀는 도서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어린이서비스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운 좋게도 동경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며 도서관 근무의 좋은 점을 대변했었다.

몇 년이 지나자 점점 근무의 범위와 깊이가 더해졌다. 그러나 갑자기 세무서로 발령이 났다! 그녀는 세무서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처음 받은 전화가 소득세에 불만을 가진 화가 난 남자의 전화였다고 말했다. 그 항의전화는 "조심해, 언젠가 네 사무실을 불질러버릴 거야."라는 내용이었다.

도서관 이용객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에게 이런 협박이 얼마나 충격이었겠는가! 또한, 이러한 인사발령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인재의 재능을 썩히는 것인가!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서가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매년 경력직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직원 교육을 해야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낭비나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사서의 이러한 상황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에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사서가 전문직이라는 인식 없이는, 또한 직원채용 시스템과 지위보장 없이는, 위에 기술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도서관 일을 하는 “사서”가 있으며, 매일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이용자가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사서의 불합리한 지위를 한탄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탁상공론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린이들은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어린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해결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연수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도서관 연구협회(Jidou Toshokan Kenkyukai)나 내가 관장으로 근무하는 동경어린이도서관 같은 민간기구나 조직이 제공해왔다.

일본 최초의 어린이 국립도서관인 국제어린이도서관이 2000년에 개관했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전국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국의 어린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이러한 설립 목적을 수행할 준비가 안되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더 자질을 갖춘 직원을 갖추고,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기구 또는, 최소한 각 지방도서관과 유용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 연구협회는 1953년에 요시코 코구치(Ms. Yoshiko Kogouchi)가 조직하였다. 이후 어린이도서관 관련 기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기구로 발전하였다.

사서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어린이도서 업무 관련 자원봉사자나 관련 직종 종사자 등 7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어린이도서관 연구협회는 매년 일본의 다양한 지역에서 워그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 참여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그 참석률이 매우 높다. 공공도서관의 어린이관련 직무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어린이사서 연수(Yosei Koza)”은 일본도서관협회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어린이사서 연수”는 1980년 일본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부 어린이청소년위원회(Jidou Seishounen Iinkai)가 개설하였다. 본 과정의 첫 번째 목표는 최소 5년 이

상의 어린이담당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본 과정은 두 개의 집중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일주일 동안 봄·가을에 개설된다. 기본적으로 봄학기 과정은 이론적이거나 법적인 분야를 다루며 가을학기 과정은 실무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현재까지 600명 이상이 본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이수자는 전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 서비스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또다시 많은 프로그램 참석자들이 현재의 공무원 순환보직 규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 이수 후 곧 도서관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기구에서 근무하는 사서가 많으며 이직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원자를 모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지방정부는 예산절감을 감행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도서관이 예산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진정 공공도서관의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는 한 동안 지속될 것이며 도서관 및 사서는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중 몇몇은 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International Institute for Children's Literature)의 최근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오사카 현의 큰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새 주지사는 2010년에 국제아동문학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70만 장서와 30년 역사 동안 성취된 그 업적, 또는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는 지방의회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점은 영속성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민간부문의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분야에서 근 30년간 일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다시 한 번 사설기구의 역할을 상기했다.

동경어린이도서관은 1974년에 설립된 사립기관으로 규모가 작았다. 이후 4개의 카테이 분코(katei bunko)로 성장하였다. 카테이 분코는 이웃 어린이들과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작은 사립어린이도서관이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사립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갑작스러운 예산절감이나 불합리한 순환보직의 문제는 없다.

일본에는 합법적으로 공인된 재단의 사설 어린이도서관이 다섯 군데가 있다. 이 도서관들 사이에서 우리 동경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67년 자택에서 분코 도서관을 열기 전 아직 설립 계획단계일 당시 나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사서였다. 참 운이 좋게도 나는 일본과 미국 두 곳의 도서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게다가 세심하게 잘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공공도서관 중 하나인 에녹 프랏 프리 도서관(Enoch Pratt Free Library)에서 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었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시 한번 운이 좋게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 어린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삼 년이 지나고, 내가 앞서 설명한 대로 인사이동에 의해 어린이 업무를 그만두어야 했다. 이것은 내가 이 자리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장담 못했다.

나는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사립 영역에 뛰어들게 된 이유이다. 처음에 나는 공공분야에 머물며 내 경력을 쌓아가길 매우 원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는 공공 도서관이 모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증진이 내가 헌신하고자 했던 분야였다.

공공도서관을 떠날 때 나는 슬픔과 일종의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공공도서관 사서로 보낸 시간은 매우 짧았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나의 "어린이도서관사서" 동료들이 사전 교육이나 전문적인 도움 없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지 깨닫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설립 초기 우리 동경어린이도서관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주석을 단 리스트와 새로운 서평, 그리고 관련된 글들을 실은 저널을 출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숙련되지 않은 어린이 사서들이 장서를 구축할 때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방법이었다. 어린이 서비스의 다양한 면에 대한 교육과 워크샵을 제공하는 것도 다른 방법 중 하나였다. 우리가 중점에 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책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었다.

또한 어린이 사서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줄만한 흥미 있는 주제들에 대한 북리스트와 다양한 가이드북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우리의 빌딩을 갖게 된 뒤인 1997년부터, "어린이 도서관 과정"라고 명명된 여러 교육과정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주제는 해마다 달랐다. 본 과정은 동요 부르기, 책 크게 읽기 또는 독서토론하기 등을 실습을 포함하여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부터 역사까지 모두 다루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공공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 그리고 분코나 어린이 센터에서 어린이들과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등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도 독자적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모임을 갖기도 했다.

최근 한 그룹은 "이 하나의 책에서 - 책과 어린이들을 함께 이끌 당신(신입 어린이 사서를 의미)을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의 북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기초어린이 도서와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관련 도서의 추천도서목록으로 신입 어린이 사서들이 어린이 도서와 도서관 서비스 분야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어떤 경력이나 사전교육 없이 갑자기 어린이실에 임명된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종종 낙담하기도 한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대부분 친숙하지 못한 수천 권의 어린이 책을 바라보며 난처함을 느낀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 자신감을 잃는다. 이 리스트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린이서비스로의 첫발을 내딛도록 격려한다.

다른 그룹은 현재 유아들을 위한 도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다른 그룹은 동요를 배우기를 계속하여 간호사들과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젊은 엄마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 동경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 사서들의 자가 교육의 작은 중심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다.

동경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사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2002년에 어린이와 도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과 공부”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큰 발전을 보였다.

우리는 어린이 사서들을 훈련시킬 새롭고 좀 더 실속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정기 모임이 반 년에 여섯 번, 일 년에 많아 봤자 6-7번 있을 뿐이며 참석자도 과정마다 다르다. 우리는 참가자들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어린이사서를 좀더 확실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인턴제도의 도입을 고안해 냈으며, 새로운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직 교사들의 관대한 도움을 통해 인턴제도 계획이 실현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동경어린이도서관에 두 명의 젊은이를 견습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일년간 동경어린이도서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린이 도서관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여러 분야의 강의와 세미나를 들으며, 우리와 함께 매일 어린이 관련 업무를 보았다.

인턴제도를 통해 어린이사서 견습생은 어린이서비스의 여러 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다. 우선, 인턴은 어린이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

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아이들에게서 배우며 어린이들과 대부분의 오후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우리의 정규 도서 선정 모임의 토론에도 참여하고, 도서소개 작성법과 서평 쓰는 법도 배운다. 이러한 훈련의 결과는 동경어린이도서관 저널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선배의 스토리텔링을 참관하고 학교방문에 동행한다. 인턴과정이 끝날 때쯤, 인턴이 직접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독서토론을 갖는다.

동경어린이도서관은 인턴이 도서관 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이나 강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원한다면, 어린이서점 혹은 아동출판사, 또는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유치원을 방문할 수 있다. 우리는 인턴이 동경어린이도서관에 있는 동안 이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프로그램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미 느끼고 있다. 동경어린이도서관은 훌륭한 젊은이들을 인턴으로 받아들이는 행운을 얻었으며, 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어려운 과제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맡은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일년 만에 업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실로 보람 있는 일이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간성에 중점을 둔 것이 본 인턴제도의 성공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능한 격식을 따지지 않고 개인에 맞추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선배로부터 듣기”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견습생들이 선배 직원과 임원으로부터 그들의 경험에 얽힌 이야기들과 그들이 지금의 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계속 해오게 한 몇몇의 기억에 남고 소중한 사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는 동경어린이도서관의 교육과정을 단순히 지식전달의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젊은이들과 어린이 서비스에 종사하게 한 동기가 무엇인가와 그 안에서 찾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나는 J. F. 울펜던(J. F. Wolfenden)이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의 정신, 하나의 인격, 하나의 성격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준다. 믿거나 말거나,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한 것에 매우 동감한다.

만약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좀 더 나은 일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고,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것이다. 나는 그것이 바로 계속교육의 핵심이라 믿는다.

도서관은 교육기관이고 사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책과 어린이를 함께 다루는 일을 통해 사람들을,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이 독서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이다.

현재 일본의 공공도서관 실정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어린이 사서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매우 미약해 보인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만약 우리가 단지 불을 밝히는 일만이라도 계속해 나간다면, 이것이 아무리 작은 불씨일 지라도, 어린이 도서관들의 사명은 계속 될 것이다.

원(原)자료와 구글 세대

로저 왈쉬 (Roger Walshe)*

1. 서 론

이 발표에서 나는 영국국립도서관이 학교와 청소년을 위해 만든 두 개의 온라인 자원들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가 미래에 접근하고 맞닥뜨릴 도전들이 어떠할지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그것이 영국의 교육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나는 발표에서 재발하고 있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선택과 기초적인 원(原)자료의 제공이고, 두 번째는 교사와 학생이 그 원(原)자료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정보 리터러시의 발전이다

영국국립도서관은 역사학, 종교교육, 예술교육과 시민권 등과 같은 많은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발표에서 우리는 영문학과 언어학습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하고자 한다.

먼저 영국국립도서관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과 도서관의 장서 레퍼런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전시회 프로그램을 포함한 개괄적인 학습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다.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배움'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의미와 비공식적인 의미로 모두 교육과 연관시켜 사용한다.

이 연구문에서 나는 영국국립도서관의 교육 컨설턴트인 줄리 블레이크 (Julie Blake)와 팀 쇼티스(Tim Shortis)의 작업과 런던대학의 연구팀인 'CIBER'이 영국국립도서관과 JISC를 위해 수행 조사한 '구글세대(Google Generation)'를 인용하였다.

---

* 영국국립도서관 교육부장

2. 배경설명

영국국립도서관은 영국의 국립도서관으로서 세계적인 리서치 도서관의 하나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배양을 도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위해 우리의 장서를 참고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의 주요한 이용객들은 연구자들, 학습자들, 널리 일반대중과, 사업체들과 도서관 커뮤니티들이다.

우리는 여러 문화권에서 온 상징적인 보물들을 포함하여 세계의 여러 지식을 반영한 방대한 장서컬렉션 - 알려진 언어들의 대부분인 1억 5천만개의 아이템들 - 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과 깊이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글로 쓰여진 대부분의 언어들을 포괄하며, 뼈부터 바이트까지 여러 형식으로 기록된 모든 정보들과 다음의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간된 모든 출판물들
- 매해 3백만개의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 - 디지털화
- 52,000개의 신문과 연속간행물
- 310,000개의 원고물
- 19세기 실린더부터 최신 DVD에 이르는 레코딩
- 4백만개의 지도들
- 260,000개의 저널
- 사진 컬렉션
- 부정기간행물 컬렉션

3.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팀은 도서관 전략과 학교 운영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교육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팀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학습자들을 영국국립도서관의 장서, 전문가와 온라인과 지역 현장에서 제공되는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

을 통한 가치들과 연계시킨다. 또한 팀은 지역 프로그램과 전시 해석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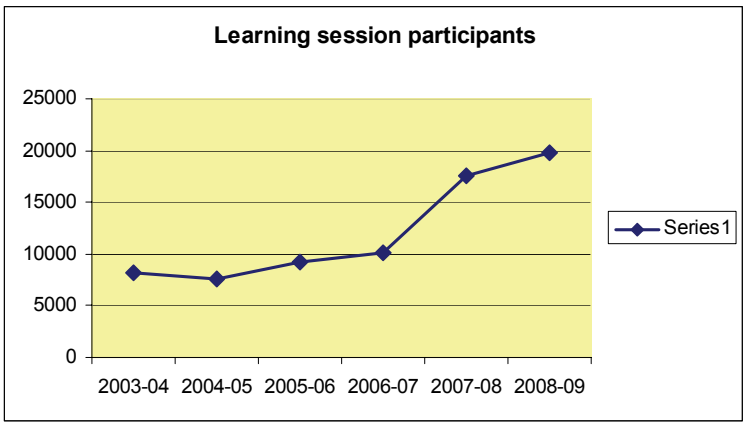
공식적인 교육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을 위함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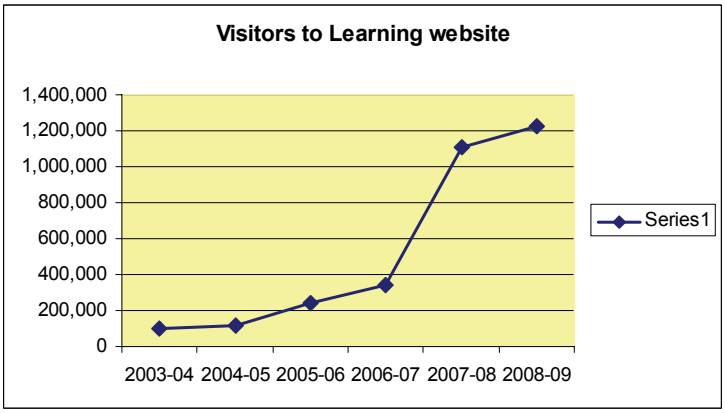
- 영국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을 모두 지원하고, 학습기능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 영어학과 영문학, 역사학, 미술과 디자인, 시민권, 종교교육과 미디어학습과 같은 주요 분야들을 지원하고, 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증진시켜야 한다.
- 새롭고 젊은 그리고 좀더 다양한 이용객들을 영국국립도서관으로 끌어들이고, 미래의 독자들과 연구가들을 고취시켜야 한다.
- 연구 기능을 위한 최상의 장소로, 온라인과 현장 모두의 정보 리터러시와 자료 바탕학습에 도서관을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
-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맞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학습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학습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 연구기능
- 정보 리터러시
- 비판적 사고
- 시각과 언어 리터러시
- 이문화의 이해
- 창의성

지난 몇 해 동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아래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상당히 증가해 왔다.





지난 몇 해 동안 주요 전시회에 맞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업무 대부분은 이것이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 분야들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게 했다.

- 프론트 페이지 : 프론트 페이지 : 영국 신문 100주년 기념(1906 - 2006)
- 런던 : 지도 속의 삶
- 신성함 :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발견
- 규칙 깨기 : 유럽 아방가르드 출판물의 얼굴 1900 - 1937
- 라마야나 : 인도 최고의 서사시 속의 사랑과 무용담
- 자유 수호 : 영국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
- 헨리8세 : 인간과 군주

위의 전시회들은 우리를 미디어 학습, 지리학, 역사학, 종교교육, 미술과 디자인 그리고 시민권을 배우는 학생들, 교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4. 온라인과 디지털 프로그램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기회와 접근과 도달은 매우 거대하다. 이러한 기회는 모든 도서관들에 있어 새로운 이용객들에게 닿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다. 대중 디지털화는 혁신적인 교실 액티비티의 가능성과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인 연구, 개인특성에 맞춘 교육과 과거의 학교와 공공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자료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만든다.

다섯 해가 넘을 동안 영국국립도서관은 영어학 학습을 지원하는데 충분히 관여해 있었다. 이 분야의 의욕적인 활동의 새로운 측면에 착수하며, 이제 우리가 해왔던 활동을 반성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 생각해 볼 적기인 것 같다.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영어라는 언어와 그 스타일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어떻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였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는 사이트인 '텍스트인 컨텍스트' (Texts in Context)' 웹사이트를 런칭한 지 현재 4년이 되었다. 이 사이트는 다른 타입의 여러 원본 텍스트들의 모사를 포함하고 있다. : 요리책, 광고지, 리플렛, 광고문, 편지, 업무일지, 리포트, 풍자물, 카탈로그, 가이드북, 그리고 사전들이 그것이다.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개의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두 분야의 풍속화 발전과정의 삽화를 보여주는 요리책과 사전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우리는 런던과 사우스 웨스트의 교실, 박물관 그리고 문서보관소에서의 '실제현실'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트를 보강하여 교수법을 발전시켰다. 프로젝트에 관여한 실제 교사들의 평가를 거쳐, 그리고 더욱 의미 있게 웹사이트에서의 역사적 언어 변화에 대한 교육과 학습 그리고 이것의 A레벨 평가, 그리고 더 적은 범위의 학부와 GSCE 레벨에게 우리는 그 프로젝트가 명백하고 일관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이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자료를 언어변화를 가르치는데 사용하기 위한 요구가 발단이었고, 이들은 이러한 요구를 위해 영국국립도서관에 접근한 DCMS를 위한 시도 전의 교사와 심사위원이었다. 이것은 개인으로 또한 그룹으로서 교사들의 활동 과정의 중요성과 그들의 요구 가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여러 재원과 함께 공공 기구에 그들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드러냄을 보여주었다.

팀 쇼티스(Tim Shortis), 심사위원장(Chief Examnier), 영어학 AQA

사이트의 텍스트들은 심사와 교과서와 교수자료 웹사이트에 이용되었고, 2005년 6월과 2006년 6월에 그대로 개요 심사에 사용되었다. 또한 텍스트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증명하였는데, 보통의 A레벨 학생들의 아래 코멘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새로운 측면의 언어 레슨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텍스트를 확장하고 방법에 대한 문맥 상의 정보를 찾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원래 형식에서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특히 나는 나이젤라 로슨(Nigella Lawson)의 것과는 전혀 다른 '훌륭한 주부의 보석'('Good Housewife's Jewell') 이 좋았다.

이것은 최근 몇 년 향상된 총체적인 언어변화 분석 데이터의 학생 활동 심사 리포트에 나타나 있는 코멘트 속에서 반영되었다. 여기 1694년 영국국립도서관에서 나온 '여성 사전(The Ladies Dictionary)' 모사 페이지와 연계된 학생에 초점을 맞춘 AQA B 2006년도 리포트에서 나온 코멘트가 있다.

질문 4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아마도 페이퍼를 읽는데 있어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지만, 질문에 접근한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불과 몇 년 전의 문제보다 모사된 근대 초기 텍스트와 씨름했던 경험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 약간의 즐거움을 동반한 텍스트와 관련한 여러 반응들은 열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가치를 포함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태도에 대해 재미와 공포를 섞어놓은 듯한 반응(몇몇 경우에)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이 사회 구조의 확연한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광의로 볼 때 이러한 생각들에 최선

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단순한 반응보다는 효과적일지라도, 17세기의 구조적 특징의 중요 세부사항을 논함으로써 당시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 또한 활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구조적 특징을 살릴 수 있었고, A04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표준 영어의 독자적인 고안자이자 분류자인 존슨 박사(Dr Johnson)의 중요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후보자들은 과거의 실례보다 변화와 성과 두 가지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의 복잡한 기술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의 '사운드 퍼밀리어'(Sounds Familiar) 웹사이트는 '텍스트인 컨텍스트' (Texts in Context)가 텍스트를 위해 해놓은 작업을 스피치 녹음을 통해 이루었다. 영국의 스피치 언어학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의 부족함을 교사들이 표하면서, 우리는 영어 방언 조사(Survey of English Dialects (1950s)), 앵글로-웨일즈 방언 조사(Survey of Anglo-Welsh Dialects (1960s - 80s)),밀레니엄 메모리 뱅크(Millennium Memory Bank (1998-99))의 자료들에서 72개의 지역적 액센트 특징과 방언을 레코딩한 것들을 모아 이용자들이 지역적으로 쓰이는 영어가 얼마나 다양하고, 액센트와 방언이 시간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사운드 퍼밀리어'(Sounds Familiar)는 여러 시리즈의 상호작용하는 소리 지도를 통해 특정한 측면의 언어의 다양성과 변화, 그리고 말하여지는 단어, 문법, 음운론 시험을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사이트에는 영어의 전혀 다른 세가지 측면을 면밀하게 다룬 세 가지의 사례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 표준 발음(Received Pronunciation), 조르디 방언(Geordie dialect), 소수 종족 영어(minority ethnic English)이 그것이다.

제도적으로, 두 개의 웹사이트들은 웹트래픽을 증가시켰고, 언론으로부터 호의적인 관심을 받으며, 교육적인 효과를 통해 영국국립도서관에 큰 효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중요성을 증명하였고, 취학 연령의 이용객들을 끌어들이고 물들였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곧 도서관이 현재 두 중요한 디지털화와 웹 프로젝트를 교사들과 16

세 이하 학생들의 마음과 함께 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영문학 학습을 지원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언어학 학습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커리큘럼 문제를 지적한다. : 첫째로, 그러한 '웅장한 이야기들'(grand narratives)은 적절한 예가 되기 어렵고,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텍스트와 작가, 역사적 순간들과 함께하는 친밀성의 꽤 높은 레벨이 없는 위협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중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위험한 시도를 하여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게 하는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요구를 아주 미미하게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컨텐츠를 위한 초보 이용객들은 A레벨(미국의 11학년, 12학년)의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일 것이다. 몇몇 부분들은 접근하기 쉽고, 어린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또한 몇몇은 신입 학부생들에게 적절한 범위와 깊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는 사이트가 좀더 넓은 일반 대중들에게 부각되게 할 의도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온라인 자원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위의 영국국립도서관 컨텐츠를 조정하여 적절한 맥락화와 교육을 위해 한 곳으로 모을 것이다.

구글북(Google Books)을 포함한 도서관과 문서보관소의 대중 디지털화는 세계의 여러 지식이 출판되는 곳에서 더 많은 것이 낫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양산해 낼 것이다. 영국 정부의 교실 ICT 하드웨어에 대한 막강한 투자는 ICT 교수법과 자료들을 위한 하향식 질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영어영문학의 포괄적인 적용 범위의 세계적 영어 말하기 온라인 문맥을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커리큘럼 목적의 격렬한 여론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크게 생각하기' 컨텍스트는 사람들을 매료시키지만, 영국국립도서관의 초기 '텍스트인 컨텍스트'(Text in Context) 프로젝트가 학생과 교사들에 의해 다루어지기 쉽도록 하는 레벨로 돌아가고자 하는 큰 뜻의 여지에 대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사이에는 많은 경쟁이 있는데, 논쟁과 새롭게 떠오르는 영어학과 영문학의 발전에 대한 평가 - '위대한 작가들', 규범, 탈식민지 재해석, 비판적 사고들이다. 권위적인 문화 제도와 같은 문제에 있어 영국국립도서관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텍스트와 생각이든 간에 조심스

럽게 다룰 의무가 있고, 이데올로기와 권력이동과 같이 이용자가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구축해 놓은 문제와 이러한 설명들이 초급의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이다.

5. 원본 자료

그러나, '텍스트인 컨텍스트'와 '사운드 퍼밀리어'와 같은 프로젝트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그 외 무수히 많은 영국과 세계 여러 곳의 자료-기초 프로젝트 등도) 여전히 원본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나는 최근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학부생들에게 그녀의 전문분야인 '중세시대의 마녀와 마법'을 강의하고 있는 한 대학의 역사학 강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학생들을 위해 강의전-후의 액티비티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대한 양의 이미지, 텍스트, 목판화와 기타 등등(사실상 많은 부분이 그녀가 갖고 다니기 쉽도록 만든 카드 카달로그였다)의 자료은행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에 구글 이미지들(Google Images)을 사용하였다. 언제나 매력적인 '구글박스(GoogleBox)에 '마녀'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그녀가 워드 문서 속에서 찾은 것들을 붙여 넣으면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건성으로 태연하게 대답하길 그들은 겨우 학부생이고 원본 자료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이러한 교수 방법이 아직 설익었지만 좋은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약간은 걱정되는 측면에서 볼 때 만약 지각 없는 경험자들에 의한 게이트 키핑 경향이거나 아마추어나 초급 학부 강좌를 겨냥한 전문적 리서치 커뮤니티 인지 확신 할 수 없었다. 각각의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은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악한 대우가 된다.

우리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5세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 워크숍 세션 때 갤러리에 전시된 본래 유물을 사용했다. 우리는 그 실제물에서 오는 특별한 분위기와 실질성에 학생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고를 가져간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그것들은 읽기에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노력이 큰 보상을 가져다 주었다. : 권위 있는 작업들의 초고와 원고는 이러한 활동들을 좀더 인간적이고, 변화무쌍하도록 보이게 만들었다. 문장을 교차해 나갈 때 혹은 만들며 고쳐 나갈 때

학생들은 각자 나름대로 의미와 단어들과 씨름했고, 손글씨로 쓰는 이것은 (최소한 서양 전통의) 프린트의 맹목적인 권한을 앗아갔다. 학생들과 텍스트 간의 관계는 즉시 변화했다. 그것은 학생들이 텍스트와 작가에 대한 존경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6. 구글 세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초기 교육 진보로부터 원본 자료와 복사물을 사용하는 교실을 연구하고 옹호해 왔다. 소위 구글세대(1993년 이후 출생으로 그들의 기초 정보 자료로 인터넷을 이용하며 자란 세대)라 불리는 세대의 정보 탐색 태도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결론 중 하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정보 리터러시 기술력이 매우 어린 나이부터 발달된다는 점이다.

연구의 대체적인 목표는 다음을 입증하기 위한 가능한 증거를 모으고 평가하는 것이다.

- 어느 쪽이든, 디지털 변화와 디지털로 만들어진 거대한 범위의 정보 자료들의 결과로 젊은 이들, 즉 '구글세대'는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찾고 연구하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성숙한 리서처로서의 그들의 향후 태도를 형성할 것인가?
- 새로운 방식의 연구 콘텐츠는 이미 활동하는 리서처와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해나가는 방식에서 그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 인터넷 시대에서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알리고 토론하게 하자.

  연구의 첫 번째 파트는 지난 30년간의 젊은이들의 정보에 대한 태도와 선호에 대한 보고서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좀더 명확하게 하자면, 1980년대 초기(X세대)와 1990년대 초기(Y세대) 그리고 좀더 최근의 1993년 이후(구글세대)의 비교연구가 목표이다. 이것은 이러한 세 세대들의 발달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여러 비판적인 차이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문서상의 연구이다.

연구의 두 번째 파트는 연장자인 리서처들이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진보한 것처럼 광범위한 변화들에 적응하는 동일집단들이거나, 여러 장기적 연구

를 위한 자료에 의해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Carol Tenopir와 Don King의 특별히 가치 있는 조사 연구가 있다.

세 번째 파트는 제 시간에 하나의 포인트로 측정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태도의 여러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하였다. 다시 말해, 취학아동과 어른들을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검색 플랫폼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 나이와 연관된 명백한 선호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연구의 파트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에 어필하는 두개의 웹베이스 정보 자료 이용자의 윤곽을 그리기 위해서 CIBER은 심층적인 로그 분석 테크닉을 사용하였다. : 영국국립도서관 교육 웹사이트 www.bl.uk/learning와 www.intute.ac.uk

'구글세대'는 1993년 이후 태어나 인터넷 사용이 지배적인 세계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의미하는 잘 알려진 신종어이다.

후에 이 논문에서는 구글세대를 둘러싼 몇가지 허구와 진실을 살펴보고, 그것들 중 몇몇 부분은 타파시킬 것이다. 하지만 관념들은 강한 직관에 호소하는 것이다. 몇몇 표제 발견은 널리 공론화된 구글세대의 고정관념에 대해 제안한 OCLC의 최근 세계 조사에서 온 것이다.

- 89퍼센트의 대학생들이 정보 찾기를 시작할 때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겨우 2퍼센트 정도만이 도서관 웹사이트로 정보 찾기를 시작)
- 93퍼센트는 검색엔진을 사용한 경험에 대해 만족하거나 또는 아주 만족한다.(84퍼센트의 도서관 지원 검색과 비교)
- 검색 엔진은 실제 도서관이나 온라인 도서관 이용보다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았으며, 이러한 잘 맞음은 '거의 완벽'했다.
- 대학생들은 여전히 도서관을 이용하지만, 인터넷 검색 툴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용이 점점 줄어들었다.(독서도 줄어듦)
- '책'은 여전히 이 그룹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도서관의 상징이지만, 디지털 자료의 거대한 구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큰 괴리를 갖는다.

이러한 발견은 CIBER의 웹 로그 파일 분석에 의한 젊은 이들의 정보에 대한 경향 연구 속에서 높은 일관성을 보였고, 정보제공자와 이 연구의 정책 컨텍스트의 제공에 많은 이슈를 만들었다. 거기에는 특히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사실'과 창조의 소요, 개인적인 생각의 정보의 홍수에서 오는 광범위한 교육적 우려가 있다.

모든 사실적인 정황들은 사람들이 전자 정보 자료들을 이용할 때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정보 검색 태도는 획일화되거나 톡톡 튀고 자연스럽게 체크하고 보는 특징으로 정의된다. 이용자들은 무차별적이고, 다양하며 변덕스럽고 이러한 태도들은 전통적인 정보 제공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된다.

구글 세대 연구는 실제 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를 검색하는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찾았다.

획일적인 정보 검색

훑어보기의 형태로 아카데믹 사이트에서 그저 한 두페이지 정도만 훑어보고 급히 튕겨져 나가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행동에서 알 수 있다. : 60퍼센트 내외의 e-저널 이용자들이 3페이지 이상은 보지 않고 대다수가(65퍼센트 이상)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네비게이션

실제도서관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변을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 사실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찾은 것만 들여다본다.

뷰어

e-도서와 e-저널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보내는 평균시간은 매우 짧다. 전형적으로 4~8분 정도 소요된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예전처럼 온라인에서 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실제로 이용자들이 '파워 브라우즈'라고 하는 빠른 이익을 위한 제목과 컨텐츠 페이지 그리고 초록 등을 통한 획일적인 새로운 형식의 '독서'를 한다는 표시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읽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장 태도

아카데믹 이용자들은 강한 소비 성향을 갖고 있으며 연구가 보여주듯이 다운로드와 같은 형태로 콘텐츠를 저장하며, 특히 무료로 제공될 때 더 그러하다. 이러한 행동과 우리가 목격한 아주 짧은 세션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운로드들이 실제로 읽혀지느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발견할 수가 없다.

다양한 정보 검색자

로그 분석은 이용자 경향을 매우 다양하게 드러낸다. : 지리학적 위치, 성별, 학과의 종류와 지위가 모두 강한 소비자 통계학이다. 하나의 사이즈만을 가지고는 모두 다 맞출 수가 없다.

정보 체크 검색자

이용자들은 여러 다른 사이트들을 찍고 돌며 부가적인 문제 속에서 권한과 그들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며, 선호하는 브랜드에 의존한다.(예 : 구글)

신용 레벨 : 매우 높음

구글 세대

우리는 젊은 세대의 정보 검색 경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린이들과 젊은 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경쟁적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연구와 다른 리서치 툴은 고르지 못하지만 몇몇의 일관된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

- 젊은 세대의 정보 리터러시는 테크놀로지에 폭넓게 접근하는 것과 같이 향상되지는 않았다. : 사실, 그들의 컴퓨터 활용의 명백한 재주들은 몇몇의 우려되는 문제들로 변질되었다.
- 인터넷 연구는 젊은 세대의 웹 검색 스피드가 정보를 평가하고 타당성과 정확성 혹은 권리를 생각해 보는데 아주 적은 시간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젊은 이들은 그들의 정보 요구에 대해 아주 부족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검색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그 결과, 그들은 어떠한 주 검색어가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그들 자신의 표현하는 선호를 강하게 보인다.
- 서치 히트의 긴 리스트를 접했을 때 젊은 이들은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종종 프린트된 페이지들은 형식적인 언급 밖에 없다. 이러한 요점들은 젊은이들의 요즘 인터넷 이용과 초기 테크놀로지 세대의 초기 온라인 시스템과 씨디롬 이용 모두에 연관된다. 젊은 세대들의 정보 리터러시는 이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졌다는 아주 조금의 직접적인 증거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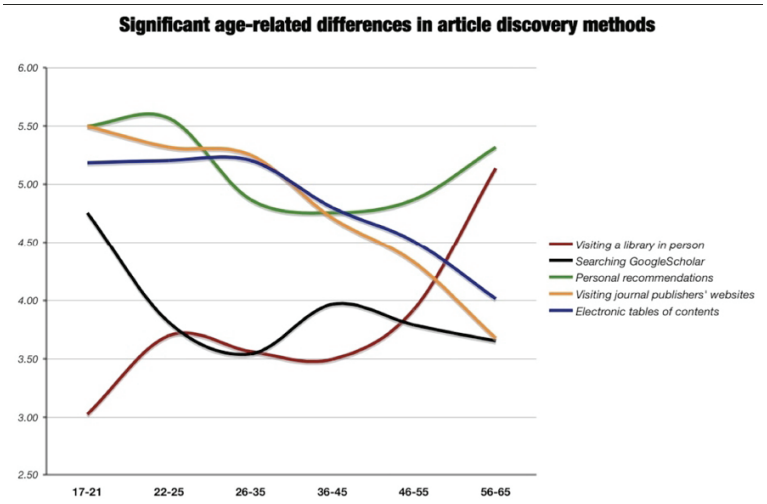
하지만, 유명한 회사 검색 엔진의 유비쿼터스 사용은 다른 이슈들을 양산해 낸다. :

-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종종 네트워크 자료들의 모음들이 여러 다른 제공자들로부터 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곤 한다.
- 그 결과, 야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은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인터넷의 가장 기초적인 브랜드가 된다.
- 많은 젊은 이들이 도서관이 지원하는 직관적인 자료들을 찾지 않고, 대신에 구글이나 야후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학습 요구에 맞춰 친숙하고 간단한 해결을 제공한다.

신용 레벨 : 매우 높음

위에 제시된 커다란 문제가 어떤 범위든지, 오늘날 구글 세대 젊은이들의 경향, 태도 그리고 선호는 그들이 성장하면서 지속될 것이고, 그들 중 누군가는 대학교수나 학자가 될 것이다. 적절하게 형성된 장기적인 연구의 공백에서 젊은이들 중 한명의 지지자의 정보 경향을 성숙함을 통해 따르는 것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기 불가능하다. 구글 세대보다 좀더 나이가 많은 오늘날의 학부생들이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를 보면 그들은 아래에서 제시되듯이 구세대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래프는 대학 커뮤니티 멤버들이 그들이 자료를 찾는 방법의 범위에 놓아 관련 있는 가치들을 보여준다. 나이의 차이는 놀라우며 그들은 몸을 움직여 찾는 도서관에서 가상의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급속하게 가속화되고 구글스콜라(GoogleScholar)와 같은 툴은 현실감을 증대시키고 기관으로써 도서관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가상의 도서관에서의 젊은 세대들의 최근 경향은 어떠한가?

이것은 각자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서로 다른 포인트의 다른 정보 요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힘있게 상기시킨다. 시스템적으로 나이에 맞추고 정보 검색 경향에 맞춰서 조정된 연구는 매우 매우 극소수이다. : 그 결과 잘못된 정보와 젊은 세대들이 사이버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가정이 넘쳐나고 있다.

이 연구의 요점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넓은 연령층의 정보 경향을 비교한 심층적인 로그 분석 : www.bl.uk/learning, 그리고 취학아동과 교사들을 위한 서비스 www.intute.ac.uk, 대학 커뮤니티를 관통하는 서비스인 JISC 이다. 이 분석에서 나오는 주요 포인트는 :

- 모든 서비스들은 영국의 안과 밖에서 매우 인기 있고, 이용에 있어 훌륭한 계약들을 끌어들여(www.bl.uk/learning 사례나, 모든 영국 도서관 트래픽의 14%) 그들이 젊은 학자들(그리고 그들의 스승들)의 가치를 높여 컨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

- 모든 사이트의 인기는 그들이 자국과 외국에서 중요한 브랜드의 존재를 보여준다.
- 모든 사이트들에서 대다수의 방문은 검색 엔진에서 바로 오는 트래픽이었고, 학교나 대학에서 보다는 집에서 오는 응답이었다.
- 40%의 학교 검색 엔진 이용자들은 이미지 검색에 www.bl.uk/learning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러한 종류의 검색에 선호를 보였다.
- 블로그 타입의 링크를 거쳐 www.bl.uk/learning 에 접속한 이들은 아주 소수였으며, 이들은 유력한 미국인들(그리고 핵심 사이트 이용자들)이었다. 사회적 네트워킹이 도서관 사이트의 컨텍스트에 정말 걸쳐있는지는 여전히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젊은 학자들은 아주 조금의 기술을 요하는 툴을 사용한다. : 그들은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검색에 만족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것은 정기 이용자의 사례는 아니었다. 그래서 Intute의 사례를 보면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넘어가는 세션에서 좀 더 많은 페이지들이 보여 졌다는 것이 밝혀졌다.(Intute와 같은 '게이트웨이(gateway)'사이트 사례의 성과)

CIBER의 심층적인 로그 분석 작업으로부터 찾은 것은 정보검색 보고서와 관찰과 조사에 기본을 둔 다른 연구들과도 매우 일치한다. 예를 들어, 관찰연구는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읽기 보다는 매우 빨리 스캔하고 하이퍼링크에 광범위하게 클릭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용자들은 고등의 검색 시설을 아주 조금만 이용하고, 검색엔진이 그들의 질문을 '이해'한다고 추측한다. 그들은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매우 빨리 이동하며 읽기에 아주 조금의 시간만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압축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들이 검색한 페이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신용 레벨 : 매우 높음

어린이들은 (특히) 검색 주제를 묘사하는 그대로의 단어의 존재와 부재 고려에 의하여 매우 한정된 적절성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 그 결과 적절한 문서들을 놓치

고 검색을 되풀이하는 것을 끝마치게 된다. 정보 검색은 특히 문서 컨텐츠에 대한 아주 조금만 주목하는 어린 이용자들에게 어떤 문맥이 발견되고 프린트 되어 지는 지의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다.

신용 레벨 : 매우 높음

구글 세대 : 허구와 진실?

유명 미디어 속의 구글 세대를 대표하여 만들어진 많은 주장은 완벽히 반증할 증명을 필적하는데 실패했다.

그들은 테크놀로지에 더욱 경쟁적이다 **

우리의 평가 : 대체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세대들이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여러모로 생각하기 보다는 간단한 응용과 조금의 편의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ICTs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

우리의 평가 :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소수의 통합된 브랜드에 의해 점령된 글로벌 웹 문화에서 살면서부터 말이다. 다시, 이러한 기대는 상호적이며, 현재 우리 모두는 정보 소비자이다.

그들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과 정보의 수동적인 소비자로부터 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평가 : 대체적으로 사실이다, 젊은 세대의 미디어 소비 패턴이 나타나며 텔레비전과 신문 같은 수동적인 미디어는 쇠락하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형식의 대화로 확고하게 이동하였다. : 말하기보다는 메시지 보내기*

우리의 평가 : 열려있다. 메시지 보내기를 필수 트렌드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의 이러한 인기는 확실히 통화 보다 저렴하다는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에서 멀티태스킹한다.*

우리의 평가 : 열려있다. 강한 증명이 없다. 하지만 일찍 온라인 미디어에 노출되

면 좋은 방향의 처리 기술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광범위한 질문은 순차적인 처리 능력이던지, 보통의 읽기에 도움이 되는 유사한 발전이다.

그들은 즐거움을 위해 이용되거나 현재는 이것을 대학에서의 전형적인 교육 경험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평가 : 열려 있다. 정보 미디어는 재미있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용되기에 실패할 것이다. : 이것은 끝나지 않는 논쟁이다.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과 도서관에 기반을 둔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근의 흥미 일변도의 게임 테크놀로지 이용을 약간 걱정하고 있다. 방송되는 뉴스 메이커들은 20-30년전에 엔터테인먼트 쇼 제작 테크닉을 소개하고, 연구는 이러한 향상된 '흥미'가 정보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텍스트 위에 보여지는 정보를 선호한다.*

우리의 평가 : 검증된 정답이다, 하지만 텍스트는 여전히 중요하다. 테크놀로지는 향상되고 가격은 떨어진다. 우리는 사회적 네트워킹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대체하기 시작한 비디오를 더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도서관 인터페이스는 멀티미디어의 어필은 빨리 사라지고, 아주 짧게 흥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지체에 대한 관용성이 제로이고 그들의 정보 요구는 즉시 성취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평가 :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자명하고, 젊은 세대가 이러한 관점에 매우 참을성이 없다는 제안에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확실하게 반복하는 것이다. : 구세대의 앞선 디지털 미디어 경험의 기억 :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권위있는 인물보다 그들의 동료들을 더 신용할 수 있는 정보 소스로 생각한다 **

우리의 평가 : 모든 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것이 허구라고 생각한다. 정보 자료의 특정 컨텍스트의 연구는 어린이들이 중등학교에서 교사들과 관계자료, 교과서를 계속해서 인터넷보다 가치를 두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인정이 사회적

네트워킹 하위 문화와 10대의 완고한 경향을 좀 더 연관이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교육과 도서관 세계를 위한 특정한 적용은 꽤 문젯거리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웹에 접속하여야 한다고 느낀다*

우리의 평가 : 우리는 이것이 구글세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Ofcom21의 따르면 18-24세보다 65세 이상이 주당 4시간 더 길게 온라인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세대보다는 개인과, 각자의 특성, 배경 등과 같은 특징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했다.

그들은 '자르고 붙이기' 세대이다.**

우리의 평가 : 우리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많은 일화들이 있고, 표절은 심각한 이슈이다.

그들은 시도와 시행착오에 의해 컴퓨터 기술을 습득한다**

우리의 평가 : 이것은 완벽한 허구이다. 유명한 관점은 구글세대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장치의 매뉴얼을 읽으며 여전히 헤매고 있을 동안 새로운 장치를 운용법을 습득하고 돌린다는 것이 완벽하게 허구라고 Ofcom의 조사22가 발견하여 확증하였다.

그들은 전체 텍스트보다 쉽게 소화되는 덩어리의 빠른 정보를 선호한다***

우리의 평가 : 이것은 허구이다. CIBER의 심층 로그 연구는 학부생부터 교수까지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피상적이고, 평범하고, 가벼움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강한 성향을 보여준다. 파워 브라우징과 뷰잉은 모두의 기준이 된다. 나이 든 리서처들 사이의 관념의 인기는 속셈을 보여줘 버린다. 사회는 우둔해져간다.

그들은 전문 검색가들이다***

우리의 평가 : 이것은 매우 위험한 허구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는 친밀해 질 수 없다. 지난 25년간 보고서를 신중히 들여다보면 젊은이들의 정보 기술에 개선이(혹은 저하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웹상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모두 무료라고)*

우리의 평가 : 열려 있다. 여러 일화에 따르면, 거대한 소수의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지만, 누구도 이러한 형식을 연구 질문을 짜맞추고 좀더 깊이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확실히 이것은 인터넷의 초기 발전에 유행하던 관점이었고 정말 중심적인 풍조였다. 질문을 뒤집어, 도서관 지원 컨텐츠에 대해 젊은 세대가 모른다는 것과 또 최소한 마지못해 이용한다는 여러 증명들이 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잘못이 아닌, 도서관의 문제이다.

그들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의 평가 :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처럼 보인다. Ofcom 조사23은 어른과 어린이(12-15세)들이 매우 높은 레벨의 기본적인 지적 재산권 원칙에 대해 자각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저작권 제도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큰 세대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도서관과 정보 산업에 관련하여 저작권 존중에 대한 붕괴는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그들은 형식 불가지론자이다.*

우리의 평가 : 이것은 아마도 어리고 나이 많은 몇몇의 이용자들에게는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우리는 도서관과 출판가들에게 깜짝 수입을 주는 이 문제의 여러 신중한 분석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다 : 콘텐츠는 더 이상 사이버상에 의지하는 포맷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 레벨 : 높음*, 중간** 낮음***

연구는 널리 퍼진 대중의 인터넷 사용에서 어린 이용자들이 종종 적절한 검색 조건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인터넷 사용에서의 리서치는 계속해서 비슷한 어려움을 발견한다는 것을 앞서 발표했다. 전자 검색을 사용해 온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온 하나의 이슈는 젊은 세대들이 전체 구를 사용해 검색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이다.(예 :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세 가지 범죄는 무엇인가?”)

최근 관심 중 하나인, 전자 자료에서 온 정보를 젊은 세대가 평가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것을 평가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실로 걱정된다. 인터넷 검색은 젊은 세대들의 웹 검색의 스피드가 적절성과 정확성 혹은 권한에 있어 정보를 평가하는데 아주 짧게 이용된다는 것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인쇄된 페이지를 관찰하고 인터넷 페이지를 그저 마지못해 흘긋 보는 것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리서처들은 젊은이들이 권한이라는 이슈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유사하게 발견하였다. 한 연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만약 그 사이트가 야후에 의해서 연동되어 진다면 믿을 만한 것이고 질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연구들 또한 아주 적은 수만이 검색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해보려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가장 중요한 발견은(우리의 연구에서) 우리가 인터뷰한 교사들이 정보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기술과 태도가 그들의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9*

고등 교육에 있거나 진입하는 젊은 세대들의 정보 기술력에 대한 소규모의 연구가 영국에서 있었다. 이것은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의 부족 증상에 따른 것이었다. 더 자세한 연구 그림이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정보 리터러시의 레벨이 낮고, 도서관에 대한 불안감의 레벨이 높은 많은 소수의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그리는 것이다. 알 수 있듯이 SAT 진입레벨 스코어와 그 후 등급에 정보 기술력은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발견들을 영국의 컨텍스트로 번역 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정보 리터러시 훈련이 고르지 못하고 모순된 이 나라에서는 미국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강력한 두 개의 메시지가 나왔다. 학생의 4분위수의 최상과 최하는 - 그들의 정보 리터러시 기술력에 의해 정의 되어지는 - 서로 비교되어지고, 최상의 4분위수는 어린시절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학교 도서관에서, 교실에서 혹은 공공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더 높은 빈도로 노출 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러한 소양을 더 많이 갖춘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새로운 분류가 미국에서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정보 기술 스펙트럼의 낮은 레벨 끝 지점에서, 연구는 대학생이 된 나이 때의 노력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 : 그들은 “구글”을 빠져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데 있다. : 실제 정보 리터러시 시험과 정보기술력과 도서관 불안감에 대한 자기 평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고등 교육과 연구에 충당하는 레벨로의 구글 세대의 검색 능력을 학교와 대학들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여러 질문들을 만들어 낸다.

만약 이와 비슷한 패턴을 영국에 들여오게 된다면, 요점은 정보 기술력은 발달 취학 기간 동안 개발시켜야 하며 학부 레벨에 있어서의 개선된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신용 레벨 : 영국과 관련 있음직하고, 미국에선 높다.

논문 투고 안내

1. 「도서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성격은 순수학술논문, 현장실무논문, 번역논문으로 하며 현장사서의 석사 학위논문 중 우수논문의 요약 게재가 가능하다.
3.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당관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4. 논문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한다.
6. 투고 요령
   1) 제 출 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협력과
   2) 표　　지 : 논문 제 1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국·한·영문으로 표기하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재한다.
   3) 초　　록 : 영문으로 작성하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원고작성 : 한글 완성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본문의 글자크기를 11포인트, 줄간격은 160으로 하고 분량은 A4용지 20매를 한도로 한다.
   5) 논문구성 :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6) 번역논문 : 번역한 논문은 번역자가 저작권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원문과 함께 저작권 허락서류를 첨부한다.
   7) 그　　림 : 그림은 이미지파일(GIF, JPG, PCX, BMP, WMF)로 제출하거나 트래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려서 제출한다.
   8) 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어깨번호"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헌은 본문에 저자를 소개할 수 있다.
   9)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할 수도 있다.
   10)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필요 부수는 논문표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 연락처

- 전화 : (02)590-0636
- 팩스 : (02)590-0546
- 주소 : (우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협력과
- E-Mail : rjmi@korea.kr

[비매품]

도서관 제64권 제 1 호
통 권 제382호

2009년 6월 일 인쇄
2009년 6월 일 발행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 화 : (02)590-0636 팩 스 : (02)590-0546
홈페이지 : http://www.nl.go.kr
인쇄처 : 원화디앤피

DOSEOGWAN

Vol.64 No.1(382)
June 2009 (Bi-annual)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ro 664, Seocho-gu, Seoul, Korea
Tel.(02)590-0636 Fax.(02)590-0546